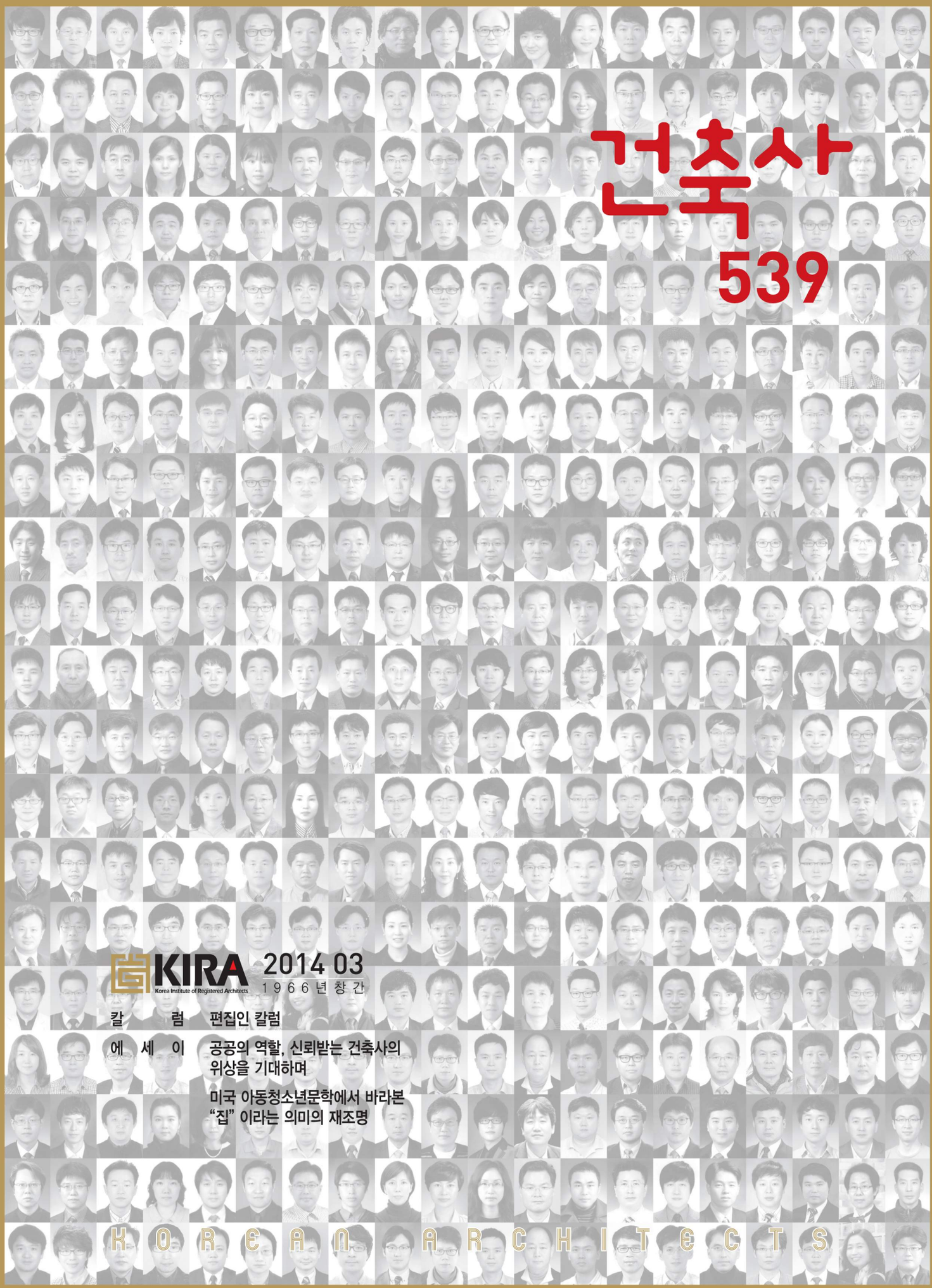


건축사 539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4 03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에 세 이 공공의 역할, 신뢰받는 건축사의 위상을 기대하며

미국 아동청소년문학에서 바라본 "집" 이라는 의미의 재조명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www.kkpc.com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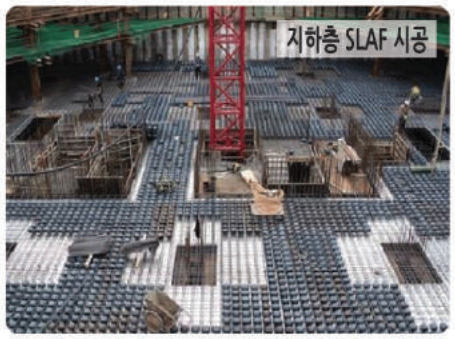
건축주의 고민 공사비 절감 !

SLAF®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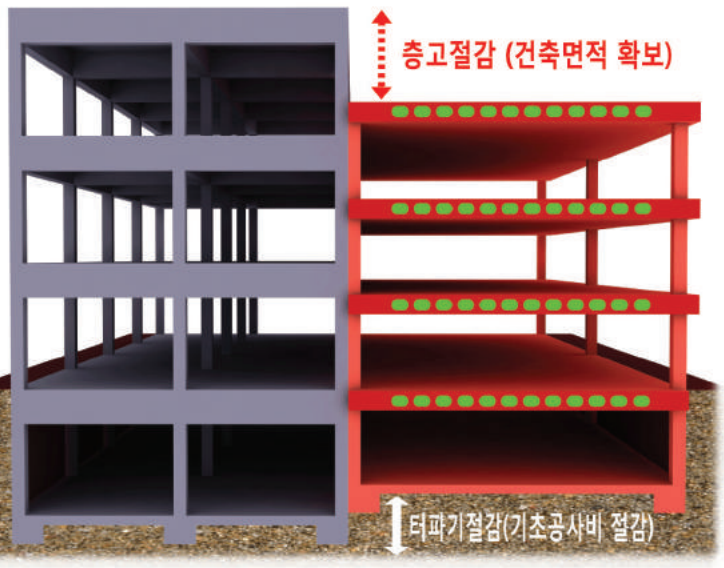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시공 기술자문 책임수행



SLAF 공법 지하층 및 지상층 모두 적용 가능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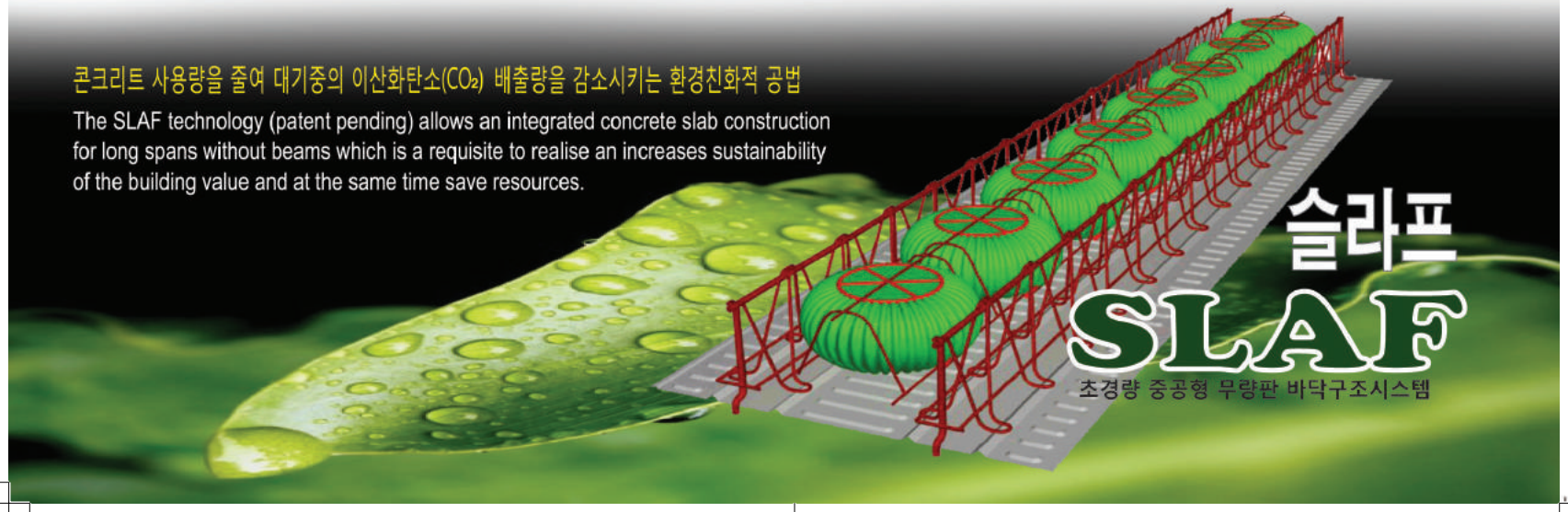
[기존 건물] [SLAF 건물]

SLAF 공법 내화성능(2시간내화) 만족

SLAF 공법 층간소음(경량 및 중량) 차단성능 탁월

(주)신화엔지니어링 SHINHWA ENGINEERING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http://www.sh911.co.kr 건축구조기술사/공학박사/대표이사 조상규

(주)신화엔지니어링은 40년 전통의 구조설계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구조설계(구조계산서, 구조도면작성), 세움터인증, 현장지원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드립니다.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METRO T&C
METRO TOTAL CONSTRUCTION

강봉 포스트텐션보강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설계 · 시공 전문업체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 천 제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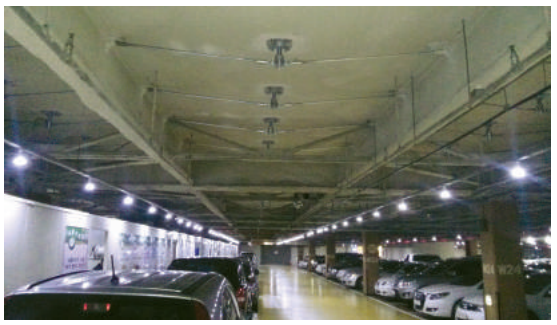
▶ MPT 강봉보강공법 개요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보의 부족한 휨모멘트 및 전단력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보의 단부 상단 고정판과 중앙 하부 고정판을 정착하고 고강도 특수강제의 강봉을 유압시스템으로 인장하여 구조물의 보 또는 슬라브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기존의 수동적 보강방법인 강판과 탄소섬유로 부착하여 보강 할 경우, 보강 부재가 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때 기존부재는 보강 후 적재로 인한 추가 변형으로 인해 구조체의 변형이 증가하게 됨으로 균열의 확대 또는 파손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강판보강이나 탄소섬유보강공법의 경우 상부의 하중을 제거하거나 구조체의 변형을 강제로 회복시킨 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기존부재의 변형을 회복시키면서 추가 하중을 구조체와 함께 지지하게 됨으로 구조물의 내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능동적 보강공법이다.



▶ 보강공법의 특징

1. 구조적 안정성
   고강도의 특수강봉을 유압시스템으로 정확한 인장력 계측이 가능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높다.

2. 내화성능
   일반보강공법에 비교하여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불연재인 강봉을 사용함으로 내화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3. 친환경적
   미장제거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다.

4. 경제적
   건축물의 천정마감재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비용이 절감된다.

5. 공기단축
   기존 보강공법에 비해 공정을 단순화시켜 공사기간이 약50% 이상 단축된다.

6. 시공성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면 완료됨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주변의 각종 설비 시설등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하다.

7. 품질관리, 내구성
   고강도 특수강봉을 공장에서 가공함으로 품질 관리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내구성이 높다.

〈그림 1.4.5c〉 강봉 배치형태(슬라브 V형)

〈그림 1.4.5b〉 강봉 배치형태(보 V형)

메트로 T&C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벤처기업
건축물내진보강 벤처기업 www.metrotnc.co.kr E-mail : metrotnc@nav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든파이브웍스동 A-610호 TEL : 02)402-9395 FAX : 02)402-9396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국토해양부 고시 에너지 효율 **열관류율 2.1 w/m², k** **기밀성 1등급** 기자재 전문 생산업체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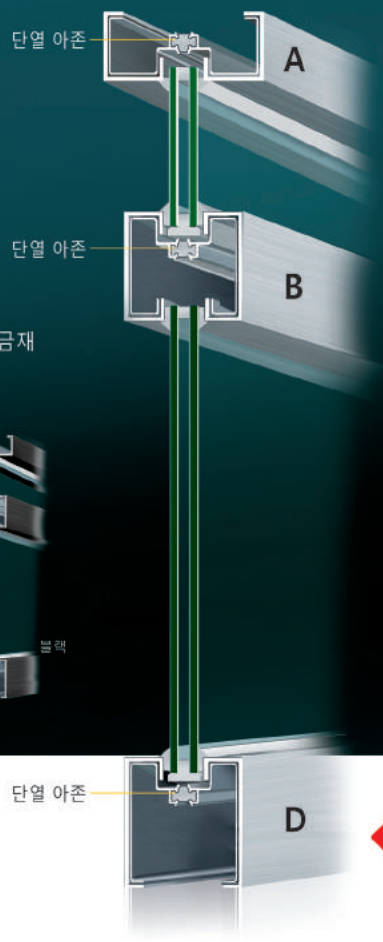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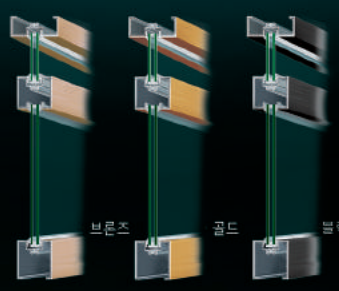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리 • 갈바 불소코팅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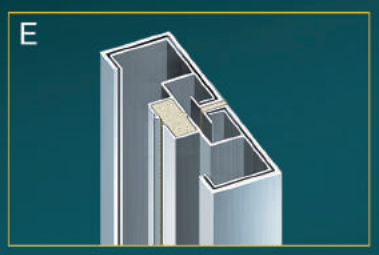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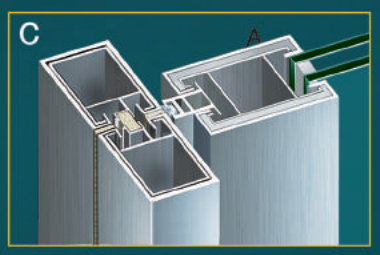
재질/한국산업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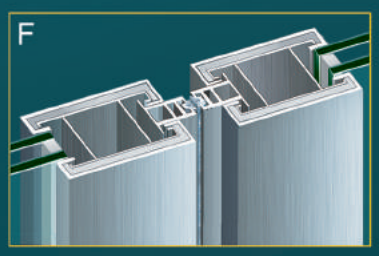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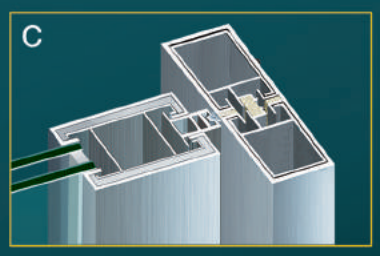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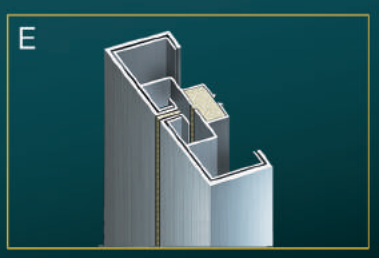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100 x 45 x 2.4T BAR 프레임 *120 x 45 x 2.4T BAR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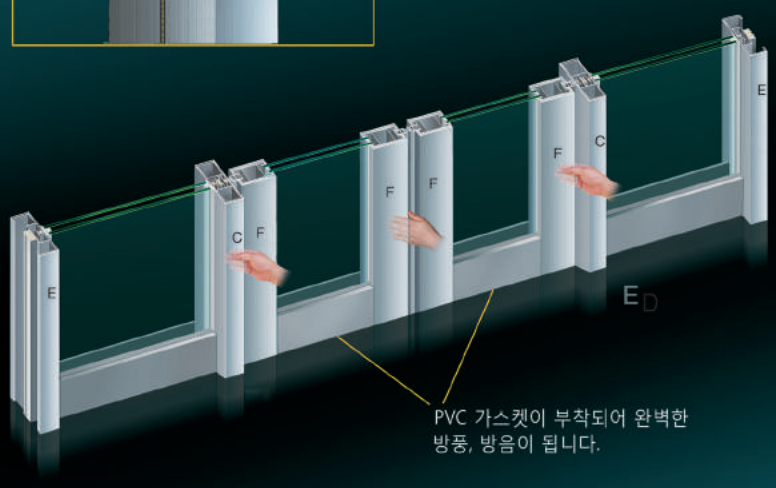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상세도면 :
홈페이지 캐드 다운로드 검색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사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26길 11 (읍내동)
TEL : (053)325-9800/325-9801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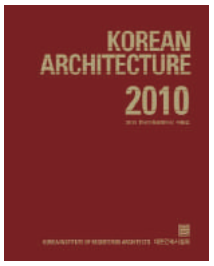
• 전국 영업망 구축 •

「KOREAN ARCHITECTURE 2009, 2010, 2011」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도서 구매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건축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각종 건축도서를 발간하여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시대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KOREAN ARCHITECTURE」시리즈,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월간 '건축사'에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등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OREAN ARCHITECTURE 201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수록
면수: 376여쪽
4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KOREAN ARCHITECTURE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500여쪽
3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 「KOREAN ARCHITECTURE 2010」&「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2권 세트 구매시 **할인가 40,000원(배송비 포함)**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구입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7) ※ 계좌번호 : 기업은행 667-002597-04-232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2중단열 방수 | 천정 결로방지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트라이슈머®의 에너지효율 및 내열성능 시험결과

에너지효율은 높이고 냉·난방비는 낮추고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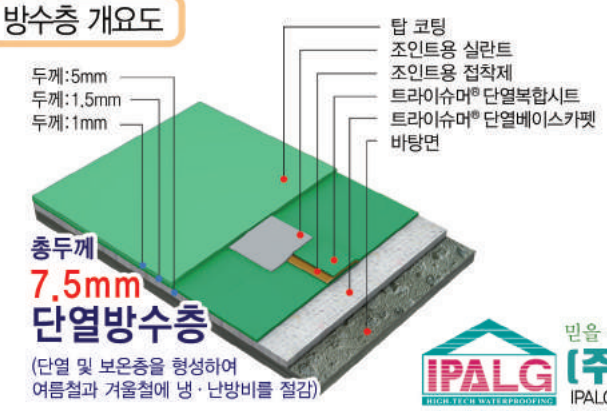
여름철 실내온도 3~5℃ ↓ → 전기료 30~40% ↓ → 냉방비 절감

겨울철 실내온도 3~5℃ ↑ → 난방비 15~20% ↓ → 난방비 절감

내열성능 시험결과

시료명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열에 의해 변형이 된 길이 (200mm 기준)	0.1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5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흘러내림길이(mm))
결과 이미지	변형이 거의 없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시트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파단됩니다.
시험방법	가로와 세로길이가 각각 200mm가 되는 시편을 80도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열변화에 따른 길이변화와 겉모양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시험기준	KS F4917: 2007	
시험기관	한국 건자재시험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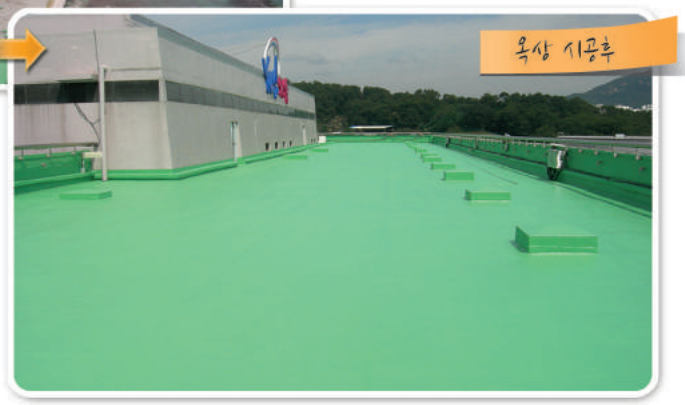
방수층 개요도



총두께 **7.5mm** 단열방수층

(단열 및 보온층을 형성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절감)

시공사례모음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공법 • 신뢰받는 회사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TOTAL & HIGH-TECH WATERPROOFING CO., LTD.

스마트폰으로 QRcode를 스캔해보세요

www.ipalg.co.kr

이파엘지.kr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27번길 52 Tel : 032) 471-6020 FAX : 032) 467-1904

www.sypa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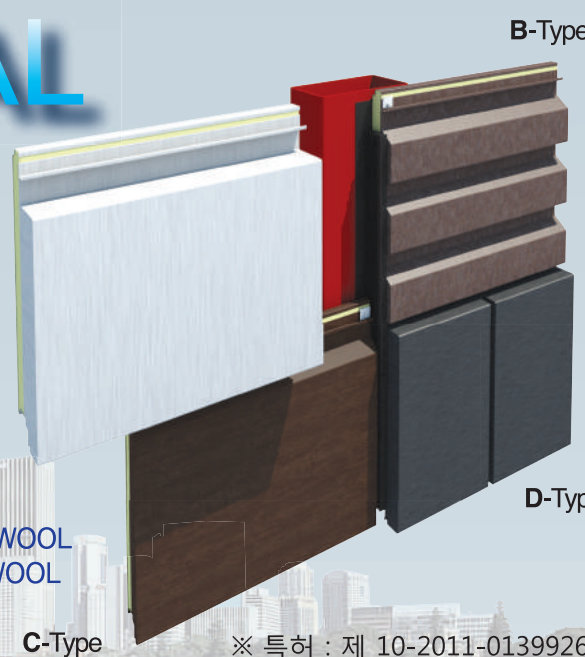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 PIR
- GLASSWOOL
- ROCK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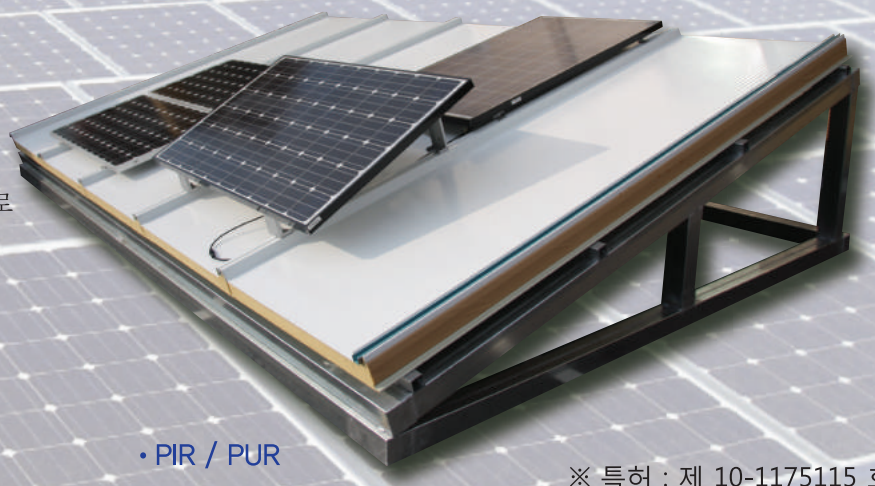
※ 특허 : 제 10-2011-0139926 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 특허 : 제 10-1175115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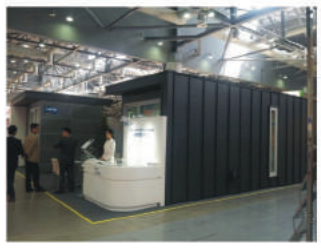
에스와이패널(주)

설계영업부(기술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6-13 효제빌딩 301호
TEL. 02) 501-8480 / FAX. 070-7500-0775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EURO-ZINC PANEL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종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FREE-METAL PANEL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 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문화의 신창조자
서진공영주식회사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03-1번지
공장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32-1번지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KIRA Magazine
2014 March
no.539

Contents

NOTICE 공고

014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안내**

COLUMN 편집인 칼럼

015 **편집인 칼럼** Editor's Column

ESSAY 에세이

016 **공공의 역할, 신뢰받는 건축사의 위상을 기대하며**
Architects carrying out public roles ; expecting a creditable position.
김창길

018 **미국 아동청소년문학에서 바라본 "집" 이라는 의미의 재조명**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a house" from the view point of American Children's Literature.
윤은자

CONGENIAL SPACE 空間共感

020 한정훈

WORKS 회원작품

022 **에프에스원**
F.S.ONE
곽희수_KIRA | ㈜이뎀 건축사사무소

030 **더사랑의교회**
The Sarang Community Church
최동규_KIRA | ㈜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036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사옥**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
함인선_KIRA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042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
Lotte Premium Outlet, Icheon
김명홍_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048 **수평적 열림_낙동강 기념조형관**
Horizontal Void_ Nakdong River Commemorative Design Building
임준빈_KIRA | 건축사사무소 네오스페이스

COMPETITION 설계경기

054 **앙성면사무소**
Angseong-myeon Public Office

056 **구로구 거점형 복합인생이모작지원센터**
Multi_ Complex for the Third Age

WALKING THROUGH THE FOREST OF BOOKS 책 속을 거닐다

065 **'신의'냐 '배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lieve or to betray, that is the question
김형수

READING LOVE LETTER 연애편지를 읽다–아홉번째이야기

066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을 시로 쓴 적이 없다.**
연애시는 다만 연애하고 있을 때에만 썼다.
I've never written a poem with what I don't experience.
Love poetry is made while I am in love.
정이숙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건축과 법률이야기

068 **온타임 옵션제 이행을 위한 설명의무**
Duty of the explanation for pracising on-time option system.
성승환

SERIAL Ⅰ 연재 Ⅰ

070 **호서은행본점의 입지배경과 그 도시적 의미(1/3)**
Background in Situating the Ho-Seo Bank(HQ), and Its Urban Meaning
김영재, 김득수

SERIAL Ⅱ 연재 Ⅱ / 건축과 삶 ③

076 **건축과 정치**
Architecture and Politics
유현준

ARCHITECT'S PLAZA 건축마당

080 **협회소식** Kira News

085 **건축계소식** Archi-Net

086 **타임머신_1972** 되돌아 본 건축士 · 건축史_ 백상월

088 **해외건축동향_** 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090 **통계** Statistics

KOREAN ARCHITECTS

건축사

표지사진 :
2013년 1년 동안 가입한 회원 372명

www.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4년 3월호(통권 539호)

발행인 김영수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수
취재 · 편집 최락청, 손석원, 장영호, 백상월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건축사회관
전화 대표 02-3415-6800
팩시밀리 02-3415-6850
인터넷 www.kira.or.kr
디자인 · 인쇄 화신문화㈜ 02-2277-0624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02-3415-6862~4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Kim, Hyung-soo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Jang, Yeong-ho / Baik, Sang-worl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안내

- 최근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건축공사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우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우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론지 격주간 〈건축문화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 · 상담 및 대정부 건의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 · 도건축사회에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4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에 한함)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 · 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또는 월정회비) : 해당 시 · 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 · 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월정회비 : 6만원(매년)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 건축문화발전 사업자금, 협회 중장기 발전사업자금

– 정회원 및 준회원회비 : 협회조직관리 및 운영자금

■ 본협회 및 시 · 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3415–6855	대 전	042–485–2813	485–2818	전 북	063–251–6040	251–6048
서 울	02–581–5715	523–2284	울 산	052–274–8836	268–8837	전 남	061–285–7563	285–7567
부 산	051–633–6677	634–2966	경 기	031–247–6129	242–7072	경 북	053–744–7800	751–8308
대 구	053–753–8980	756–9049	강 원	033–254–2442	255–2083	경 남	055–246–4530	245–4530
인 천	032–437–3381	437–3385	충 북	043–223–3084	223–3089	제 주	064–752–3248	756–3248
광 주	062–521–0025	528–0026	충 남	042–252–4088	252–518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 · 도건축사회 또는 우리협회 실적관리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꽃소식을 기다리며…

3월입니다.
올해는 2월과 3월의 평균 기온이 높아 진달래도 개나리도 예년보다 일찍 필 것이라고 합니다.
개나리는 다음달 1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서울은 25일, 진달래는 그 보다 하루 뒤에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3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연두색 새순과 노랑, 분홍 꽃잎처럼 싱그러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의 캠퍼스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3월의 새 학기는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긴 겨울을 이기고 막 입학한 대학(부산외대)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청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특히 건축계에 큰 충격과 슬픔을 불러일으킨 소식입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배봉길 경북경찰청 차장)는 2월 28일 중간 수사발표에서 '체육관은 설계와 시공, 감리 상에 문제가 많은 부실공사로 건립됐고 리조트 측이 지붕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잘못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원인이 부실시공에 따른 것인지 폭설이 이유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노력이 우리 업계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월의 표지인물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건축사 총 372분의 얼굴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분들의 어깨에 우리 협회와 건축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들을 큰 박수로 환영하며, 앞으로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우리 협회의 총 회원은 9,023명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건축업계를 이끌며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우리 회원들의 소명이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3월입니다. 모든 회원들의 3월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창길**_ Kim, Chang-gil
·
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공공의 역할, 신뢰받는 건축사의 위상을 기대하며

Architects carrying out public roles ;
expecting a creditable position.

경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창우정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실무를 쌓았다. 주요 작업으로는 번동 글로리타워, 부산 락앤스티치공장, 박순용 정형외과, 춘천감정리주택, 화성 조암리주택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11년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2012년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2년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2012년신진건축사상을 수상하였다.

인천시건축사회가 수년간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50여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해 왔던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다. 권익위는 지난 2월 6일 인천시건축사회가 인천시와 강화군 등 군 · 구(기관)로부터 수탁 받은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2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건축사회는 이와 함께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22만1000원~390만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로부터 받아 총 약 55억원을 추가 징수, 그 부담을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전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관에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 · 도의 설계자나 감리자로부터 징수한 약 12억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우선 반환토록 조치하고 인천시건축사회가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수탁 받은 인천시건축사회가 '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인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도록 '인천시 건축조례'에 명시할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권익위의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해당지역의 건축사회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말로 건축사회를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것인지 오히려 권익위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 얼마나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해야 할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는 지급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관련 비용체계도 없어 전국의 지자체 업무대가 기준이 모두 다르며, 이 또한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각 지자체에서 정당한 업무대가 기준을 만들어서 건축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권익위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지자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건축사회에게 책임을 묻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정부는 건축설계산업을 5년 내에 세계 5위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건축선언을 기반으로 '서울건축선언'을 선포했다. 그 주역은 건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축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축문화가 발전하려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개선해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법규도 소중하게 지키는 실천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당장이라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얼마 전, 전국 지자체의 인허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건축통합기준'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은 행정 편의에 있어서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번 일을 계기로 행정 편의를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해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0㎡미만 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으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건축물의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현장조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용승인과 관련해서는 접수시점도 전국이 다 다르다. 어떤 지자체는 사용승인 전에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 사용승인 접수 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전국의 서로 다른 규정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만 야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국의 지자체가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규정을 통합하여 통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사로서, 신뢰받는 건축사로서, 그동안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건축사가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건축문화 발전을 만들어가는 작은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에…

글. **윤은자**_ Yun, Eun-ja
육군3사관학교 미주지역연구학과 교수

미국 아동 청소년문학에서 바라본 "집" 이라는 의미의 재조명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a house' from the view point of American Children's Literature.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영어교육 석사와 박사학위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 미주지역연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 아동청소년 문학 협회(Int'l Research Society for Children's Literature) 일원으로서 다수의 해외 논문발표와 함께, 현재 한국과 영어권국가의 전래동화와 아동문학 비교연구,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영어교육 등에 힘쓴고 있다.

바쁜 서울 지하철에서 문득 마주친 시, 퇴계 이황 선생의 "가을날에 생각하다"였다. 마침 얼마 전 제출한 연구제안서가 채택되지 않아 기분이 울적하였는데, 이 시가 눈에 번쩍 들어왔다. 공들여 쓴 제안서였기에 그 의미를 몰라주는 심사자들이 야속하던 차였다. 냉큼 사진으로 캡쳐했다.

秋懷 가을날에 생각하다

퇴계 이황
(1501~1570)

庭前兩株梅	뜰 앞에 서 있는 두 그루 매화나무	衆植增所恣	잡목들만 제멋대로 뻗는구나
秋葉多先悴	가을 들자 무성한 잎 먼저 지네	風霜一搖落	바람서리 불어와 낙엽 질 때면
谷中皎春蔚	골짜기에 우거진 저 수목들과	貞脆疑無異	다 같은 나무인줄 알겠지만
亂雜如爭地	어지러이 섞여 다투는 듯하여	芬芳自有時	꽃향기 절로 날 때 있거니
孤標未易保	고고한 모습은 지키기 어렵고	豈必人知貴	남들이 알아줄 필요 있으랴

이황체 율집

이 시를 읽고는 '그렇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을 때까지 난 고고히 연구자의 길을 가면 되지' 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기억이 난다. 물론 나를 저 매화와 퇴계 이황 선생과 같은 반열로 끌어올려 한껏 기분이 고양되기도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핸드폰 속 사진 정리를 하다 다시 이 시를 읽게 되었다. 이때 든 생각은 참으로 동양적인 사회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수록 세상 밖으로 나가 그 벽에 도전하고 자신을 홍보하라"가 아마 작금에 맞는 대응책일 것이다.

금세기 창의성과 도전을 대표하는 회사로 페이스북을 들 수 있겠다. 그 본사에 가면 "실행해 보는 것이 완벽함보다 낫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는 사훈이 벽에 걸려 있다고 한다. 둘 다 꾸준한 도전을 부추기는 말이다. 한마디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퇴계 이황 선생의 같은 시를 읽는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그라면 매화나무이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민들레 포자가 되어 여기저기 날아가 스스로를 알리고 어딘가에 심기길 바라지 않았을까. 이러한 떠남과 도전의 정신은 미국아동청소년문학에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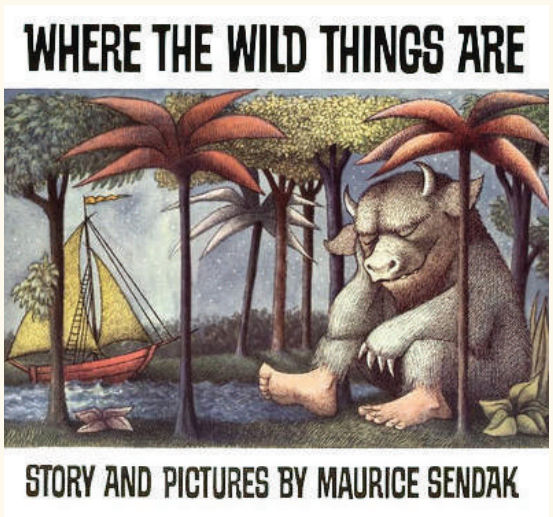
미국 아동청소년문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는 바로 Home-Away-Home 패턴이다. 즉 이야기의 시작이 집에서 시작해서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순환구조다. 최근 작고한 미국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그림동화작가 모리스 센닥(Maurice Sen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Where the Wild Things Are)〉는 이러한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주인공 맥스는 장난이 지나쳐 저녁도 굶은 채 자기 방으로 보내진다. 맥스의 방은 나무가 우거진 세상으로 변하고 그는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다 항해 끝에 괴물나라에 도달하게 된

다. 그 곳에서 그는 덩치큰 괴물들의 왕이 되어 흐드러지게 소동을 벌인다. 그러다 문득 멀리서 맛있는 냄새를 맡고 집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고는 말리는 괴물들을 뒤로 하고 아직 저녁밥이 식지 않은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방에서 혼자 벌을 받고 있던 맥스의 상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명확한 것은 집과 모험, 괴물들, 그리도 다시 집이라는 패턴이다.

우리에게 집이란 항상 돌아와 쉴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아마 인류 최초의 건축은 그러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안전가옥(shelter)'이 아니었을까. 유명한 철학자이며 동시에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은 자신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자신이 먹고자 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다.
일상의 상식으로는 집에 대한 그의 정의가 생소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Home–Away–Home이라는 아동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 라이프니츠의 집이란 더이상 'shelter'의 의미가 아니라 도전과 변화를 거친 미래를 위한 곳이 아니었을까. Home–Away–Home의 패턴에서 첫 번째 Home과 Away를 경험한 두 번째 Home은 공간적으로는 같은 장소일 수 있으나, 시간과 실존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같은 Home이 아니다. 그래서 맥스가 상상의 여행을 떠나기 전 그의 집과, 괴물이 사는 모험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집은 맥스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안도감일 수도 있고, 모험을 통한 성장일 수도 있다.

우리는 매일 집을 나선다. 일터가 있는 사람은 일터로, 가정주부와 아이들은 장을 보러가거나 학교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때, 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과 다른 "내"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 변화를 의식하기도 하고 때론 일상의 쳇바퀴를 돌고 왔다는 허무감을 안고 돌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집을 나서기 전과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나는 분명 다른 나이다. 매일 매일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고 돌아온 나인 것이다. 그 경험이 동료와의 말다툼일 수도, 새로운 직장의 인터뷰일 수도 있고, 한 달동안의 세계여행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집을 나서지 않을 때이다.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나를 가두어두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박차고 떠날 집이 있다는 건, 크든 작든 새로운 도전을 위한 'Away'를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Away는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드는 과정이다.



Where the Wild Things Are by Maurice Sendak(1963)

아동청소년문학과 우리가 거주할 곳을 마련하는 건축은 이런 면에서 맞닿아 있다. 성장을 위한 모험과 떠남을 가능하게 하는 집이 있다는 것은 건축이 미래를 위해 있다는 말과 상통하기에. 우리는 하얀 눈 속에 핀 고고한 매화나무이길 원할 수도,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릴지도 모르는채 바람따라 떠도는 민들레 포자이길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눈덮인 땅 속의 매화이게 두지 않는 것 같다. 그리하여 "집을 떠나라"는 메시지가 가득찬 서구의 아동문학이 우리나라 출판시장에 넘쳐남은 이런 연고가 아닐까싶다.

空間共感.

개심사(開心寺)

길쭉청년 **한정훈** | 2000family@naver.com
•
Design Hunters 대표
AM Group 대표이사

"마음을 열어주세요."

사계절이 아름다운 개심사에 다녀왔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생김새를 간직한 건축재료가
인위적이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이
더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22 *WORKS*

회원작품.

에프에스원

F.S.ONE

설계자 | 곽희수_KIRA | ㈜이뎀 건축사사무소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2003년부터 이뎀도시건축(IDEMM Architects)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끊임없이 발생되는 도시현상에 주목하고, 해독이 필요한 문제를 발췌하여 새로운 형식의 건축, 전시, 만평, 기고 등을 통해 발표해오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42nd Route House, Tethys, 한강가디언스, 모켄펜션, 게스트하우스 리븐델 등이 있다.

- 설계팀 : 홍창일, 김민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에스디엠 파트너스
  - 기계설비분야 : ㈜우림설비기술사사무소
  - 전기분야 : ㈜두원설계사무소

건축주 | 노왕우, 홍재경

감리자 | ㈜이뎀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삼협종합건설

대지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459번지

주요용도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735.30㎡

건축면적(Building Area) | 512.70㎡

연면적(Gross Floor Area) | 961.3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68.39%

용적률(Floor Area Ratio) |128.49%

규모(Building Scope) | 지상5층

구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Yoon, Joon-hwan)

Client | No, Wang-woo / Hong, Jae-kyung

Architect | Kwak, Hee-soo

Project team | Hong, Chang-il, Kim, Min-a

General Contractor | Samhyub Construction

Location | 459, Seonghwa-dong,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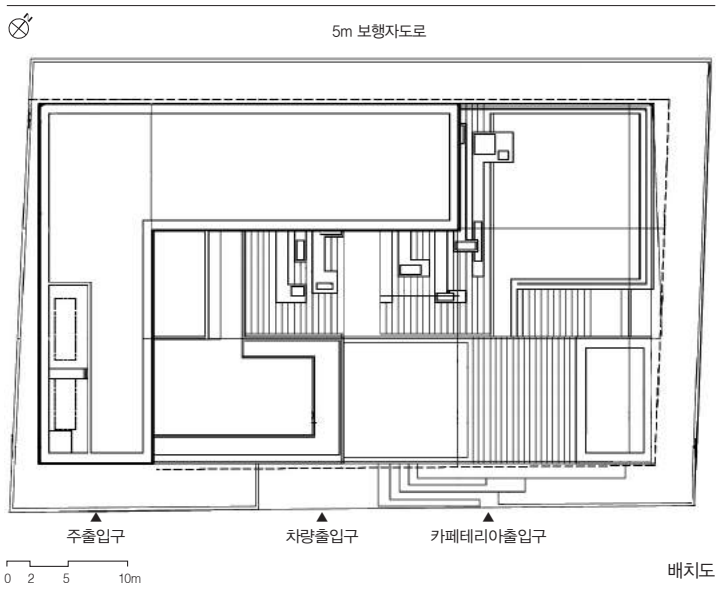
Structure | S.R.C

Structure Engineer | S.D.M PARTNERS

HVAC & Eletrical Engineer | Woolim Engineering & Technology

Electrical Engineer | Dowon Corp.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배치도

전경

F.S.ONE의 프로그램은 노천호텔이다. 그리고 그 매개인 계단은 플로어이고, 오름이며, 놀이터이고, 광장이다. 과거 지구라트(ziggurat)나 세베루스의 계단이 누려왔던 초월적 지위가 여기에서는 없다. 방문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계단의 기억으로 계단을 지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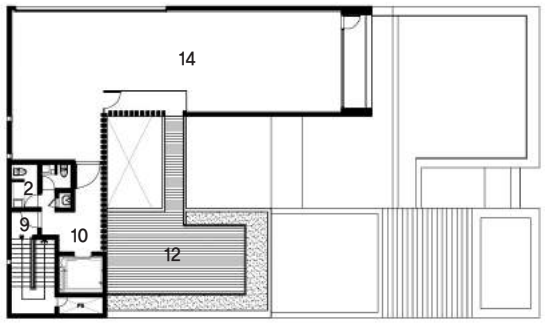
F.S.ONE의 계단은 거대한 카메라처럼, 높은 기단에 앉아 도시 풍경을 마음에 담고, 스스로 만들어낸 다양한 경관을 구축할 뿐이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높이의 기단(podium)이 있다. 대부분의 포디움에는 앉을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3층과 4층의 중간 높이의 기단부는 단지 오르기만을 위해 설치되었다.
하늘과 맞닿는 공간 그리고 계단, 아마도 초월적 존재를 염모했던 바벨론의 그들도 오름을 통해 삶의 고통을 치유 받았을 것이다.

필로티 하부의 포디움은 다랭이 논의 농부처럼 가파른 계단을 바라보며 도시 풍경을 수확한다. 계단의 좌석은 침식된 바위의 표면처럼 불규칙하게 솟아오르고 방문자를 거칠게 반긴다. 최상층은 건물의 주인을 위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계단들과 기단부로부터 박리되어 있다. 필로티로 들어 올려진 이 덩어리는 마치 마을의 정자목처럼 비탈진 계단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눈과 비를 막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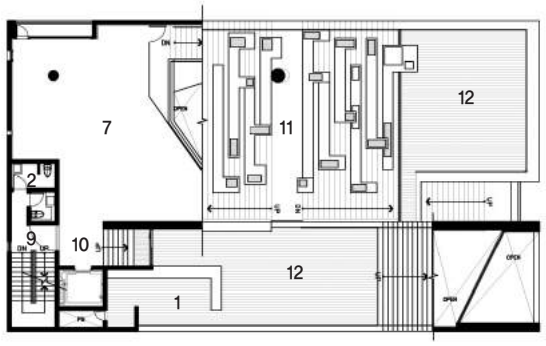
공공성과 프로그램의 자유를 추구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그래서 호텔의 프로그램, 계단의 제의성, 공공성 등을 접합시키면서 과거 자본의 룰에 움츠렸던 근린생활시설에 물꼬를 트고자 하였다.

진입로에서 바라본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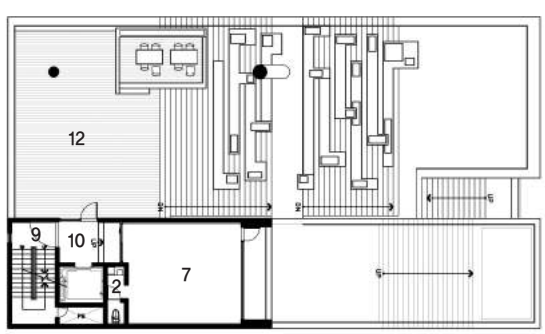
1. 카페테리아 2. 화장실 3. 경비실 4. 창고 5. 로비
6. 주차장 7. 레스토랑 8. 부엌 9. 계단실 10. 엘리베이터 홀
11. 스탠드 12. 데스크 13. 방 14.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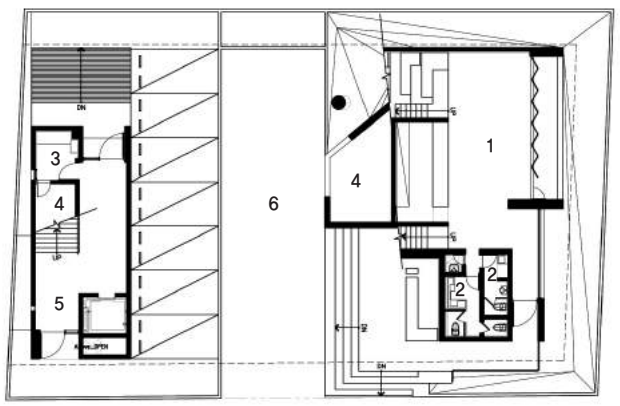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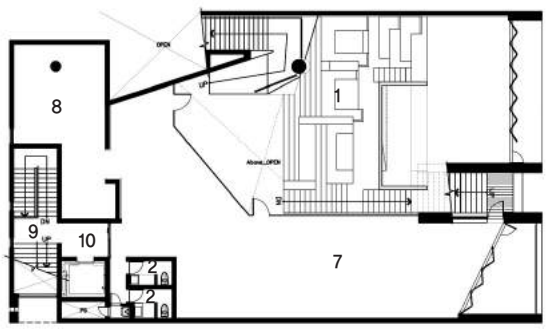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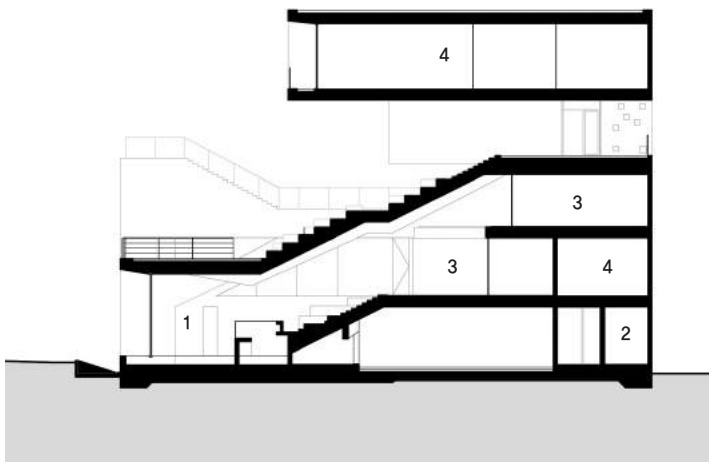
0 2 5 10m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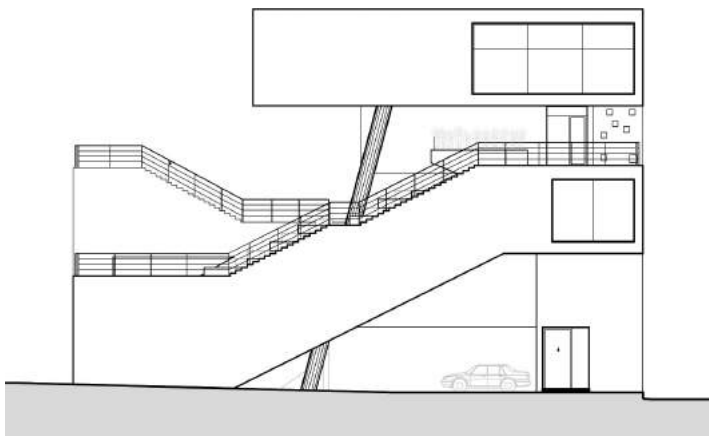
1. 카페테리아
2. 경비실
3. 레스토랑
4. 부엌
5. 화장실



0 2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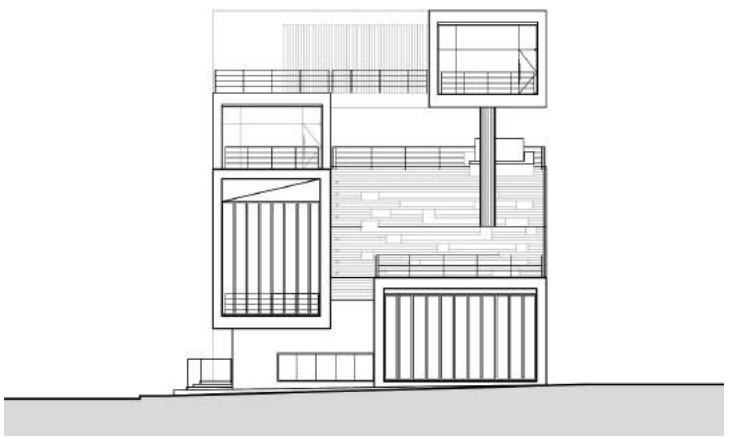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0 2 5 10m

입면도



배면도

30 WORKS

회원작품.

더사랑의교회

The Sarang Community Church

설계자 | 최동규_KIRA | ㈜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과를 졸업(오디토리움 잔향시간 예측방법에 관한 연구)했다. 진아건축연구소, 공간연구소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의 대표다.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대한 건축사협회 정회원,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준공건축물부분), 대한건축사협회 편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건축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

- 설계팀 : 최유철, 정동조, 이은경, 임동원, 김민경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환구조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분야 : ㈜보우기술공사
  - 전기분야 : ㈜대경전기설계사무소
  - 토목분야 : ㈜바이텍코리아

건축주 | 더사랑의교회

감리자 | ㈜다솔CM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청오건설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앙로 260번지

주요용도 | 종교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372㎡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85.66㎡

연면적(Gross Floor Area) | 12,202.4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98%

용적률(Floor Area Ratio) | 199.98%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4층 ~ 지상 8층

구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THK24 복층유리 , VM ZINC, 고흥석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9 ~ 2011.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5 ~ 2013. 01

사진(Photographer) | 채수억(Chae, Soo-uk)

Client | The Sarang Church

Architect | Choi, Dong-gyu

Project team | Choi, Yoo-cheol / Jung, Dong-jo / Lee, Eun-kyung / Lim, Dong-won Kim, Min-kyung

General Contractor | Chungoh Construction Co.

Location | 260, Gwanggyojungang-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S.R.C.

Structure Engineer | Hwan Structural Engineering

HVAC Engineer | Bow Technology Corporation

Electrical Engineer | Daegyung Electrical Design Fi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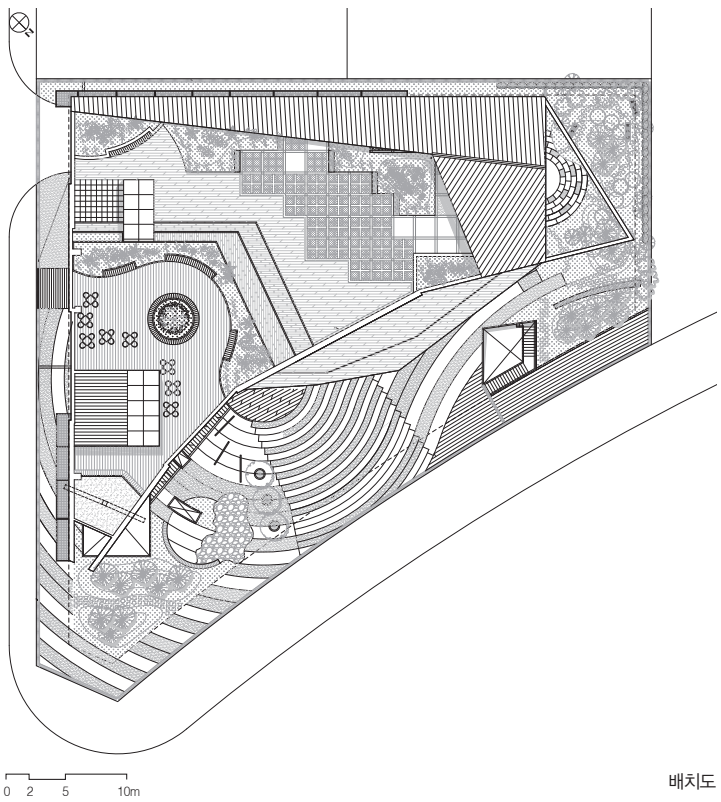
Civil Engineer | Baytech Korea

Finishing Materials | THK24 Glass, VM ZINC, Goheung Stone

'더사랑의교회' 대지는 40m 도로 전방에 있어서 운전자가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외부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대지다. 게다가 대지도 삼각형의 비정형이라 효율적인 사각형의 평면보다는 대지형상에 순응하여 비정형의 이미지를 먼저 구축하고, 그 매스에 효율적인 교회기능을 수용하는 것이 디자인의 출발이라 파악하였다.

우리가 구축한 첫 번째 이미지는, 성(성, 내주는 강한 성이요)
두 번째 이미지는 방주(방주, 세상의 구원선)
세 번째 이미지는 새(새, 성령의 임재함을 상징한 비둘기)로 이것들의 복합적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교회의 기능 중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공간이 '대예배실'이다. 우리는 방사형으로 된 2,000석의 대예배당을 삼각형 모양의 대지형상을 따라서 만든 매스형상에 중첩했고, 이 대예배당실은 전체 매스의 중앙으로부터 외부로 돌출되어 디자인이 완성된다.
대예배당 매스는 Zinc, 전체 매스는 석재마감으로 하여 차별화를 두었다. 또한 외부의 주계단을 통해, 외부광장으로부터 대예배당 매스까지의 직접통로가 되도록 하였다.
대예배당의 상부인 6층에는 식당과 옥상정원을, 7층과 8층은 각각의 데크와 별도의 계단실을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고층빌딩임에도 불구하고 3층의 저층건물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다시 건물이 시작되는 것 같은 효과를 주었다.
상부 3층의 외장은 목재로 마감하여, 옥상정원의 녹지와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계획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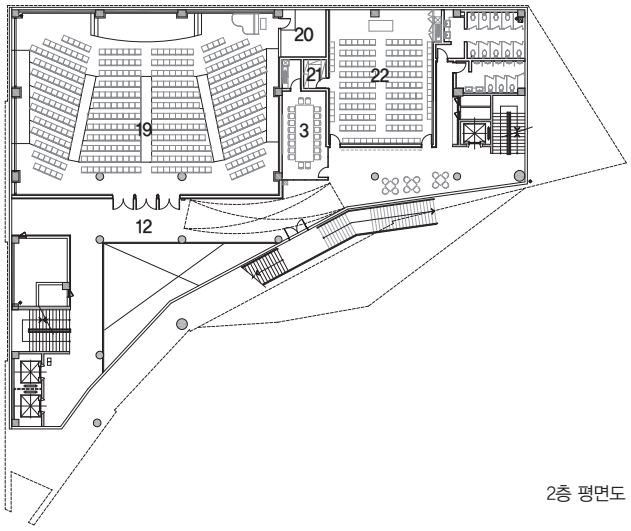
전경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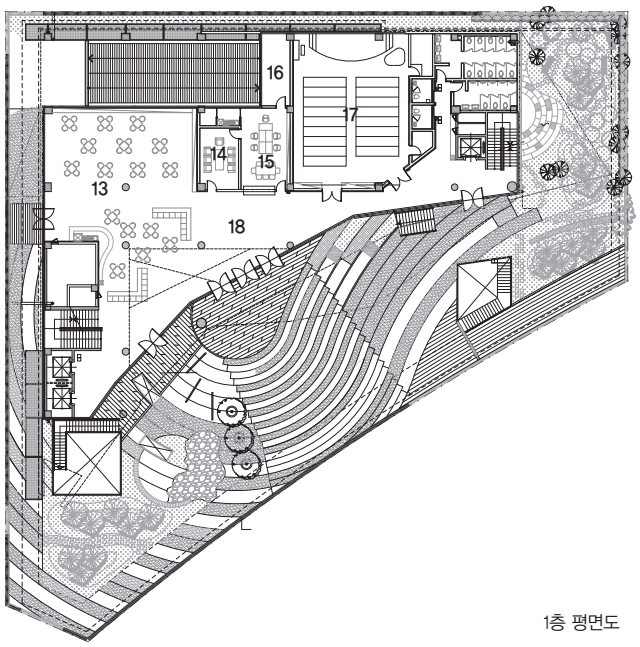
오픈스페이스

외부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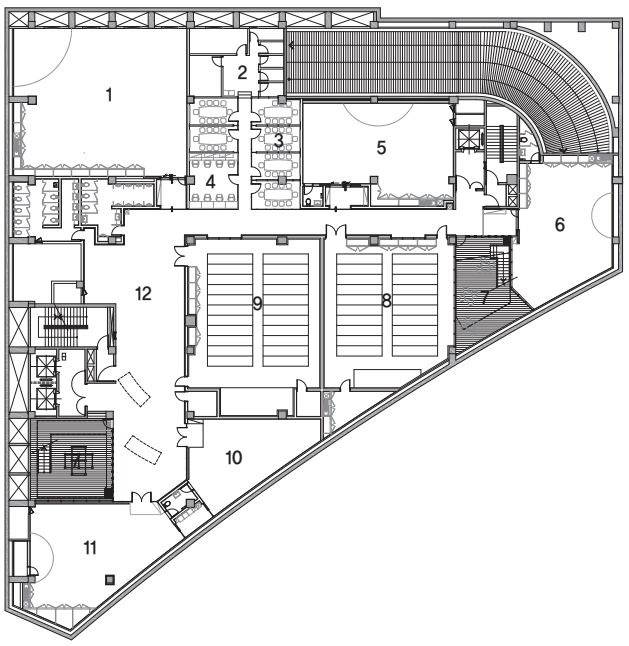
지하 1층 남측 선큰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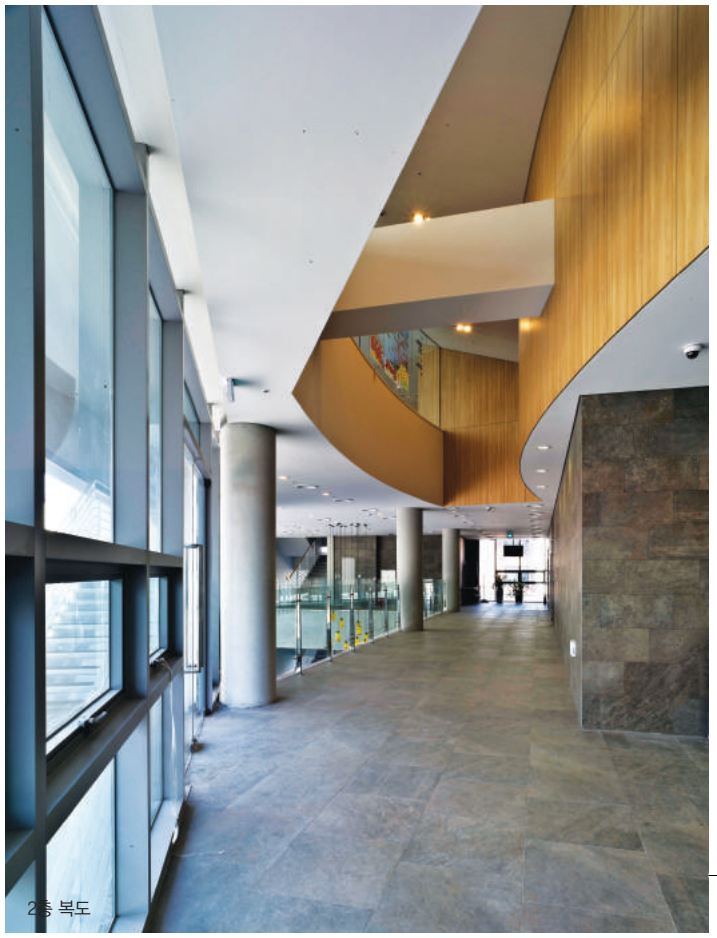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 2 5 10m

지하 1층 평면도

1. 유년부실
2. 개인기도실
3. 소그룹실
4. 교육전도사실
5. 유치부실
6. 유아부실
7. 선큰
8. 중등부실
9. 초등부실
10. 자모실
11. 영아부실
12. 홀
13. 북카페
14. 다목적실
15. 사무실
16. 통신실
17. 세미나실
18. 로비
19. 중예배실
20. 방송실
21. 보관실
22. 성가연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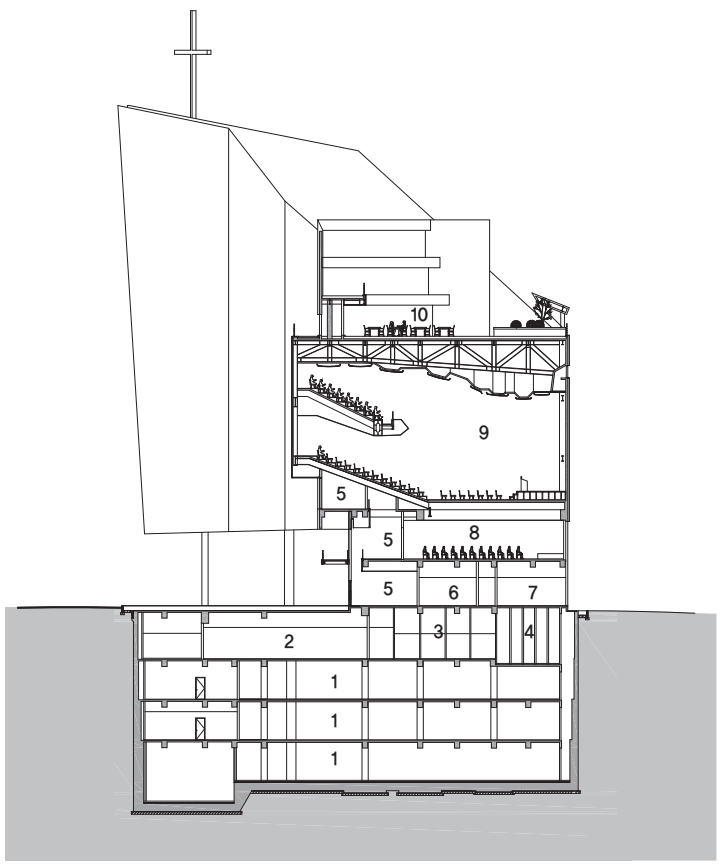


2층 복도

7층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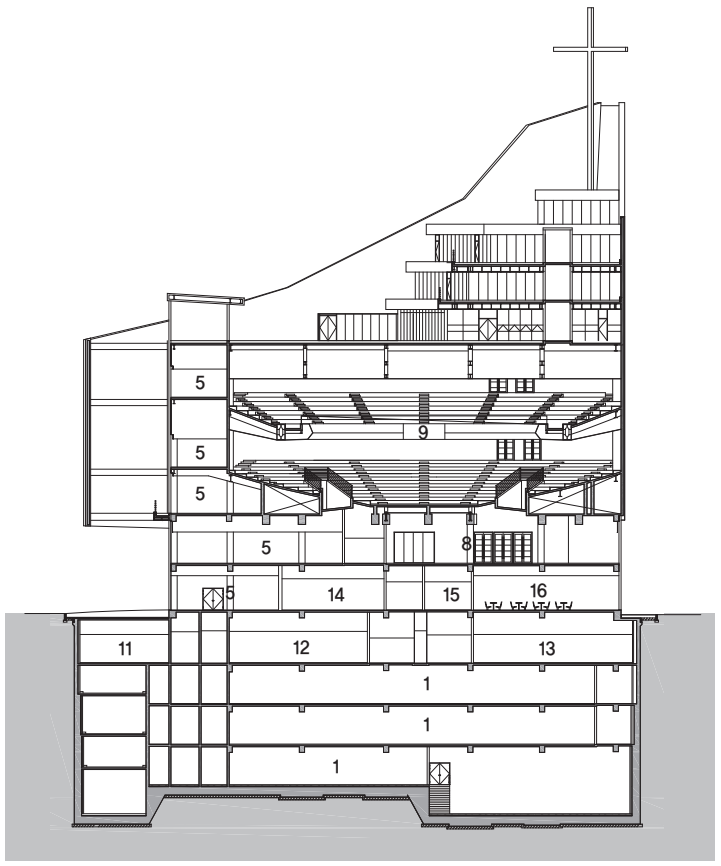
대예배실 전경

1. 주차장
2. 초등부실
3. 소그룹실
4. 개인기도실
5. 홀
6. 접견실
7. 통신실
8. 중예배실
9. 대예배실
10. 옥상정원
11. 유아부실
12. 유치부실
13. 유년부실
14. 세미나실
15. 사무실
16. 북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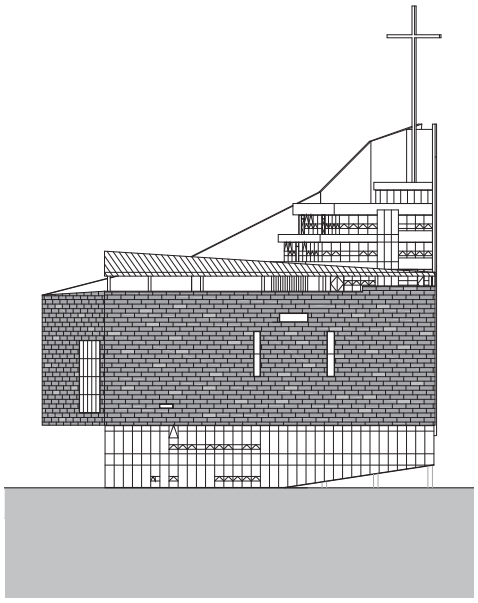


0 2 5 10m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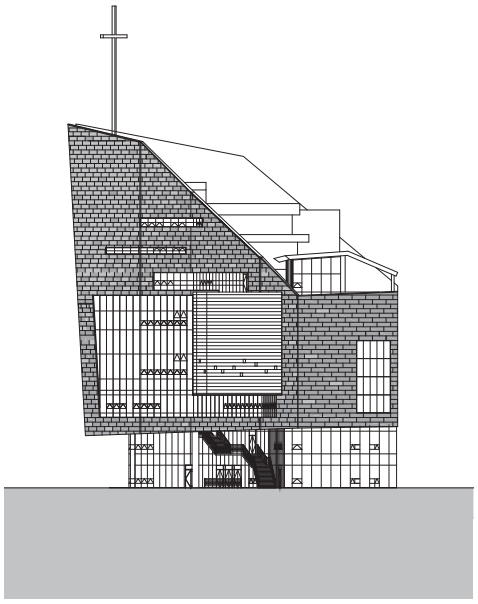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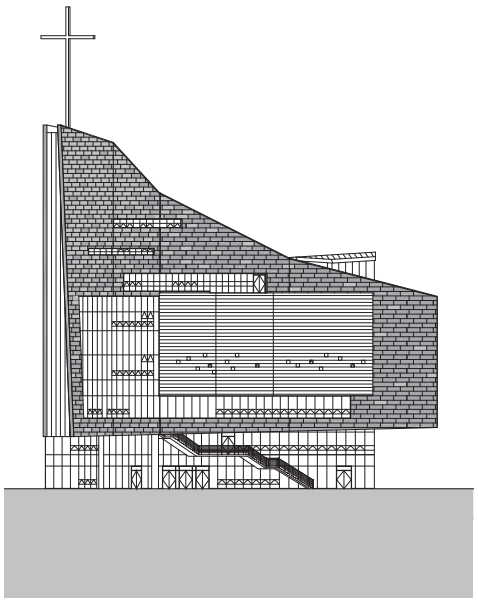


0 2 5 10m

남측면도



서측면도



북측면도

1층 로비

지하 1층 북측 선큰

지하 1층 소그룹실

6층 옥상정원

회원작품.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사옥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

설계자 | 함인선_KIRA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대를 졸업하고 인우건축과 건원건축의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부문 대표를 맡고 있다. 새건축사협의회 회장과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 건축상과 한국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서울강남지구 디자인명품 주거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전남대학교 생명과학융합센터, 두바이 자다프주상복합,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등이 있다.

- 설계팀 : 전영성, 곽동진, 배형식, 최용남, 김순수, 명일, 전영재, 정영은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선진엔지니어링
  - 전기통신설비분야 : 선진엔지니어링
  - 기계소방설비분야 : 선진ENC, 한석소방

건축주 | 한국산업단지공단

감리자 | 한미글로벌

시공사 | GS건설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916-1

주요용도 | 일반업무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6,50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5,332.79㎡

연면적(Gross Floor Area) | 22,778.4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2.32%

용적률(Floor Area Ratio) | 98.94%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10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 : THK30 화강석, 알루미늄복합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내부마감 : THK7,9 도기질타일, 친환경수성페인트

설계기간 | 2010. 11. 05 ~ 2011. 08. 04

공사기간 | 2011. 12. 15 ~ 2013. 11. 15

Client |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

Architect | Hahm, In-Sun

Project team | Jeon, Yeong-seong / Kwak, Dong-jin / Bae, Hyeong-sik / Choi, Yong-nam
Kim, Soon-su / Myeong, Il / Jeon, Young-jae / Jeong, Yeong-eun

General Contractor |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

Location | 916-1, Sinseo-dong, Dong-gu, Daegu,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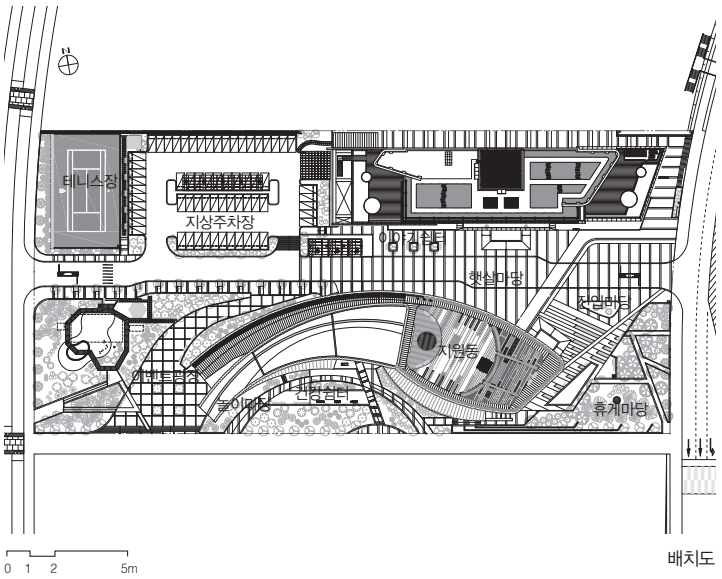
Structure |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Steel Frame Construction

Structure Engineer | SUNJIN Engineering & ARCHITECTURE

HVAC & Eletrical Engineer | SUNJIN ENC, HANSEOK FIRE PROTECTION

Electrical Engineer | SUNJIN Engineering & ARCHITECTURE

Finishing Materials | THK30 Granite, Aluminium C. Panel, THK24 Low-E Glass
THK7,9 Earthenware Tile, Water Paint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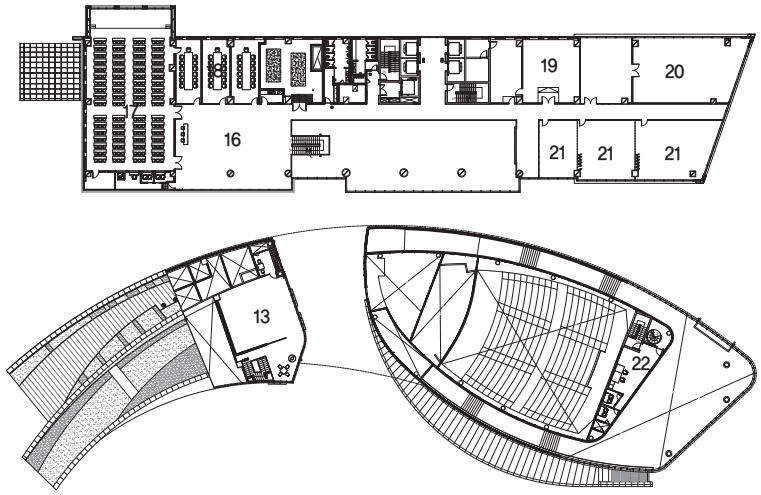
전경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및 수도권 질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다. 대구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신사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산업단지 통합서비스의 Global Standard 실현에 적합하며 신 · 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건축물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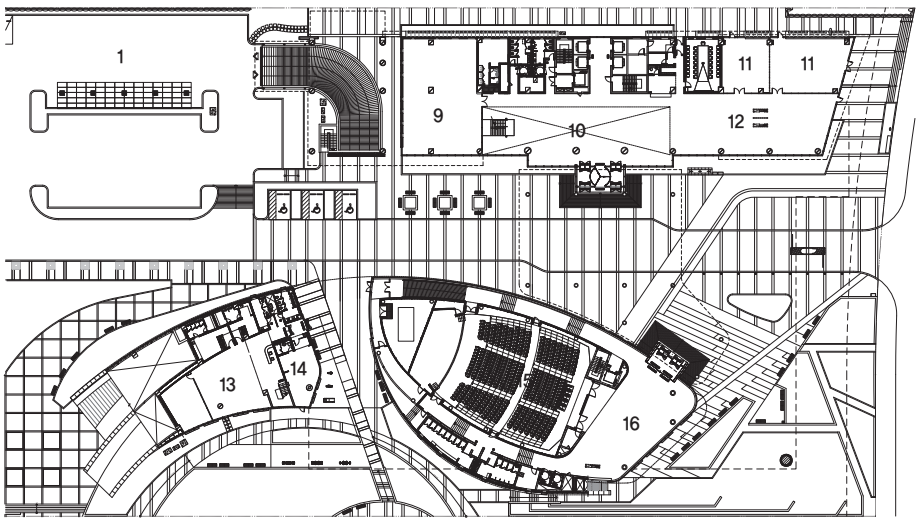
계획의 주안점으로는 첫째, 배치계획에서 주변 자연환경과 커뮤니티를 연계하고, 청사 기능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조닝을 하였다. 북측의 Functional zone과 남측의 Service zone으로 구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고, 자연의 흐름과 녹지의 확장 및 수공간 조성으로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꾀하였다. 둘째, 평면계획에서 코어를 중심으로 수직 · 수평의 유기적인 동선을 구성하고 각 시설군 내외부에 Open Space를 계획하여 사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지원동상부의 보행데크 계획으로 옥상층의 자연스러운 유입과 활용을 유도하고, 휴게데크를 통하여 신서지를 조망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무실의 남향배치, 집중형 코어계획으로 업무공간의 유효면적이 증대되도록 하였다. 셋째, 입면계획에서 자연과 도시의 공존을 형상화한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친환경 미래형 청사의 계획을 목표로 Green Carpet & Urban Carpet이라는 컨셉을 옥상정원, 휴게데크, 수평루버, 커튼월, 진입마당 등에 적용시켜, 친환경적이고 도시적인 Carpet이 각 요소별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넷째, 단면계획에서 공간의 특성에 맞게 기능별, 관련시설별, 이동 및 관리 등으로 합리적인 조닝계획을 하였다. 3개 층이 오픈된 로비/ 2개 층이 오픈된 ECO BOX 및 구조, 환기,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지하주차장 층고계획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사옥은 대구신서혁신도시의 상징적 랜드마크로서 KICOX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업무 네트워크 강화하고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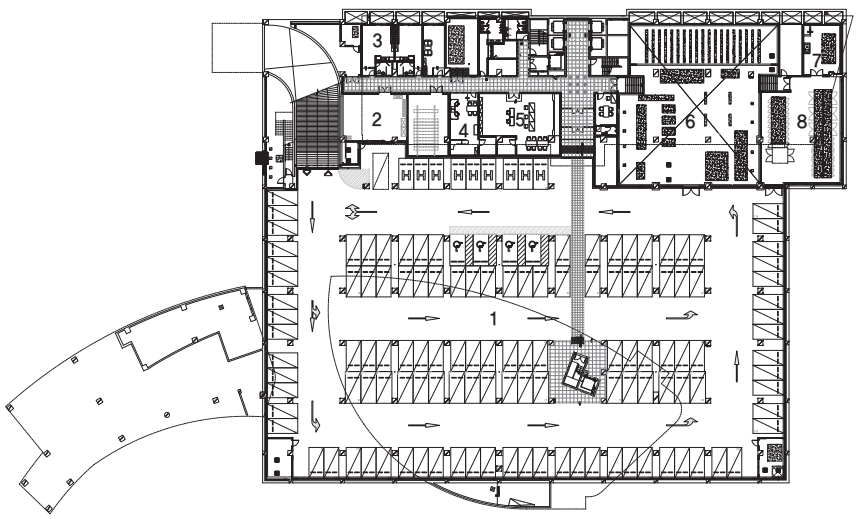
1. 주차장
2. 재활용 보관실
3. 용역원실
4. 관리사무실
5. 방재센터
6. 기계실
7. 발전기실
8. 전기실
9. 홍보전시관
10. 로비
11. 근린생활시설
12. 비지니스센터
13. 체력단련실
14. 다목적실
15. 대강당
16. 홀
17. 대회의실
18. 소회의실
19. 전산실
20. 공공기록관
21. 사무실
22. 조정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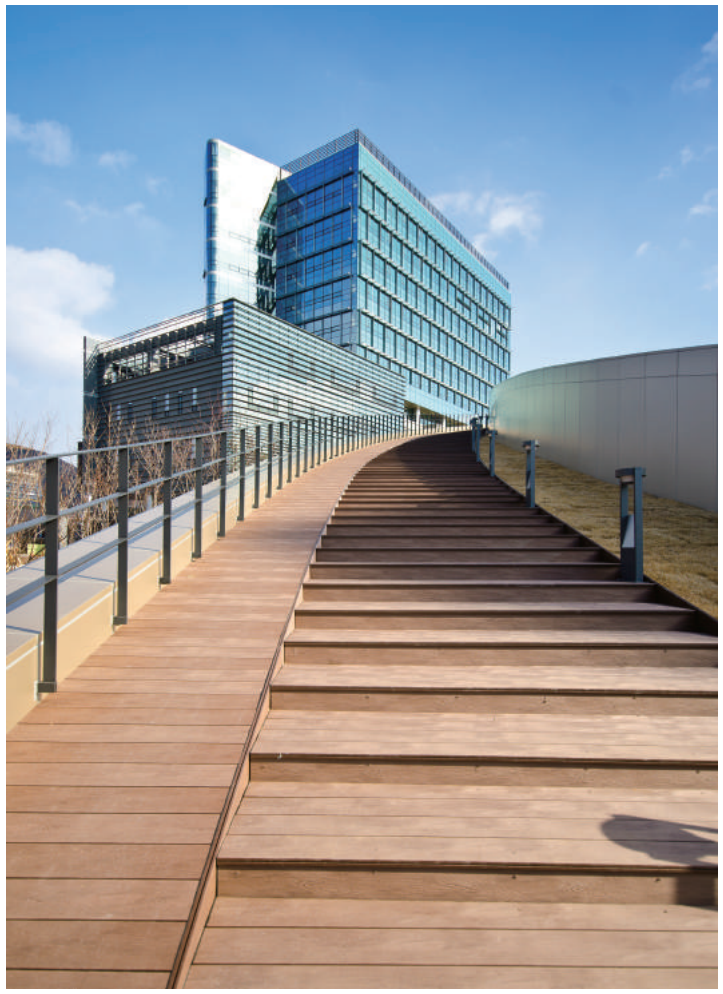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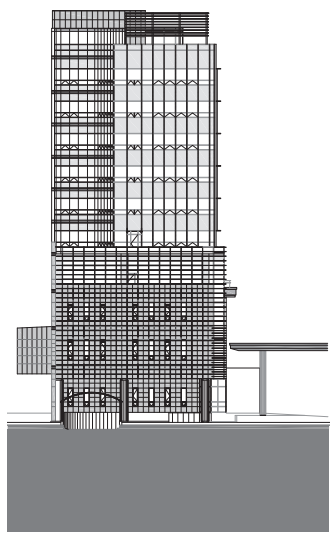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0 1 2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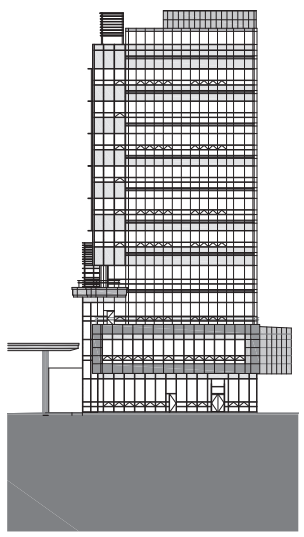


0 1 2 5m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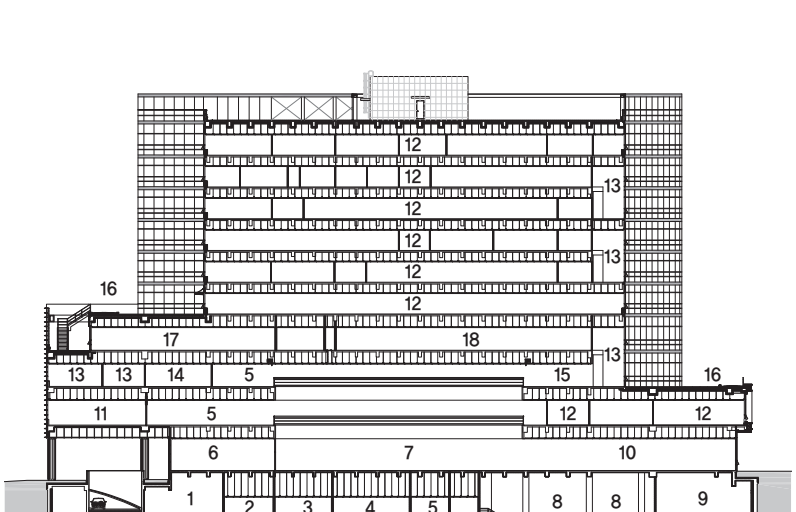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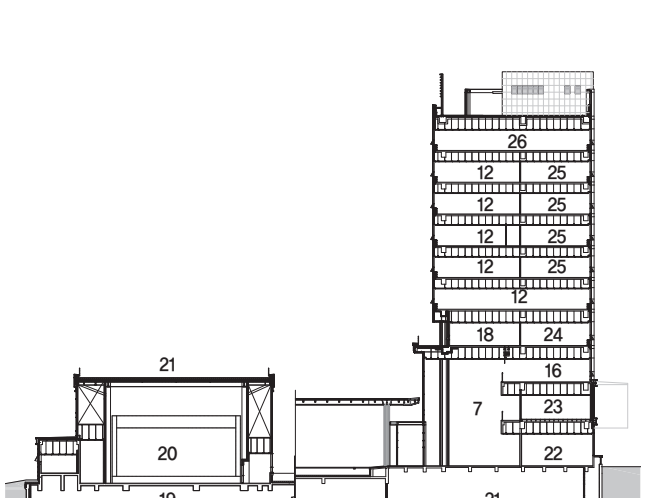


우측면도

1. 재활용 보관실 2. 창고 3. 관리사무실 4. 방재센터 5. 홀 6. 홍보전시관 7. 로비 8. 기계실 9. 전기실
10. 비지니스센터 11. 대회의실 12. 사무실 13. 휴게실 14. 중회의실 15. 도서관 16. 휴게데크 17. 구내식당 18. 임원회의실
19. 주차장 20. 대강당 21. 옥상정원 22. 재난상황실 23. 전산실 24. 다목적실 25. 회의실 26. 임원회의실



횡단면도



종단면도

0 1 2 5m

42 WORKS

회원작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

Lotte Premium Outlets, Icheon

설계자 | 김명홍_KIRA |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으며,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있다. 주요작품으로는 성남세무서, 웅상문화체육센터,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등이 있다.

- 설계팀 : 박소형, 윤영로, 김덕현, 이흥선, 노현용, 김정은, 정판기, 신봉기, 강형주, 조진우, 박지영, 김혜란, 임연수, 최재혁, 정은석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티섹
  - 기계/전기/통신분야 : ㈜한일엠이씨
  - 소방분야 : ㈜한백에프앤씨
  - 토목분야 : ㈜청아엔지니어링
  - 조경분야 : ㈜동심원 조경기술사 사무소

건축주 | 롯데쇼핑㈜

감리자 | ㈜예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롯데건설주식회사

대지위치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산46-1 일원, 이천패션물류단지 C2블럭(본관), C1-3블럭(별관), P3블럭(주차장)

주요용도 | 판매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59,940.0㎡(본관), 26,670.0㎡(별관), 15,877.0㎡(주차장)

건축면적(Building Area) | 32,153.69㎡(본관), 12,713.32㎡(별관), 10,687.40㎡(주차장)

연면적(Gross Floor Area) | 99,389.11㎡(본관), 62,925.18㎡(별관), 21,464.68㎡(주차장)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3.64%(본관), 47.67%(별관)

용적률(Floor Area Ratio) | 74.07%(본관), 79.13%(별관)

규모(Building Scope) | 지하3층 ~ 지상2층(본관), 지하2층 ~ 지상2층(별관)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 : 메탈패널, CRC보드/페인트, THK24 로이복층투명유리
내부마감 : 자기질타일, 드라이비트, 친환경 페인트

설계기간 | 2011. 06. 01 ~ 2013. 07. 26

공사기간 | 2012. 09. 05 ~ 2013. 12. 11

사진(Photographer) | 김원양(Kim, Won-yang)

Client | LOTTE SHOPPING Co., Ltd.

Architect | Myung Hong Kim/ BAUM Architects, Inc.

Project team | Park, Sophia / Yoon,Young-ro / kim, Dock-hyun / Lee, Houng-seon Roh, Hyun-yong / Kim, Jeong-eun / Jung, Pan-gi / Shin, Bong-kee Kang, Hyung-joo / Cho, Jin-woo / Park, Ji-young / Kim, Hye-ran / Lim, Yeon-soo / Choi, Jae-hyuck / Jeong, Eun-seok

General Contractor | LOTTE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Location | san 46-1, Dancheon-ri, Hobeop-myeon, Icheon-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S.C, R.C

Structure Engineer | TSEC GROUP TOTAL STRUCTURAL ENG. & CON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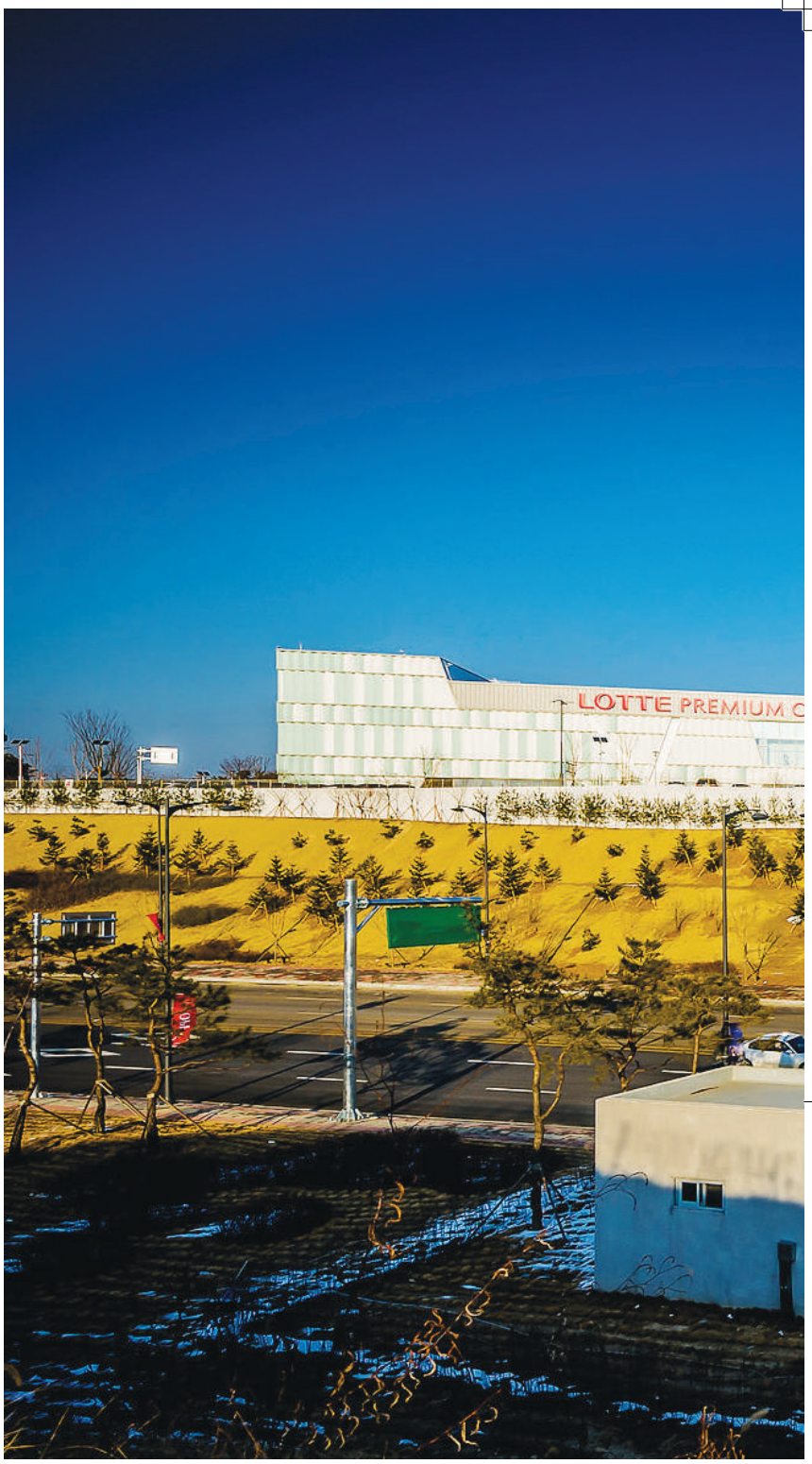
HVAC & Eletrical Engineer | HAN-IL MECHANICAL & ELECTRICAL CONSULT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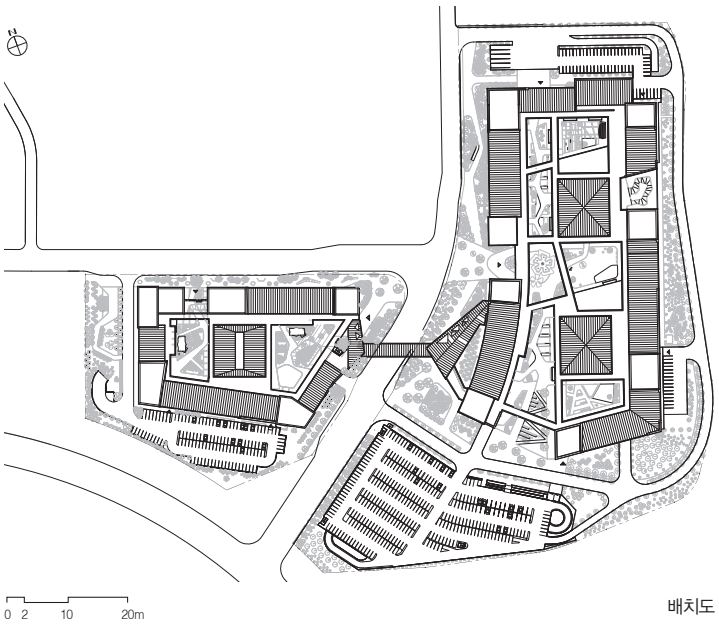
Plumbing | HANBEAK F&C Co., Ltd.

Civic engineer | CHUNG AH ENGINEERING Co., Ltd.

Landscape engineer | Dongsimwon Landscape Design Co., Ltd.

Finishing materials | Metal Panel, CRC Board/Paint, THK24 Low-E Pair Glass Polished Tile, Dry-vit





배치도

단지 전경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은 이천시의 패션물류단지 내 3개의 블록(C2, P3, C1–3)에 아울렛(백자동, 청자동) 2개 동과 주차장(공작물주차장) 1개 동으로 구성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건축주의 주요 요구사항은 편리한 동선, 쾌적한 쇼핑환경,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에서의 인지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남측 주차장을 기준하여 매장으로 연결되는 남, 북 방향의 아케이드를 따라 주동선을 만들고, 각각의 중정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동선을 추가하여 다양한 쇼핑공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은 4m 이상의 폭으로 계획하여 가족단위의 고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외관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천의 상징인 도자기를 소재로 색채와 상징타워를 계획하였다. 주요 외장재로 삼각형의 금속패널을 이용하여 고객이 서있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보행자를 배려한 아기자기한 외관과 쾌적한 쇼핑환경으로 기존 아울렛과는 다른 고품격 아울렛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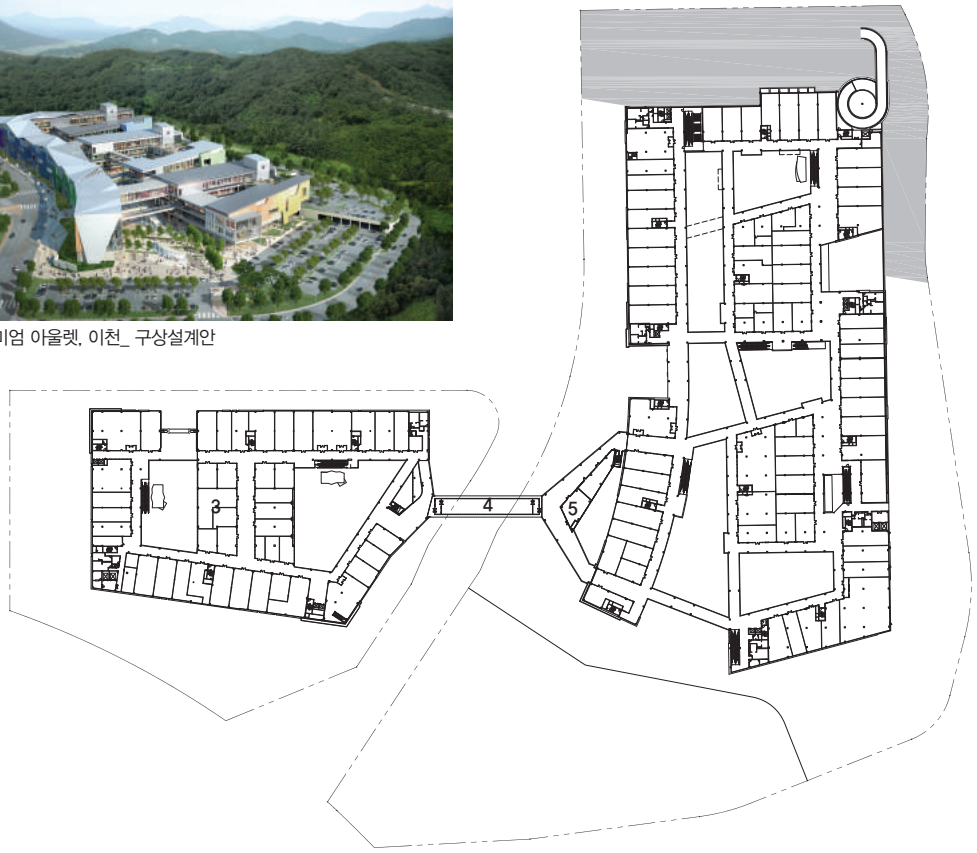
본관 내부광장 야경

본관 야경

본관 남측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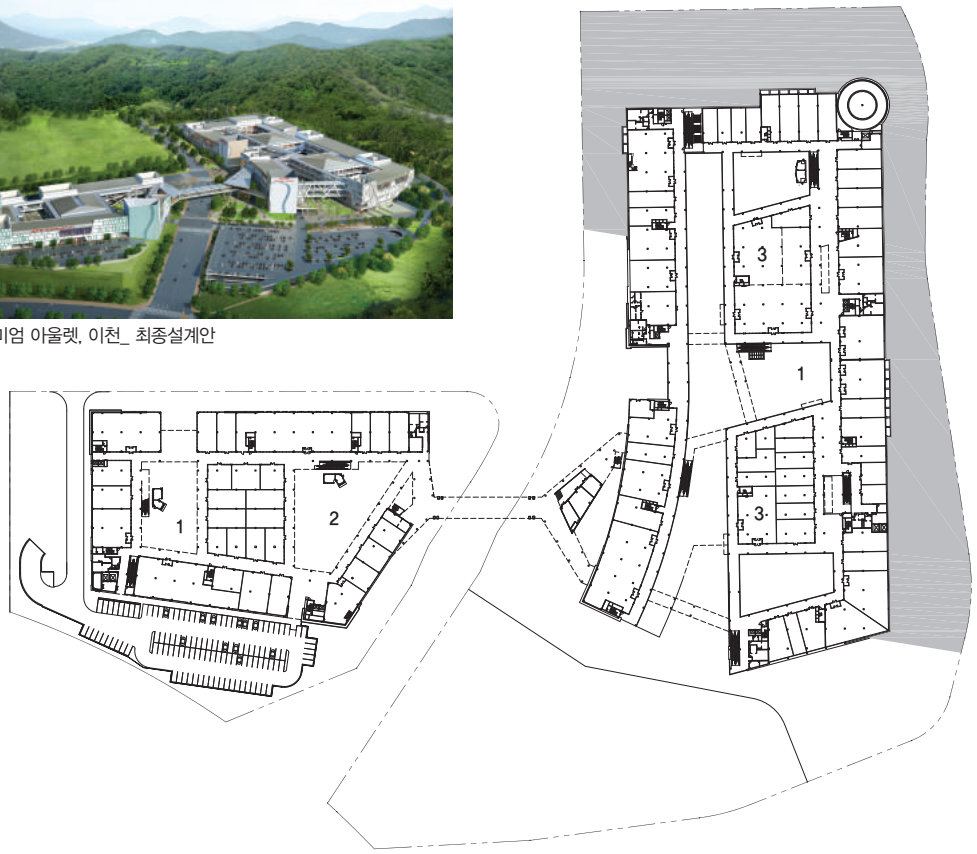
1. 중앙광장 2. 진입광장 3. 매장 4. 연결통로 5. 휴게음식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_ 구상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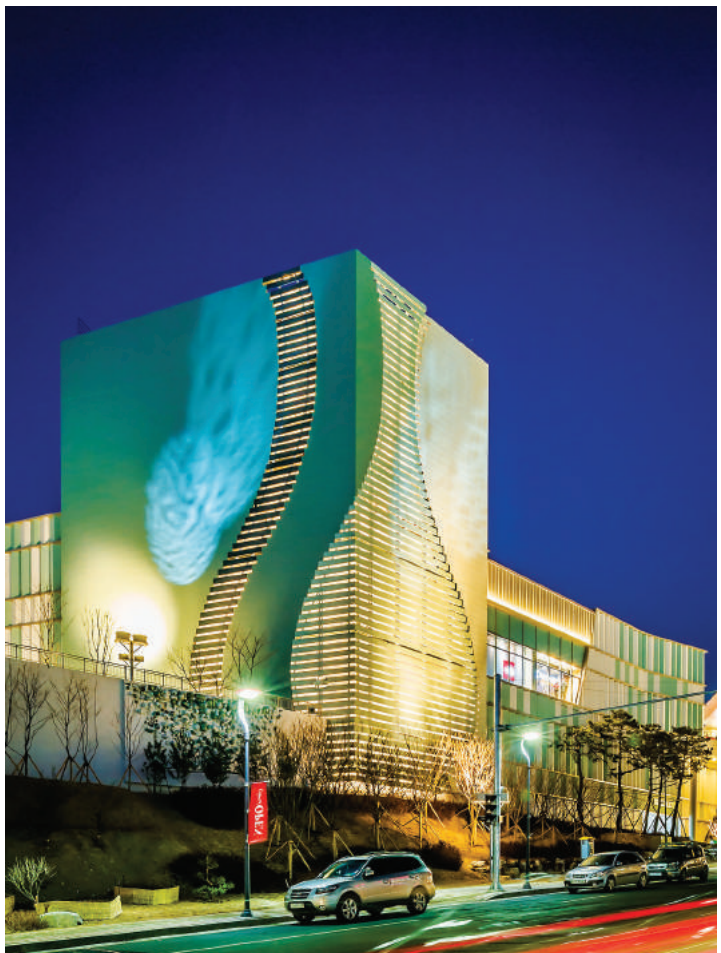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_ 최종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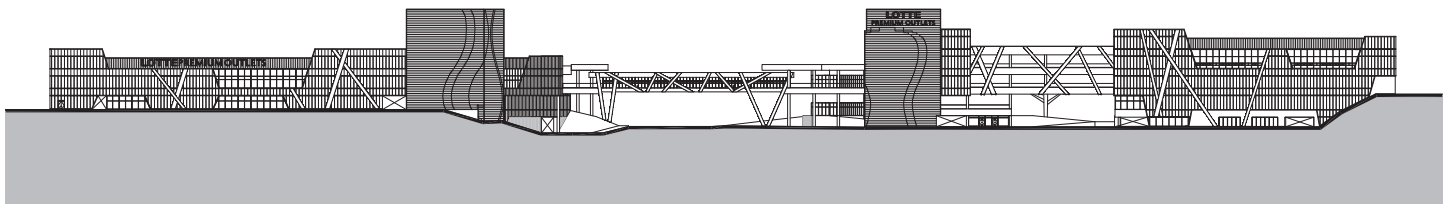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별관 동측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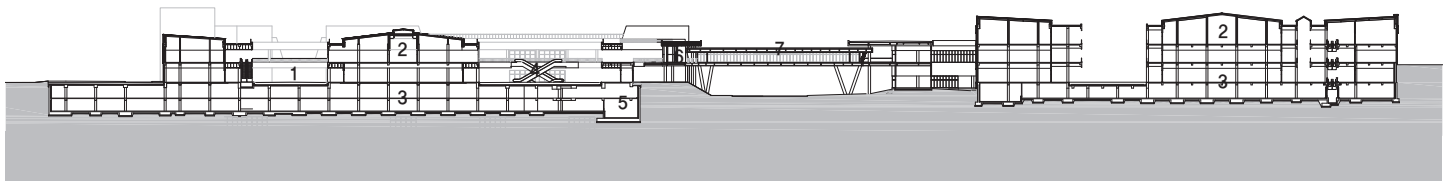
본관 동측 입면

본관 휴게데크



남측입면도

1. 중앙광장 2. 매장 3. 주차장 4. 진입광장 5. 기계실 6. 휴게데크 7. 연결통로



0 2 10 20m

종단면도

별관 내부 광장

본관 에스컬레이터홀

별관 내부 복도

본관 내부 복도

회원작품.

수평적 열림_ 낙동강 기념조형관

Horizontal Void_ Nakdong River Commemorative Design Building

설계자 | 임준빈_KIRA | 건축사사무소 네오스페이스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에서 건축공학 학사 및 석사를 취득하고 대우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실무를 했다. 1995년에 건축사사무소 네오스페이스를 설립하였으며, 주요작품으로는 낙동강물문화관 리노베이션, 예천양수발전소 후생동, 남부수자원 수질복원센터, 이호랜드, SDA사옥, KBI연구소, 전남서부권정수장, 삼성자동차부품공장 등이 있다.

- 설계팀 : 윤동원, 마상혁, 송기준, 이용주, 방은지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맥이엔이지
  - 전기통신설비분야 : 새한기술
  - 기계소방설비분야 : 태영설비

건축주 | 한국수자원공사

감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시공사 | 삼성건설㈜, 동방종합건설㈜

대지위치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1149-26 외 6필지

주요용도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9,202.31㎡

건축면적(Building Area) | 402.31㎡

연면적(Gross Floor Area) | 647.9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37%(법정 20%)

용적률(Floor Area Ratio) | 7.04%(법정 80%)

규모(Building Scope) | 지상2층

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 : THK24 칼라, 투명복층유리(양면강화),
알미늄 타공판위 불소수지도장, 적삼목, 멀바우 데크 등
내부마감 : 대리석복합패널, 석고보드위 백색도장, T12 강화유리,
메이플우드플로링 등

설계기간 | 2011. 01 ~ 2012. 11

공사기간 | 2012. 02 ~ 2013. 01

사진(Photographer) | 박재영(Park, Jae-yeong)

Client | Korea Water Resources Coporation

Architect | Yim, Joon-bin

Project team | Yoon, Dong-won / Ma, Sang-hyeok / Song, Ki-joon / Lee, Yong-ju / Bang, Eun-ji

General Contractor | Samsung Construction, Donbang Construction

Location | 1149-26, Hadan 2-dong, Saha-gu, Busan, Korea

Structure | S.C,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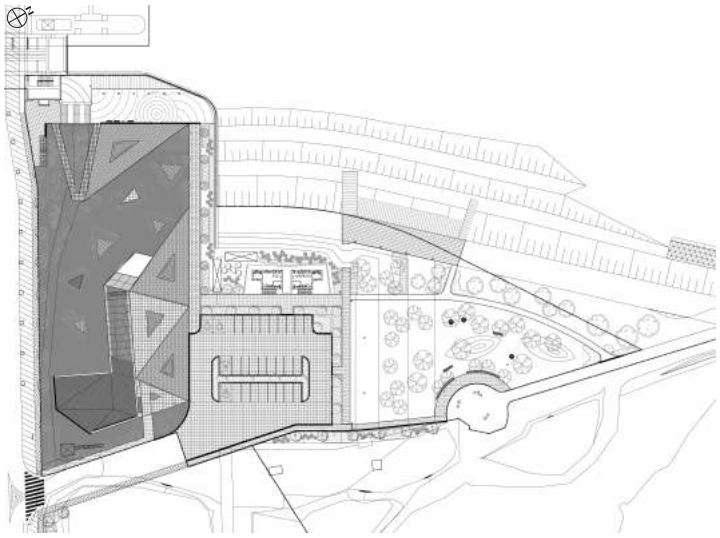
Structure Engineer | Mac Engineering

HVAC & Eletrical Engineer | Taeyoung Eng

Electrical Engineer | Sehan Technology

Finishing Materials | Exterior Finish : T24 Color Pair Glass, Painting on Perpolated Metal, Cedar Wood, Merbau Wooden Deck, Etc

Interior Finish : Marble Panel, White Paint, T12 Tempered Glass, Maple Wood Flooring, Etc



배치도

전경

이 건물은 4대강사업 완공시기에 맞춰 성공 기념으로 건립한 기념조형관으로, 낙동강 배수문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는 건물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낙동강 주변 자연환경과 철새들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친환경적 건축으로 계획하였다. 설계의 주요 개념은 철새를 배려하면서도 전망과 휴게를 할 수 있는 저층의 파빌리온과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수평적 열림 및 지붕녹화다. 그리고 철새의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되도록 높이를 낮추고 공원이 설치 예술품과 같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조형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에서는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계획하여 지역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배치계획의 초기안은 자연풍경을 좀 더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낙동강 수변에 최대한 근접시켜 배치하였으나, 낙동강 배수문 전체공사 진행상의 문제로 좀 더 안쪽으로 수정 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휴게 · 전망공간에서 낙동강 배수문과 풍경을 잘 볼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주변 조경은 건물 조형언어와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1층 공간은 크게 로비, 카페, 화장실로 구성되었으며, 로비에 인접한 공간에 2층 휴게 · 전망공간으로 향하는 행정거리 23m의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 공간에는 계단형 갤러리를 계획하여 1~2층을 오르내리면서 설치미술 작품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평적으로 열린 공간_Horizontal Void를 휴게 · 대기공간으로 계획하여 1층 로비와 자연스러운 동선을 연결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2층 공간은 낙동강 주변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휴게 전망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천창에는 자연채광에 대한 차양을 위해 루버를 계획하였고, 자연 환기를 돕기 위해 전동천창을 일부 설치하였다. 또한, 경사지붕을 세덤녹화로 계획하고 열린공간_Void 안쪽을 적삼목으로 마감하여 친환경적이고 온화한 감성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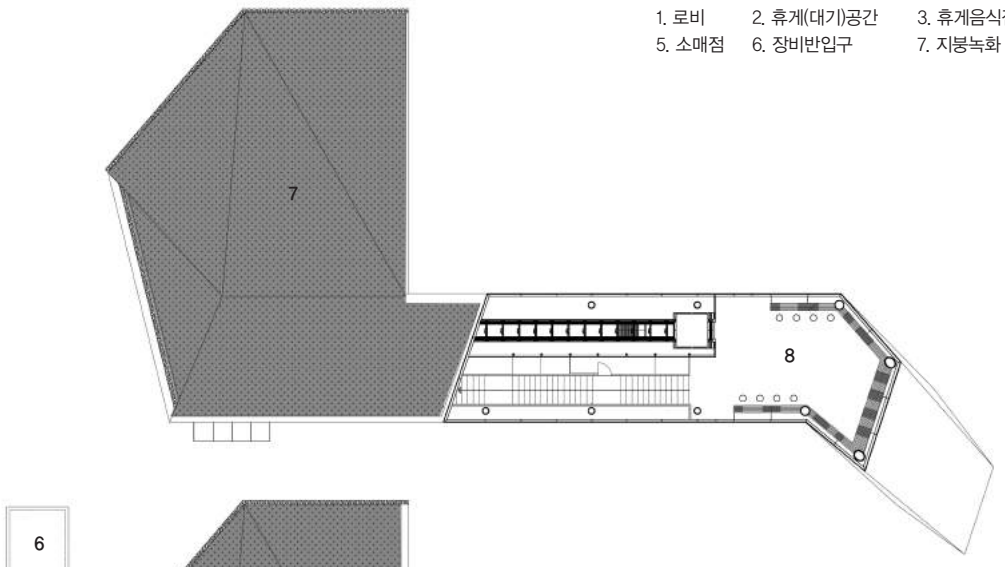
입면 양측면에 삼각형의 내부 투명픽스창을 계획하여 내 · 외부 입면과 주경 · 야경의 입면에 다채로운 변화를 주었다. 우리는 세로형이 아닌 가로형의 전망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공간, 수직이 아닌 경사형의 엘리베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전망대를 계획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계단형 갤러리의 다양한 설치미술 작품을 보고 2층 휴게 · 전망공간에 이르기까지, 즐거움과 여유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기념조형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진입로에서 바라본 야경

진입로에서 바라본 전경

세덤녹화된 경사지붕

1. 로비 2. 휴게(대기)공간 3. 휴게음식점 4. 카운터
5. 소매점 6. 장비반입구 7. 지붕녹화 8. 휴게 · 조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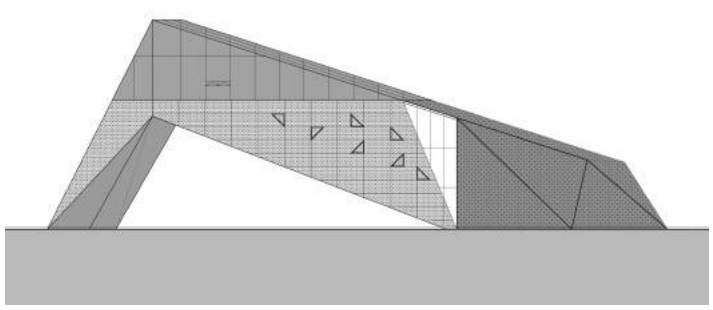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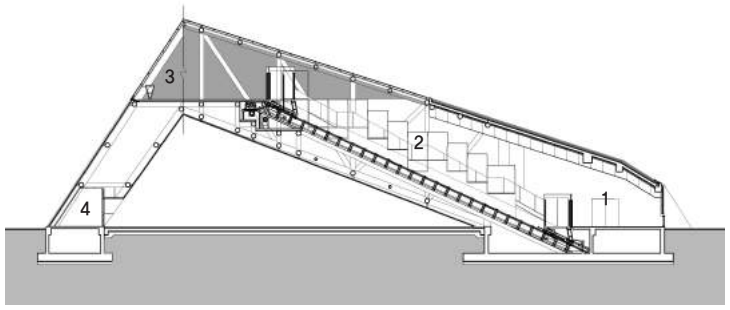
매점 입구

1. 로비
2. 계단형 갤러리
3. 휴게 · 조망공간
4. 매점



0 1 2 5m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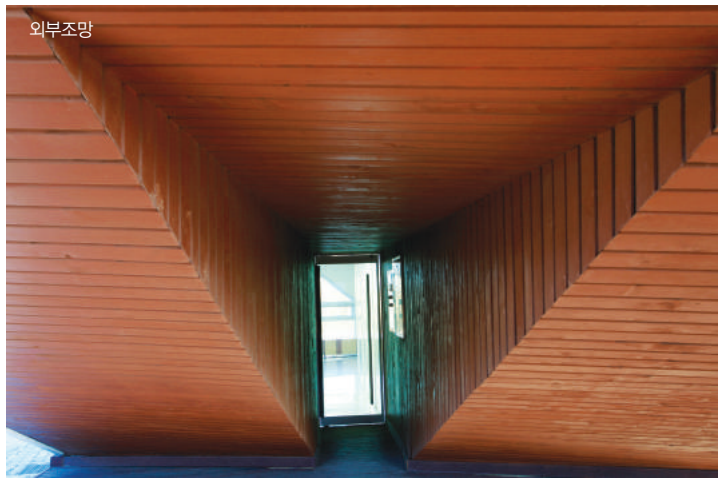


단면도

휴게 · 조망공간

내부 계단

로비


외부조망

앙성면사무소 당선작

Angseong-myeon Public Office

발주자 : 충주시

설계자 : 김창식 KIRA | 우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유명희, 황기숙, 김태섭, 김바울, 김주현

전문기술협력
– 구조 : 황두구조엔지니어링
– 전기 · 기계 · 통신 · 소방 : 한양ENG
– 토목 : 종석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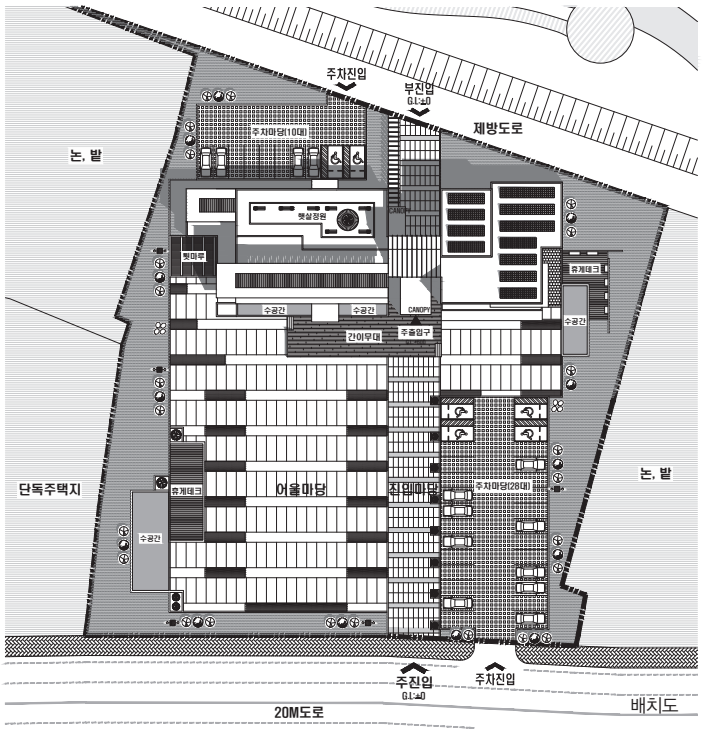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북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102–1번지 외
대지면적 5,735㎡
건축면적 765.69㎡
연 면 적 1,431.84㎡
건 폐 율 13.35%
용 적 률 24.97%
규 모 지상 2층
주요마감 JR강판, 고밀도목재 압축패널, 칼라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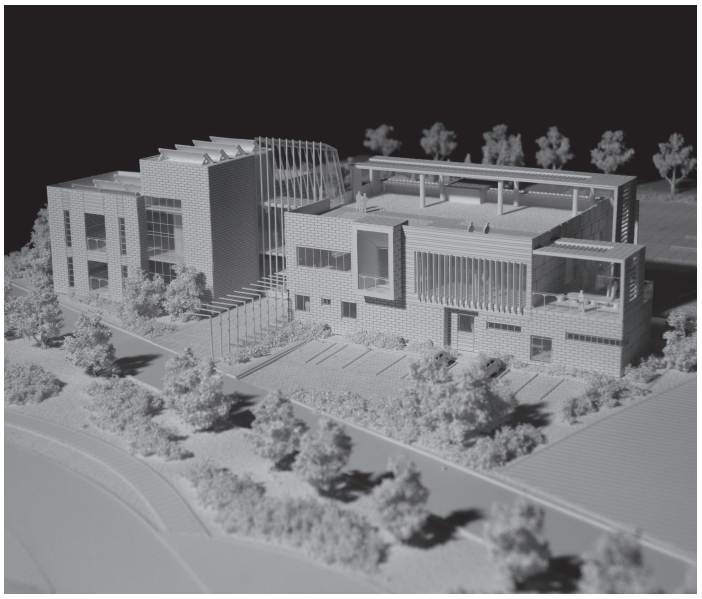
본 설계는 앙성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어우러질 수 있는 어울마당을 조성하고, 2층 중앙에 풍경복도를 설계하여 남측의 국망산을 조망하고, 북측의 치마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콘셉트이다. 도로축에 나란히 배치하여 진입시 정면성을 부각시켰고, 이는 방위축과 일치하는 남향이다. 후면 생태하천 제방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부출입구를 설계하였으며, 청사 전면에 간이무대와 어울마당을 설계하여 주민들의 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울마당과 건물 전면에 수공간을 설치하여 어느 때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면진입 28대와 후면진입 10대 총 3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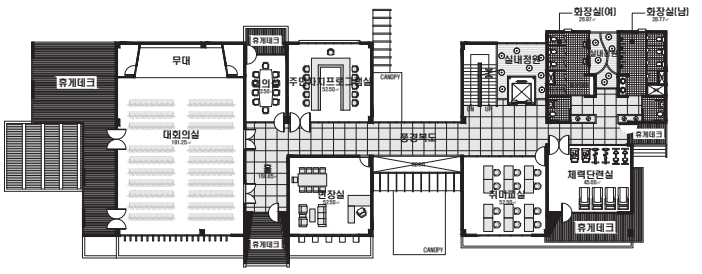
평면계획은 주진입마당과 중앙홀 후면진입마당을 축으로 하여 좌측에 행정공간인 민원실을 배치하고, 우측에는 면대본부 및 농민상담실을, 청사 좌우측에 휴게데크와 툇마루를 설치하여 내부공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원실에는 인터넷카페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층은 중앙 풍경복도에서 남측 어울마당과 국망산을 조망하고, 북측 생태하천과 치마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변의 우수한 자연풍경을 제공한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취미교실과 체력단련실, 대회의실 등을 설계하였다. 옥상은 태양광 집열판과 햇살정원을 설치하여 에너지 부하 절감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층 전면과 후면에는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조망부스를 설치하였다.

주민을 겸손함으로 맞이하고, 유지 · 관리에 용이하도록 지나친 장식과 넘치는 화려함을 지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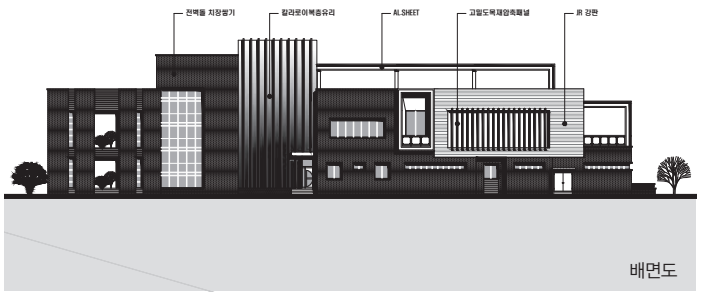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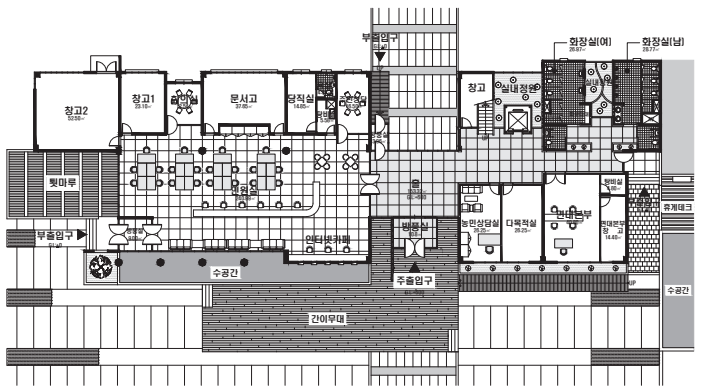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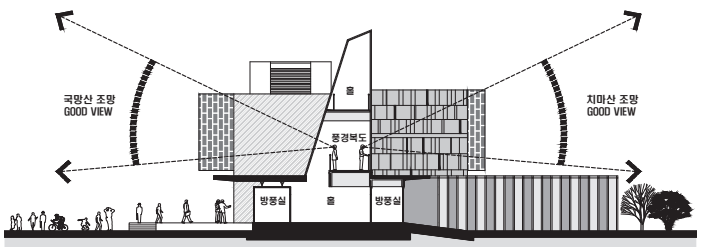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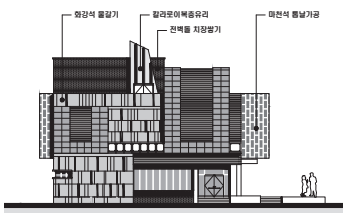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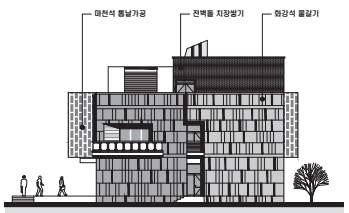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종단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구로구 거점형 복합인생이모작지원센터 당선작

Multi_Complex for the Third Age

발주자 : 구로구청

설계자 : 조도연, 이경환 KIRA | ㈜디엔비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하홍원, 허환, 이태희, 김성주, 강래현, 신동하, 박승열, 서원진, 김준보, 김효정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신화에스디지 – 전기/통신 : ㈜삼우티이씨
– 기계 : 성원설비 – 조경 : 스튜디오 테라
– 토목 : ㈜고려씨티에이 – 친환경 : SDA건축환경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194 외 2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3,300.00㎡
건축면적 1,241.51㎡
연 면 적 5,107.55㎡
건 폐 율 37.62%
용 적 률 92.7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규 모 지하 1층 ~ 지상 4층
주요마감 노출콘크리트, 금속패널, 고밀도 목재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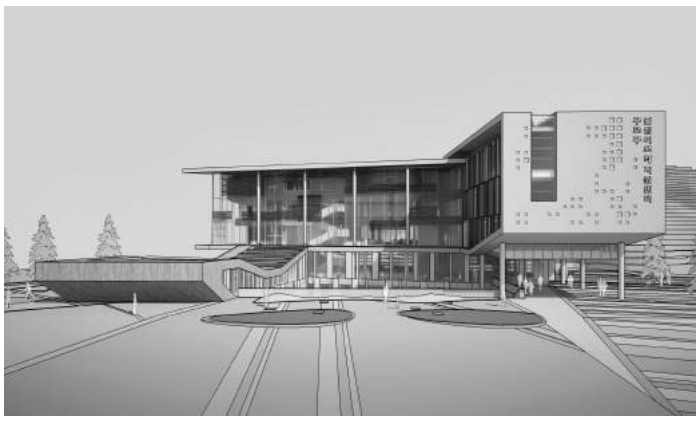
서울시 구로구 거점형 복합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5060세대가 제2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공간이자, 1, 2, 3세대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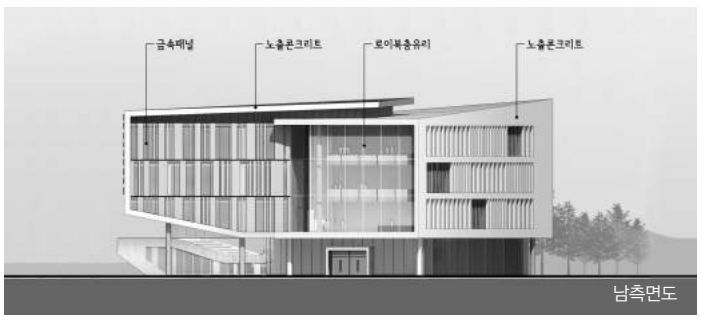
이러한 프르그램의 본질적 성격을 바탕으로 도시적 맥락과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공간을 비우고, 비워진 공간을 이용자의 다양한 행위로 채움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나눔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공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마당 : 진입도로에서 필로티를 통해 대지 내부로 연결되는 안마당은 선큰과 주변녹지와 함께 입체적으로 확장되어 이용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여가, 교류의 커뮤니티 마당이 된다.

공공성을 위한 열린 디자인 : 안마당의 투명한 파사드는 주변지역인 구로구 오류동의 풍경을 담아내는 동시에 이모작지원센터의 다양한 내부행위를 주변에 투영하여 열린 공공성을 갖도록 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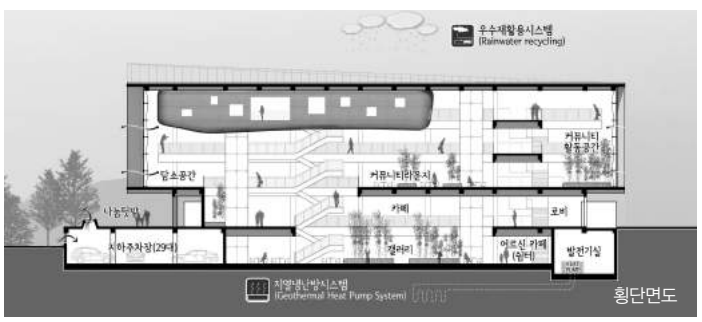




남측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구로구 거점형 복합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우수작

Community Center for Older Adults In GURO-GU

발주자 : 구로구청

설계자 : 윤상국 KIRA | ㈜관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손재홍, 안정수, 이진선, 신현수, 이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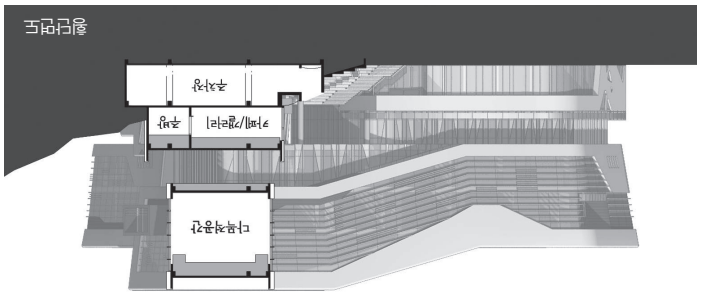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사림
– 기계 : 디이테크
– 토목 : 대영이엔지
– 전기 : 에스엠티이씨
– 조경 : 한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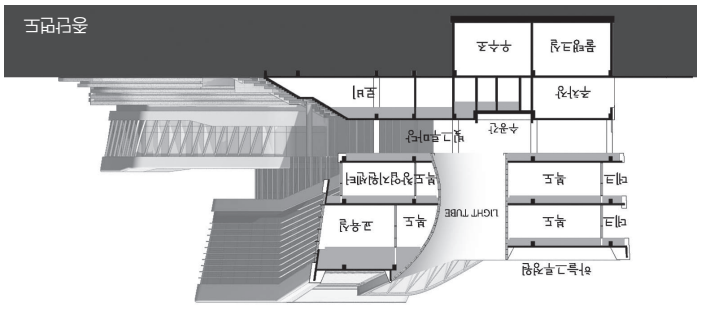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194 외 2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3,300.00㎡
건축면적 1,530.21㎡
연 면 적 5,176.76㎡
건 폐 율 46.37%
용 적 률 148.49%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 지상 4층
주요마감 금속패널, 목재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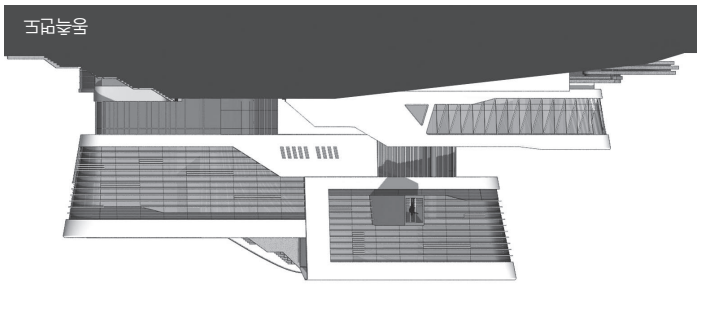
서울의 신개념 노인복지시설인 구로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1~3세대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교류의 장으로서 신 노년층을 위한 복합교육, 정보, 일자리,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은퇴설계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재취업, 창업을 위한 기초설계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루터기에 새싹이 돋듯이 이모작 지원센터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어르신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내 · 외부공간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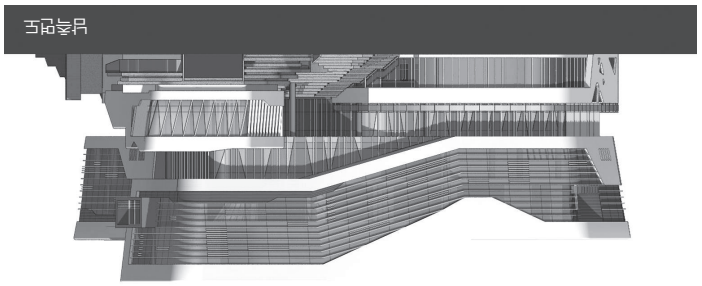
정남향 배치 및 Light tube로 신노년층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개웅산 근린공원과 연계된 숲속의 캠퍼스를 계획하였다. 주변 대지의 고저차를 활용하여 다양한 접근 동선을 계획했고, 주차장의 후면배치로 명확한 보차분리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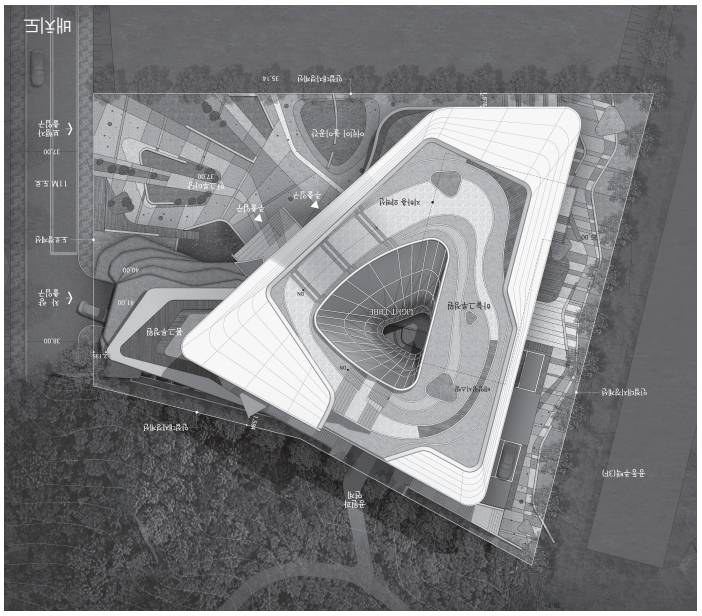
외부공간 및 카페, 회의실, 가구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좌식으로 배치하였고, 야외마당에는 수공간을 반영하여 어르신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신 노년층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며 상승과 수직의 상징성을 입면디자인으로 구성하고 그루터기, 새싹, 나무껍질을 단순화하여 Mass의 형태 및 입면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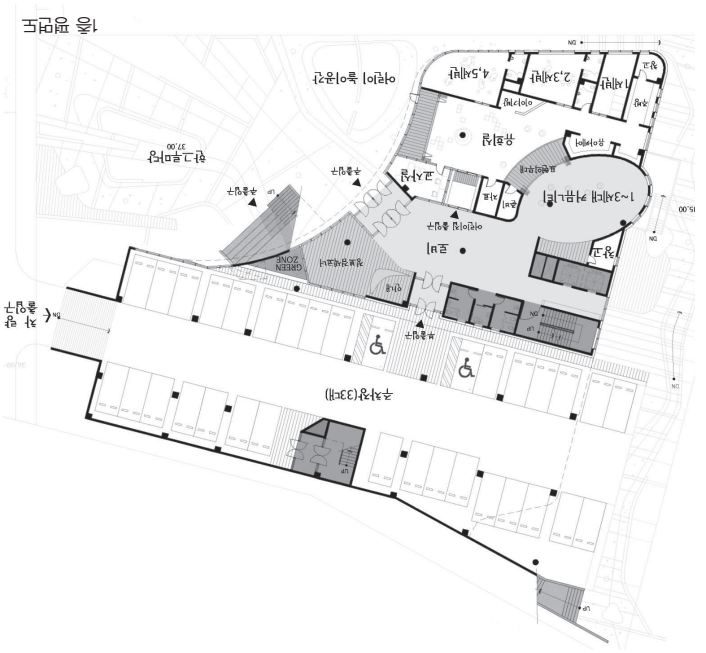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하늘그루정원
데크
목도
교육실
LIGHT TUBE
목도정기원센터
빛그림마당
수공간
로비
주차장
물탱크실
우수조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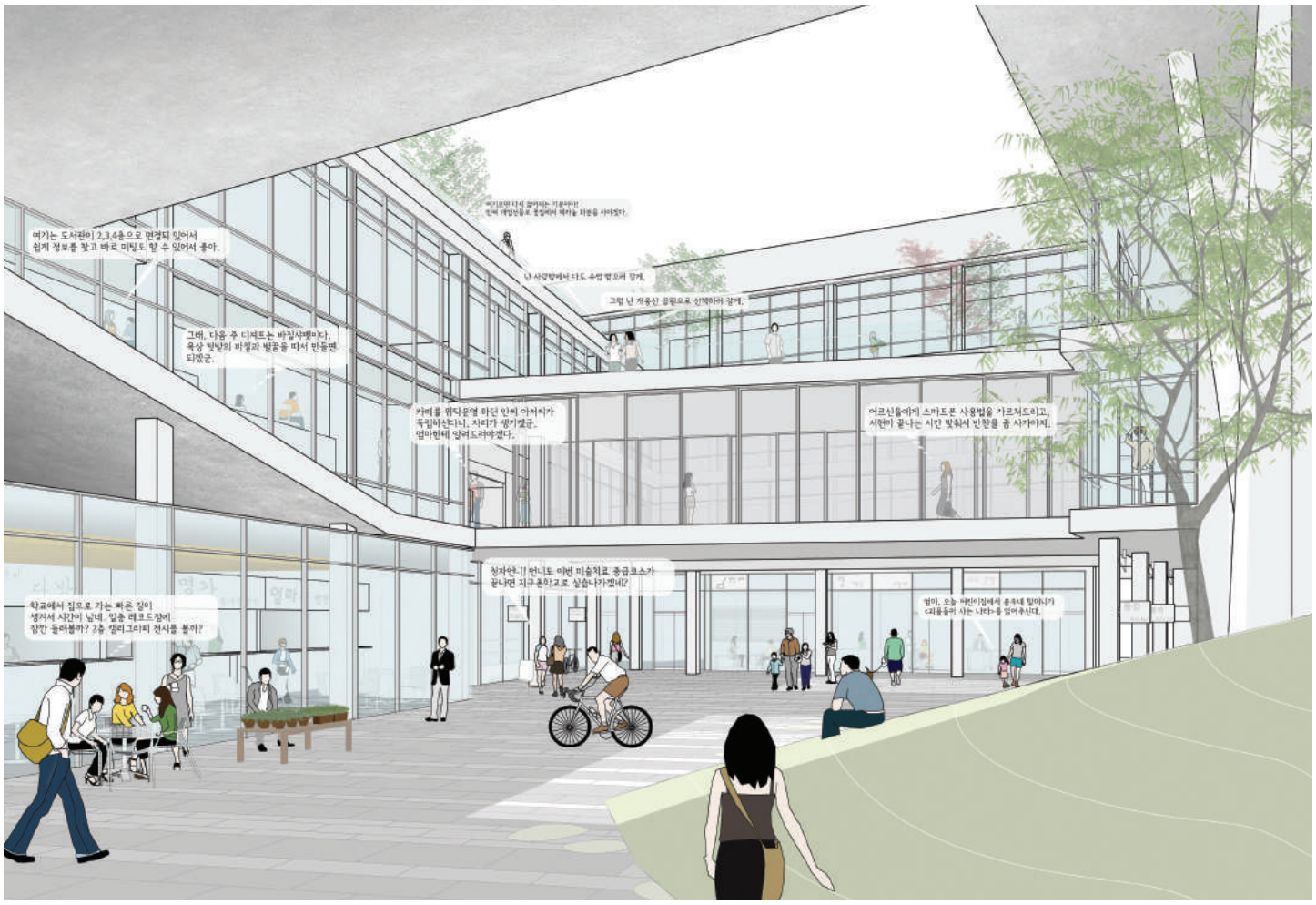

남측면도


배치도
LIGHT TUBE
하늘그루정원
목그루정원
공원과 연계
주출입구
차량출입구
지하주차장입구
OPEN
어린이 놀이공간
35.00
41.20
38.00


1층 평면도
주차장(33대)
차량 출입구
주출입구
로비
정보데스크
QUIEN ZONE
정보
1~3세대 커뮤니티
교사실
유희실
어린이 놀이공간
4,5세반
2,3세반
1세반
사무
원장
휴게
보육실
화장실
주출입구
장애인 주차장
37.00

2층 평면도
로비
정보데스크
OPEN
보육실
(278.36㎡)
놀이터
주출입구
장고
교사실
(325.36㎡)
빛그루마당
41.20
35.00
동서데크

3층 평면도
취업상담 및 업무
(243.37㎡)
업무
OPEN
정보보육공간
(117.99㎡)
정보자립센터
(115.43㎡)
놀이쿠정원
주출입구
정보문화실
(288.17㎡)
정책홍보실
(114.68㎡)



구로구 거점형 복합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가작

Community Center for Older Adults In GURO-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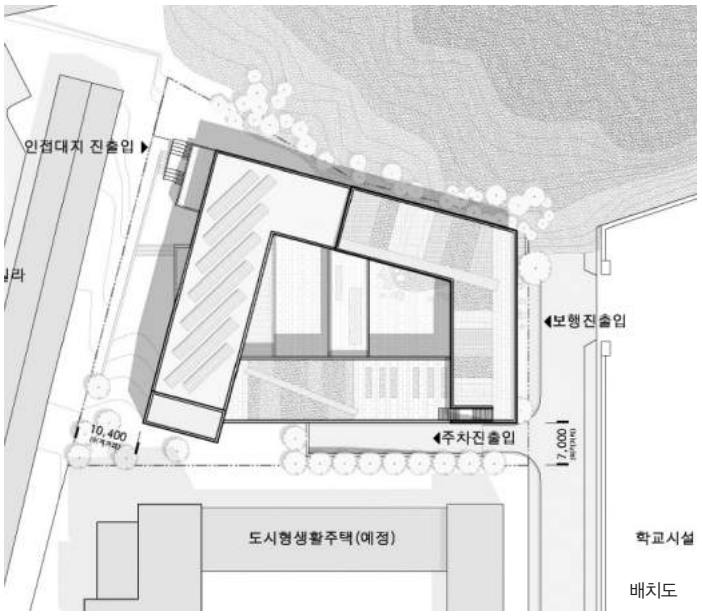
발주자 : 구로구청

설계자 : 박인영 | ㈜건축사사무소 SAAI
설계팀 : 이진오, 안군서, 원성필, 이동준, 유승민, 윤광재, 김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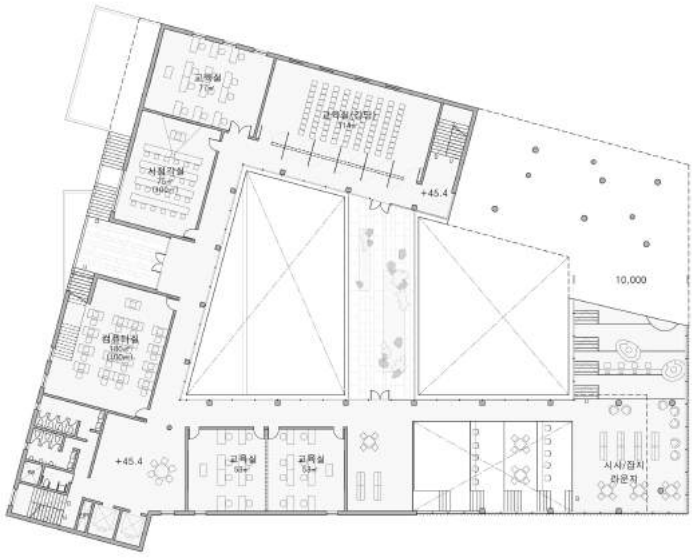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은구조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194 외 2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3,300.00㎡
건축면적 1,700.49㎡
연 면 적 5,206.85㎡
건 폐 율 51.53%
용 적 률 120.5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 지상 4층
주요마감 치장벽돌, 노출콘크리트, 스틸루버, THK24 Low-E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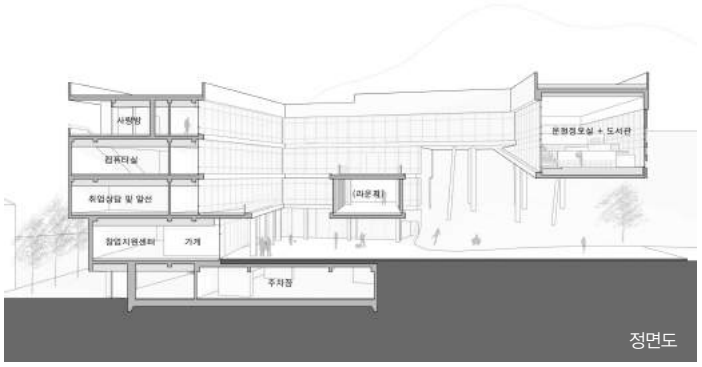
이 집은 기존의 노인복지회관도 장년취업알선센터도 아니다. 효용성과 융통성을 목표로 계획한 '숲이 있는 캠퍼스'다. 효용성은 프로그램의 재해석을 통해, 융통성은 공간구조를 통해 건축화된다. 우리는 중정형의 틀에 창업보육공간인 '열두가게'와 문헌정보실, 도서관이 엮인 '책이 있는 언덕'을 중심으로 그물형 공간구조를 제안하였다.
지상 1층에는 일자리지원영역의 창업지원센터와 보육공간을 두었다. 일반적으로는 갤러리나 도서관을 1층에 배치하겠지만, 우리는 가게가 식당, 어린이집과 함께 1층에 배치되어 지역공동시설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열두가게'는 어르신들의 부드러운 응대라는 장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제안하였고, 이것은 문화와 상업을 통해 광장을 일상의 공간으로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다. 상부에는 갤러리와 도서관을 둠으로써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문헌정보실과 도서관은 2, 3, 4층에 연속되는 '책이 있는 언덕'이 되어 2층의 사무, 취업상담기능과 3층의 교육기능, 4층의 사회활동지원기능과 연계된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신축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다. 이 집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외양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머무는 공간에 정을 붙이는 어르신들의 시간과 기억을 통해 바람직한 일상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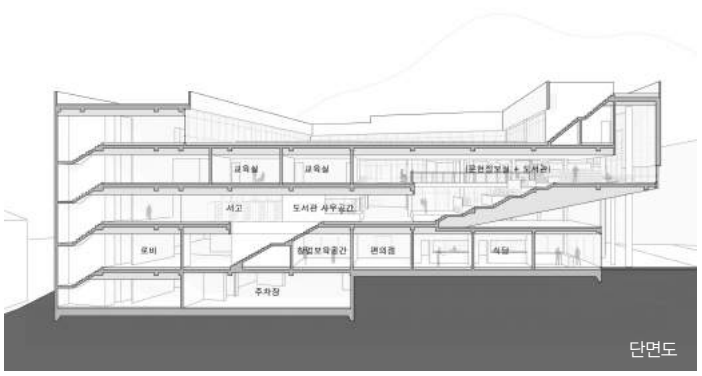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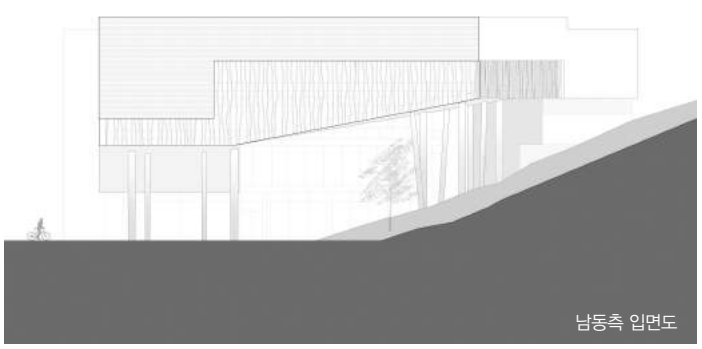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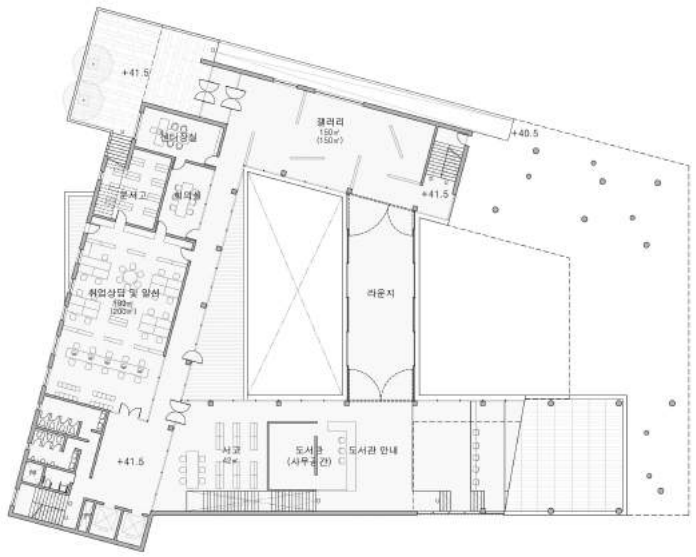
정면도



단면도



남동측 입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구로구 거점형 복합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가작

Community Center for Older Adults In GURO-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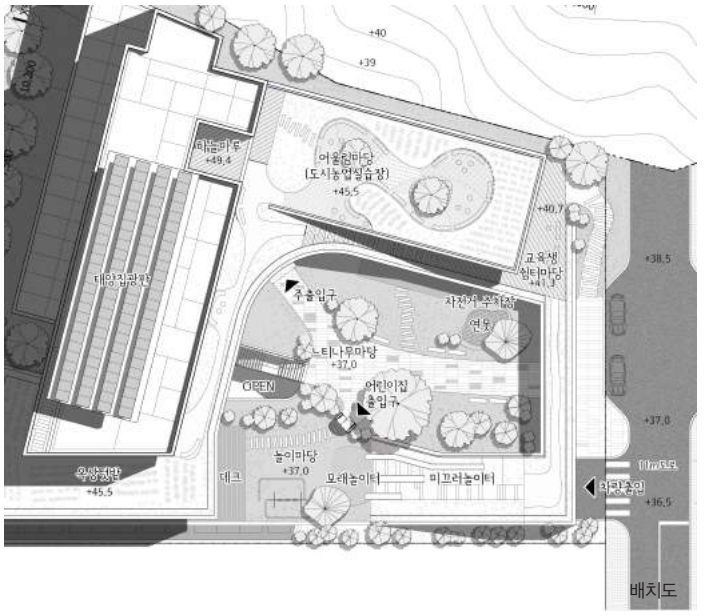
발주자 : 구로구청

설계자 : 김용미 KIRA | ㈜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조진홍, 이정섭, 김원일, 박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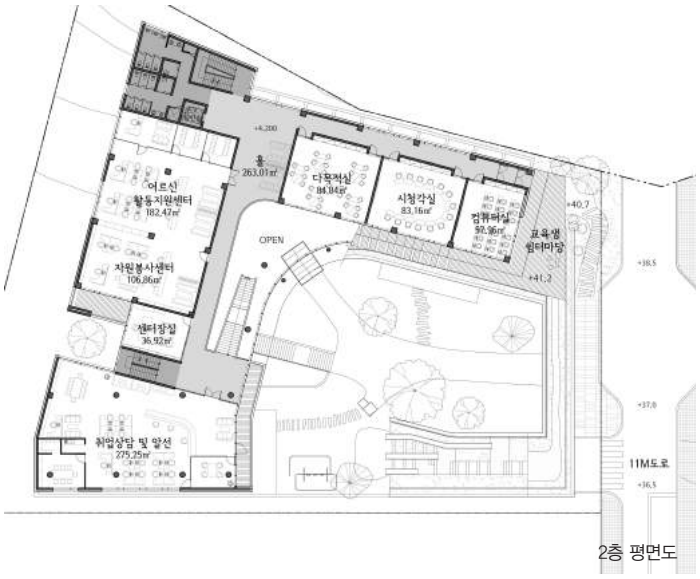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194 외 2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3,300.00㎡
건축면적 1,798.72㎡
연 면 적 4,993.15㎡
건 폐 율 54.5%
용 적 률 137.229%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 지상 4층
주요마감 목재패널, 알루미늄루버, 전벽돌, 천연컬러몰탈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주 이용자인 중장년층, 미래 신 노년층이 좋아하는 공간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할 일이 있는 공간, 무엇보다 답답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와 자연으로 열린 트인 공간이다. 우리는 그런 경계가 없는 열린 건물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캠퍼스 같은 공간을 생각하였다. 캠퍼스에는 소통과 만남의 장소가 많이 있다. 작은 대지를 100% 활용하여 그런 다양한 장소를 담기 위해 1~3층까지 외부활동공간을 만들었고, 개웅산 공원까지 하나로 연결된다. 어린이 집은 '집속의 집' 개념이다. 독립된 형태, 독립된 마당, 독립된 작은 대문을 두어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집만의 영역감을 주고자 하였다. 주차장 경사지붕을 이용해 어린이 미끄럼놀이터와 계단교실을 만들어 토지활용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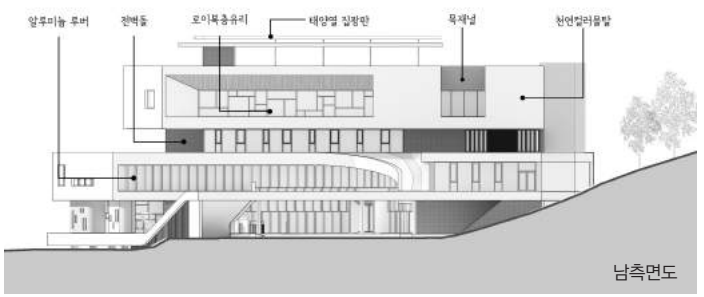
원지형 대로 대지 제일 낮은 쪽 +32레벨에 지하층을 두어 지상처럼 채광과 환기가 되도록 했고, +37 도로레벨에 1층을, 개웅산 공원과 맞닿은 +41레벨에 2층 테라스를 연결하여 지하에서 지상1~2층까지 원지형과 연결하였다. 이웃 연립주택과의 관계는 대지경계로부터 8m 이격하여 충분한 차폐식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물의 모든 지붕을 외부활동마당으로 만들고, 서로 연결하여 대지 전체를 100% 활용하였다. 평면계획에서는 위층으로 갈수록 동선 빈도가 줄어드는 공간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1층은 모두를 위한 공공여가의 장이고, 2층은 민원상담과 교육공간이며, 3층은 모둠끼리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마지막 4층은 아이디어가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창업보육공간이다. 1~2층으로 열린 남향로비는 열완충공간으로 겨울철에는 축열을 하고, 여름철에는 더운공기를 바로 배출하는 공간이다. 간절기에는 굴뚝효과에 의한 자연통풍을 유도한다. 또한 건물 전체 벽면율은 69% 즉, 개구부율 31%로 벽면유리로 인한 열손실을 최소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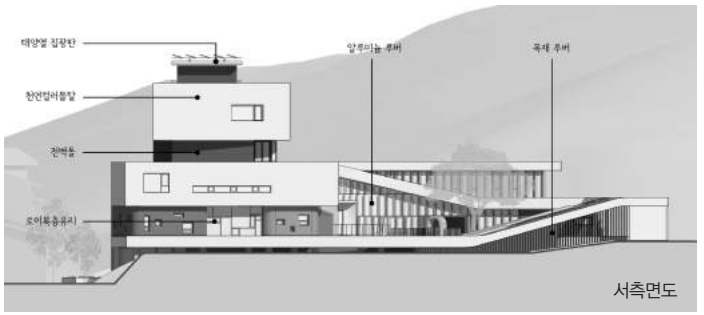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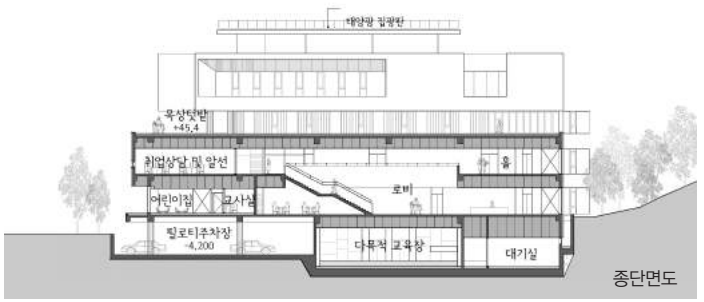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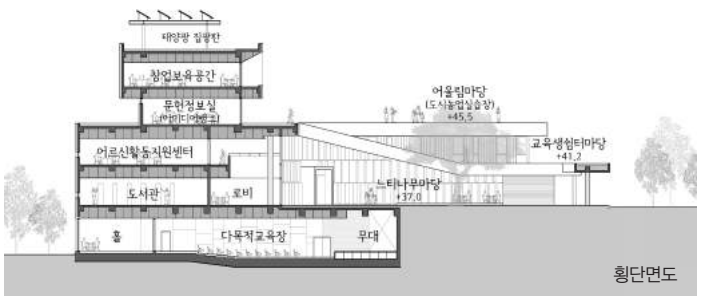
남측면도



서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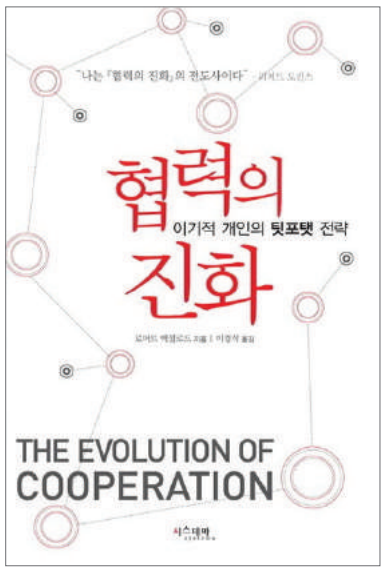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신의’냐 ‘배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게임이론 프로그램 경쟁을 통해 밝혀낸 협력 방법론 –

To believe or to betray, that is the question
- Cooperation Methodology found in the competitions of Game Theory



협력의 진화 로버트 액셀로드 지음 | 이경식 옮김
시스테마 출판사

진화론에 의하면 생명은 경쟁을 통하여 진화하며, 순수한 이타주의는 진화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계와 인간의 사회에서는 선의와 호의가 넘쳐나는데, 이 현상은 진화론에 배치되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협력이 때로는 경쟁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각자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을 어길 때가 있다. 이로써 상대방은 손해를 보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또는 상대방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기도 한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때로는 이러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보려는, 즉 배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나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사람도 있다.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과 냉정하게 관계를 끊는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만 현실에서의 인간 관계는 신의를 지키거나 배신을 하건 간에 바로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한다. 친구가 한번 나를 이용하였다고 해도 바로 절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대방이 나를 한번 배신하였다면 그 다음 기회에 나도 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신의를 지켜줄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두 사람 간의 신의와 배신의 조합 모델 속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전 세계의 학자들에게 ‘죄수의 딜레마’ 로 유명한 10번의 반복되는 배신과 신의의 게임 이론 프로그램을 의뢰하였고, 많은 학자들이 가장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내왔다. 이 프로그램들을 슈퍼컴퓨터를 통하여 각각 경쟁시켰는데, 다른 프로그램과 진행된 게임에서 가장 많이 승리하여 이익을 극대화한 프로그램은 “Tit for Tat” 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방법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과학적인 협력에 대한 방법론인데, 이 방법이 우리가 선현들로부터 배운 지혜와 비슷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1. 상대방을 질투하지 말것.
2. 상대방과의 첫 관계에서 먼저 배신하지 말 것.
3. 상대방의 협력이나 배신을 그대로 되갚아 줄 것. 즉 상대방의 배신을 그냥 넘어가지 말 것.
4.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말 것.

위의 네 가지 원칙은 자신이 가장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지혜를 슈퍼컴퓨터가 프로그램 간의 경쟁을 통해 계산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결과라는 사실이 신기하다. 글 | **김형수**

연애편지를 읽다 아홉번째 이야기

글. **정이숙_** Jeong, Yi-suk
비트윈커뮤니케이션 대표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을 시로 쓴 적이 없다. 연애시는 다만 연애하고 있을 때에만 썼다."*

"I've never written a poem with what I don't experience. Love poetry is made while I am in love."

- from Goethe's Love Letters, who is an advocate of all the hopeless love on earth.

전 세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대변자, 괴테의 러브레터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면! 아아 신이여, 저를 만들어 내신 당신이 그런 기쁨을 내게 마련해 주셨다면 저는 평생 쉬지 않고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저는 항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시름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이런 부질없는 소원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가 나의 아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녀를 내 품에 꼭 껴안을 수 있다면… 알베르트가 그녀의 날씬한 몸을 껴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빌헬름, 나는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 같다.**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한 부분입니다. 호메로스(Homer), 단테(Dante), 셰익스피어(Shakespeare)와 함께 세계 4대 문호로 손꼽히는 괴테는 1772년 6월 9일 23살 때 법무실습을 하던 베츨라르(Wetzlar)라는 작은 마을에서 법관 부프의 딸 샤로테(Charlotte Buff)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 그녀는 이미 외교관 케스트너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괴테는 베츨라르에 머무는 4개월 동안 샤로테의 집에 자주 방문해서 그녀의 동생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그녀의 약혼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샤로테는 괴테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혼자와 결혼했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체험은 1774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나와 카를리헨, 렌헨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 만나지 못했던 사람 모두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오로지 로테, 로테, 로테 뿐입니다. 로테 없는 삶은 그저 고난과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로테, 오늘은 이만하겠소. 8월 26일
어제, 26일부터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스타트 사이에 위치한 도시 랑켄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의자에 앉아 메르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집니다. 2년 전 오늘, 난 당신 옆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중략) 아! 로테여, 여전히 당신은 정직하고 순수하게(나는 당신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하지만 세월이 우리를 제압했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조만간 성경과 보석함,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우정과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괴테의 편지는 샤로테가 결혼한 뒤에도 계속됩니다. 위의 편지는 1774년 8월에 쓰인 것입니다. 저 편지를 쓰고 약 한 달 뒤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판된 것을 보면 책을 쓰면서 샤로테에 대한 마음을 되새기고 추억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1787년 안젤리카 카우프만(Angelica Kauffmann)이 그린 괴테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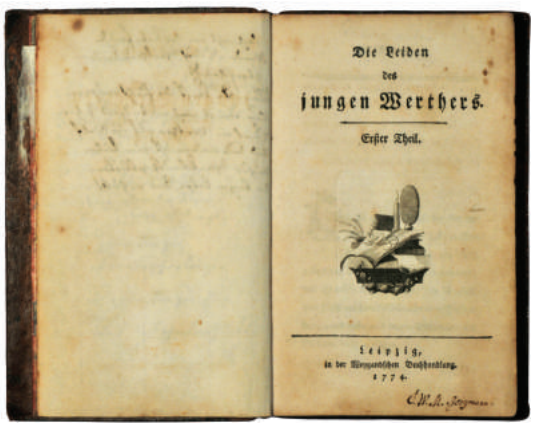
샤로테 부프(1753~1828)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비극적 사랑을 서정적이고 열정적인 문체로 표현하여 18세기 독일 '슈투름 운트 드랑(Sturm und Drang, 질풍노도)' 문학운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열정에 휩싸인 괴테가 이 소설을 단 4주만에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베르테르의 자살로 끝나는 이 작품의 충격적 결말은, 베츨러 공사관의 한 서기관이 친구의 부인을 사랑하다 자살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전 유럽 독자들의 감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책만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라 베르테르 향수가 시장에 나왔고, 로테의 실루엣 그림까지 팔렸습니다. 급기야 주인공의 비극적인 최후까지 따라하려는 청년들이 베르테르처럼 푸른 연미복에 노란 조끼 차림으로 권총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명인이 자살하면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모방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1816년 괴테와 샤로테는 토마스 만의 주선으로 바이마르에서 만나는데 아주 예의 바르고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열서너 살 무렵의 첫사랑 그레첸에서부터 74세에 사랑해서 청혼까지 했던 17세의 울리케까지, 괴테는 평생을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그가 남긴 작품과 편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영화로 또는 소설이나 뮤지컬로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1821년 괴테는 비서에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베르테르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야. 만일 그런 시기가 자신의 생애에 단 한 번도 없다면 불행한 일이겠지.' 한 번도 힘든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한 괴테를 보면 천재들은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이름 로테는 우리나라 대기업 롯데그룹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가깝게 있습니다. 그룹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이 젊어서 감명 깊게 읽은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09년에 부산대와 공동연구 차 한국에 처음 온 독일인 보쉬(당시 28세 •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지도를 보다 「Lotte」라는 낯익은 이름이 부산에 많은 걸 보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의 8대조 외할머니가 바로 소설의 모델이자 괴테의 사랑을 받았던 샤로테(Charlotte)였기 때문입니다.

롯데라는 이름의 유래가 자신의 8대조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쉬는 이 사연을 롯데그룹에 편지로 알렸고, '롯데 측은 독일의 로테 하우스에 가능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프 가문과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부산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2009년 12월 22일字) 보쉬에 따르면 현재 독일 베츨라르에는 샤로테의 생가가 개인 박물관인 '로테 하우스'로 남아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고, 샤로테 부프의 후손들은 현재 50~60명이 남아서 2년마다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소설처럼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18세기 독일에서 끝나지 않고 21세기의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1774년 9월 29일 출판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초판본

샤로테의 8대 후손 보쉬
(부산일보, 2009. 12. 22)

Hannover_Grab_Charlotte_
Kestner_샤로테의 묘

* 괴테와 괴테의 말년을 함께한 문학도 요한 페터 에커만의 대화 중에서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괴테 저 / 박찬기 역 / 민음사 1999) 131p
***괴테의 편지는 『예술가와 위인들의 연애편지』(조은경 저 / 누멘 2011)에서 인용했습니다.

글. **성승환_** Seong, Seung-hwan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온타임 옵션제 이행을 위한 설명 의무

Duty of the explanation for pracising on-time option system.

사안의 개요

(1) 2011년 주식회사 롯데건설은 부산 구서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소유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50개동 규모의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 이상의 최신 시설 및 자재를 사용하고 온타임 옵션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롯데건설은 2002년 8월경 분양신청 안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카달로그를 통하여 온타임 옵션제를 설명하였으며, 입주 전 품평회에서 마감 품목을 최신 자재로 교체한다고 안내한 후 조합원들의 일부 의견을 반영해 건물을 완공하였다.

(3) 재건축조합은 롯데건설을 상대로 건설사가 온타임 옵션제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입주 시에 새로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거나 품평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10억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제1심 · 제2심은 일부 조합원들이 마감 자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당초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되었던 것에 비해 바닥과 천정 마감재를 업그레이드하고 도어록을 최신형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재건축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건축조합이 상고하였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9337 판결의 요지

(1) 대법원은 원심(제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 대법원 담당재판부(민사2부)는 판결문에서 "온타임 옵션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롯데건설이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했다고 하려면 단순히 분양 당시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마감 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일부 반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시하였다.

(3) 또한, 대법원 담당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적어도 입주 시점에 즈음해 품평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분양 당시의 마감 자재를 최신 자재로 교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며, 롯데건설은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

가 충분한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본 원심은 온타임 옵션제 약정에 의한 의무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판례 평석

(1) '마이너스 옵션제(Minus Option)'란,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골조 공사와 미장 마감공사까지만 하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입주자들이 마음에 드는 욕조, 벽지, 마루, 샤워부스 등을 골라 아파트 매매계약 때 건설사에 시공을 의뢰하는 것이다.

(2) '온타임 옵션제(On-Time Option)'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마감재로 바꾸는 것으로 모델하우스 개관 시 최신으로 평가되던 마감재도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구식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입주 6개월~1년을 앞두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새로운 인테리어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3) 온타임 옵션제는 당장은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아파트 공사기간 중에 자재비가 오를 경우 부담은 오히려 늘 수도 있고, 분양가에 마감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풀려진 분양가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적 인테리어업자를 선정해 시공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온타임 옵션제의 경우, 골조나 미장 등의 감리비를 변경할 때 감리 업체와의 분쟁은 물론 마감 공정에 대한 책임감리가 불분명해 하자 발생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온타임 옵션제를 도입한 금정구 롯데캐슬 골드의 경우 분양당시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법적 분쟁을 야기하였다.

(4) 대법원은 위 2011다99337 판결에서 재건축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가 별도의 품평회를 통해 재건축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온타임 옵션제'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밝혔다. 온타임 옵션제를 둘러싸고 아파트 시공사와 입주자, 인테리어 업체 간에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 바,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품평회에서의 의견수렴 절차 및 입주시점의 선택의 기회 부여 여부가 책임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글. **김영재**_ Kim, Young-jae / 건축학 박사
김득수_ Kim, Deuk-soo /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호서은행본점의 입지배경과 그 도시적 의미(1/3)

Background in Situating the Ho-Seo Bank(HQ), and Its Urban Meaning

이 논문은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v.14 n.5(통권 제59호)(2013-10)'에 게재된 것이다. (사)한국도시설계학회로부터 공문을 통해 원문 게재의 허락을 받았다.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들어가는 말

이 논문에서 다룰 호서은행본점은 일본식민정부의 경제적 영향력이 아닌 한국인에 의해 설립 되었고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토착지주들에 의해서 설립되어 경영되었다는 점과 일제에 의해 여러 도시에 설립된 은행들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 의한 자발적 역할분담에 의해 건립된 호서은행은 일제에 의해 주도된 타율적 도시정책과 대응해서 "자율적 노력을 통한 시민의 공간"과 "타율적인 지배를 위한 식민의 공간"이 중첩된 도시경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안톤 펠러와 나카무라 요시헤이에 의해 설계된 호서은행본점에는 당시 대부분의 은행건축물이 고전주의-복고풍이었던 것에 반해,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세제션풍이라는 새로운 건축양식이 시도되었다. 이것은 설계자와 설립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호서은행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서은행 본점의 입지배경과 은행설립을 통해 나타난 도시적 의미를 세 가지 측면을 주목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먼저, 호서은행 설립이 일제에 의한 타율적인 지배의 산물이 아닌 순수토착지주의 자본에 의해 설립된 자율적인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밝혀내고, 두 번째로는 예산에 호서은행본점이 입지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정량화된 수치를 통해 이해하고, 세 번째로는 예산이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예산지역(내포)에 호서은행본점의 입지가 갖는 도시적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주제어 : 충청남도 예산, 호서은행본점, 근대도시, 세제션, 시장

Abstract

This study strives to seek the background in Ho-Seo Bank(HQ)'s foundation and its urban meaning. First, the thesis intends to understand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s of Ho-Seo Bank which had been supported by Korean capitalists(landowners and merchants), keeping their pure capitals acquired by regular traditional marketplaces and farming works around Yesan. Second, through quantification data, it deals with reasons that the Ho-Seo Bank have been situated on a triangular corner that meets three roads toward a main thoroughfare toward Gongju to Hongseong, a railroad station, and a downtown area(Honmachi(本町通)) each. Third, it discusses the subsequent changes of Yesan's urban landscape that resulted from the Ho-Seo Bank's foundation(1913). In other words, thanks to a newly founded Ho-Seo Bank's headquarter(1922) and partly opening of a railway(Gyeongnam, 1922), Yesan became more advanced constructing both a political venue for a military police, a county office, et cetera, and then an educational place for schools. In conclusion, such urban phenomena shows there would be a dual combination between Korean people(aboriginal landowners and intellectuals) in autonomous efforts and Japanese officials in heteronomous controls. This thesis further contends that Ho-Seo Bank architecture itself reflects their status in the locality, who envisioned a 'cultural equality,' competing with Japanese aggressors, and its firm and massive form shows a new building type of bank architecture, literally representing the safeness and firmness, so differentiated from other buildings with the 'Secession' style in colonial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world powers.

Keywords : Yesan(Korea), Ho-Seo Bank(HQ), Modern City, Secession, Marketplace

Corresponding Author : Kim, Young Jae, 376-10, Daebang-dong, Dongjak-gu, 156-809, Seoul, Tel : +82-2-815-3975, E-mail : kyjwow@gmail.co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독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는 "돈은 모더니티의 종교이다"라고 하였다[1]. 이는 돈이 신용이라는 믿음 하에서 지속적인 존재와 번영을 약속받는 것이 성당이나 교회에서의 믿음이 하느님이라는 신성한 신용보증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 믿음과 힘의 결과로서 과거 성당과 교회가 모든 도시중심에서 도시경관을 지배했던 것처럼, 은행 또한 현대사회에서 그 힘과 영향력에 힘입어 근대적 도시경관형성에 중심역할을 했다. 대한제국시대에 새로운 금융체계로서 도입된 은행은 자본주의경제를 표상하는 근대적 건축유형이었으며, 반면에 일제강점시기의 은행은 경제적으로 한국인의 자본수탈을 위한 중요한 창구였다. 그러나 은행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수단이나 일제의 식민주의적 잔재로만 치부하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에서 전개된 다양한 표상을 정확히 읽어 내는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즉, 이 논문에서 다룰 호서(湖西)은행 본점은 일제의 경제적 영향이 아닌 조선후기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성장한 순수토착지주들에 의해 설립되고 경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제가 설립한 은행들과 그 성격을 분명히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들에 의한 자발적 역할분담에 의해 건립된 호서은행은 일제에 의해 주도된 타율적 도시정책과 대응해서 "자율적 노력을 통한 시민의 공간"과 "타율적인 지배를 위한 식민의 공간"이 중첩된 도시경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2]. 게다가, 안톤 펠러와 나카무라 요시헤이에 의해 설계된 호서은행본점의 건축형식은 당시 대부분 은행건축물이 고전주의복고풍이었던 것에 반해[3], 20세기초 유럽에서 유행했던 세제션풍(Secession/Sezession, '제체지온'이라 부르기도 함)이라는 새로운 건축양식이었다.

그림 1. 호서은행 1913년 창립건물

그림 2. 호서은행 휘장/출처_ 조흥금융

이것은 설계자와 설립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호서은행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서은행본점의 입지배경과 은행설립을 통해 나타난 도시적 의미를 세 가지 측면으로 주목하였다. 먼저, 호서은행 설립이 일제에 의한 타율적인 지배의 산물이 아닌 "순수토착지주의 자본"으로 설립된 자율적 선택의 산물이었음을 밝혀내고, 두 번째로는 예산지역 호서은행본점이 입지하게 된 배경을 정량화된 수치를 통해 이해하고, 세 번째로는 예산이 근대적 도시공간으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호서은행본점의 입지가 갖는 도시적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논문에서는 다룰 호서은행본점은 안톤 마르틴 펠러(Anton Martin Feller, 1892~1973)와 나카무라 요시헤이(中村與資平, 1880~1963)가 1922년에 설계한 건물만 대상으로 한다[4]. 1913년에 예산읍 본정통에 창립당시 본점건물은 본래 은행용도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다. 한옥을 은행건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한인이 주도된 일반은행의 특성 중에 하나였다[5](그림1).

---

1) Edwin Heathcote 2000, Bank Builders, Wiley-Academy, p.8.

2) 이 논문은 본 논문의 저자(김영재, 김득수)가 발표한 초기 연구성과인 다음의 논문과 연장선상에 있다. 김득수 · 한동수 · 김영재 2007,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도시공간 구조와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8권, 3호, pp.21-38.

3) 김영재 · 한동수 2010, "조선은행 해외지점의 설립배경과 건축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11호, pp.163-174.

4) 나카무라 요시헤이는 1880년에 일본 시즈오카(靜岡)현에서 태어났으며, 1905년 동경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타츠노 킨고(辰野金吾, 1854~1919)가 운영하는 타츠노 카사이사무소(辰野葛西設計事務所)에서 도제생활을 시작했으며, 조선은행본점(한국은행)설계에 참여하면서 타츠노의 설계방식과 건축구법을 익혔다. 1922년 구미여행 후, 나카무라는 일본 동경에 안톤 펠러와 함께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반면에 안톤 펠러는 오스트리아 티롤(Tyrol) 출신으로 취리히 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다녔고, 1차대전참전중 러시아의 포로가 되었다. 러시아 혁명시기에 탈주해서 서울에 왔고 조선은행간부였던 기독교청년회(YMCA)의 니와 세이지로(丹羽淸次郎)의 소개로 1917~18년경에 나카무라건축사무소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의 건축작품과 그 특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김영재 2013, "나카무라 요시헤이의 서양건축양식의 수용과정과 그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9권, 5호, pp.159-170.

5) 한성은행(1897)은 단층한옥이었으며, 대한천일은행(1899)는 중층한옥, 한일은행(1906)은 양풍건물의 몸체에 기와지붕을 덮었다. 또한 호서은행이 시작부터 한인자본을 토대로 설립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일제자본은행이 양풍식건축물로 개점을 했다는 점과 구분된다. 박대준 · 주남철 2002, "우리나라 銀行建築의 변천에 관한 史的 考察",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2호, p.91.

1927년에는 호서은행은 천안경남광업(1921년 병합)의 흑자로 인해서 천안으로 본점을 이전하게 된다. 천안점은 단순화된 네오르네상스(팔라쪼)풍으로 입면을 구성했다. 이것은 기존의 은행건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양식이었다. 호서은행의 건물구조, 사용된 재료, 건축면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95년 보수공사를 위해 제작된 삼십 여장의 「현황도면」과 「계획도면」(당시 충청은행 예산지점)을 참고했다[6]. 부가적으로 호서은행의 설립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韓國各府郡市場商況調査書(1909), 朝鮮地誌資料(1919), 朝鮮總督府忠淸南道統計年報(1913년 현황, 1915년 발행), 忠南産業誌(1921), 朝鮮の市場經濟(1929), 金融組合要覽1-4編(1922~1932), 湖西銀行 第二十五期營業報告書(1925), 忠淸南道發展史(1932), 朝鮮の市場(1941), 朝鮮金融年報(1943), 조선총독부관보(1913~1931), 매일신보 · 동아일보(1913~1931) 등을 참조했다.

2. 호서은행의 개요

2.1. 도시적 측면

1913년 호서은행창립당시의 건물(현 동화루)은 예산 본정통내 상업용 한옥을 매입해서 그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했었다(그림1). 이는 창립초기에 주변 상인들과 원활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호서은행이 새로운 본점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는 원래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1911년의 지적을 보면 주황색의 호서은행부지와 그 주변은 모두 밭이었다. 주거와 상업용도인 갈색과 논이었던 노랑색과 대비된다. 1922년 이후의 지적은 호서은행 주변이 구획정리가 되어서 공공건물 또는 주택들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밭이었던 호서은행 서쪽 건너편에는 주재소가 입지했고, 논과 밭이었던 남쪽면에는 사각형 소규모필지로 분할되어 주택이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그림3). 1922년에 면사무소로부터 4,500원에 매입하여 동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했다. 본정통내의 창립지 건물은 회의실로 사용되었다. 호서은행은 동일은행, 조흥은행, 충청은행, 충청하나은행 등을 거쳐서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입주해 있다. 여전히 현재까지 은행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군민을 위한 영화관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신축된 호서은행은 지적도상에서 보면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5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덕산, 홍성, 공주를 잇는 2등 도로[7]가 만나는 삼각형대지위에 사다리꼴형 평면을 배치했다. 기존의 대지형상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전면성의 강조와 시민을 위한 공개공지를 의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윤봉길의사의 기념비와 소나무가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그림3, 그림4).

1911년 신축 전

1922년 신축 후(1930년대 지적, 증축포함)
그림 3. 호서은행 입지

2.2. 건축적 측면

신축된 은행본점은 지상2층에 대지면적 1,286.66㎡ 위에 건축면적 395.93㎡(설립당시 291.24㎡)과 연면적 687.17㎡(582.48㎡)을 차지하고 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를 혼용하고 있다[8]. 기둥은 철근콘크리트조이며, 외벽체는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벽돌조적(1.5B~2B쌓기)을 하고 모르타르로 마감했다[9]. 건물 기단부전체는 화강석마감을 했고, 파사드면에는 출입구 양편의 4각의 오더기둥과 박공면 등에 화강석붙이기를 했다. 계단은 화강석 통돌마감했다[10]. 그리고 2층 창의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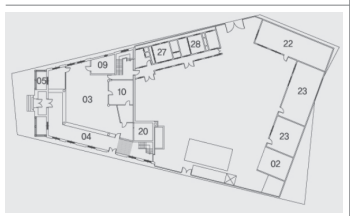
6) 1995년 국가기록원자료에서도 보수관련 서류가 있다. "예산 호서은행 현상변경에 따른 착공계 제출"과 "구 호서은행본점 보수공사관련 민원사항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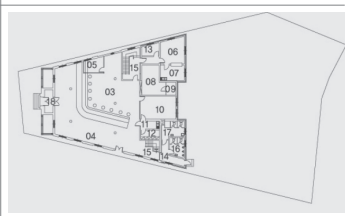
7) 1911년 4월 道路規則, 1913년 5월 道路취선규칙을 제정해서, 도로표준을 1등(노폭 7.3m), 2등(노폭 5.5m), 3등(노폭 3m) 등 각각 4종류로 나누고, 도로성격과 축조 및 유지수선에 있어서 차등을 두었다.

8) 나카무라 요시헤이는 호서은행에서 적용이전에 이미 한국은행(1907-12), 안산철광소 관련 시설들(1918-19), 조선은행대련지점(1920)에서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를 혼용하는 구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우시노 미사오는 1924년 당시 일본과 구미의 은행건축현황을 토대로 사용된 철근콘크리트조 구법을 3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벽돌모양으로 또는 (둘째) 돌모양으로 외벽을 두꺼운 철근콘크리트로 만드는 것, 셋째로는 철골조의 방식으로 기둥과 보를 철근콘크리트로 조영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대부분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언급하였다. 호서은행도 세 번째 것에 속한다. 中村與資平 1945, 1989, 「自伝」, 松市立中央図書館, 浜松が生んだ名建築家; 牛尾美佐雄 1924, "銀行建築の計劃に就て(二)", 「朝鮮と建築」, 第三輯, 第四號, pp.24-26.

1922년 준공식때 사진「開關」1922.12.1

최근 모습(필자 : 1995년 보수공사 이후)


1995년 보수공사 전(원형+후면증축)


1995년 보수공사 후(철거후 후면증축)

03/04 영업장/객장, 06/07 식당, 09 금고, 10 점장실, 27/29관사(증축), 18 방풍실, 20 서고, 23 창고

그림 4. 호서은행본점, 1922년 설립당시와 현재 비교

아치와 세로창 사이의 벽면을 따라 적색치장타일 세워 쌓기를 해서 띠형태로 2겹(1층 기단상부는 1겹)을 둘렀는데 이것은 그의 스승인 타츠노 킨고의 영향이다[11].

오스트리아 · 독일 세제션풍 건축의 특징인 출입구지붕의 플랑드르풍 박공, 바로크 파사드가 추상화된 동판지붕(돔과 맨사드) 및 조각(탄소성)적인 입면구성을 통해 전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나카무라의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오스트리아인 안톤 펠러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12]. 또한 건물전면의 바로크돔 하부에 격자패턴으로 화강석붙이기에 의해 치장된 벽면중앙에는 호서은행의 휘장이 박혀있었다(그림2).

현재 신주마크는 제거되어 있으며, 원형받침석(화강석)만이 남아 있다(그림4[1922년 사진에 휘장의 존재가 확인됨]). 현재의 평면과 입면은 과거의 원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건물의 호서은행시기 유일한 사진인 1922년 11월 준공식때 모습에는 곡선으로 면처리된 정문박공면에는 호서은행 상호가 확인된다. 1995년「현황도면」에 따르면 창호는 돌출된 전면의 2층부의 창호(미서기)를 제외하고 모두 목조오르내리창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는 모두 미서기창으로 교체되었다. 돌출된 전면 2층부는 이전에는 별실이었으나 보수공사를 하면서 회의실과 합쳐졌다.

더불어 건물 뒷편에 있던 한옥관사와 창고 등도 객장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철거되었다. 그 확장된 공간에는 금고실, 식당, 점장실 등이 들어섰다(그림4). 본점건물은 1층 층고가 5.78m, 2층 층고는 4.71m이며, 지붕층은 중앙돔을 포함해서 5.78m로서 총 15m가 넘는 높이를 가지고 있다.

1922년 건립당시 이 건물은 예산읍내의 3~4m정도의 층고를 갖는 다른 건물보다도 훨씬 높았다. 따라서 파사드의 정문, 돔과 맨사드지붕, 반짝이는 호서은행휘장 등은 홍성방면에서 예산읍내로 들어오는 길목에서부터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3. 한국에서의 은행설립과 그 전개

3.1. 근대적 은행설립

표1과 같이 일반은행의 설립, 통합, 흡수 등을 통해서 호서은행과 동시기에 운영했던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정리한 것이다. 표를 통해서, 1912년에서 1940년대 사이에는 일제의 금융정책변화에 따라서 1943년 이후에는 일반은행은 조흥은행과 조선상업은행만이 남게 된다[13]. 즉, 조흥은행은 한인들이 운영한 호서와 한일을 통합한 동일은행(대표 : 민규식(閔奎植))을 전신으로 호남과 한성은행(대표 : 쿠보 히게카즈(久保秀一))을 합병한다. 반면에 조선상업은행의 경우, 대한천일은행이 일본인들에 의해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1911) 조선실업, 삼화, 대동, 북선상업, 대구상공은행 등을 흡수 · 통합했다.

9) 이러한 방식은「工業大辭書」라는 일본백과사전에서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와 결합된 콘크리트기초와 관련 사항, 기둥, 슬라브, 보와의 결합과 관련된 사항 등이 디테일도면과 더불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同文館 1909,「工業大辭書」, pp.3907–3911.

10) 건물구조, 사용된 재료, 건축면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95년「현황도면」(당시 충청은행 예산지점)을 참고했다.

11) 이러한 띠장식을 타츠노식이라 부른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김영재 2013, op. cit. pp.161–162, pp.164–165.

12) 이것은 안톤 펠러와 나카무라 요시헤이와의 협업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Ibid.

13) 한인토착자본가들이 주도한 은행은 강점이전에는 대한제국 정부관료와 경제를 주도하는 상인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강점이후에는 한국정부와 관련 없는 지방에 본거지를 둔 한인지주와 상인들과 그들의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반면에 일본계은행은 총독부와 일제식민정책을 위해 설립된 일본자본에 기반한 은행이다. 장기돈 1998, "개항이후 일반은행의 생성에 관한 고찰",「지역사회연구」, 6권, 1호, pp.94–5, pp.103–104.

〈표 1〉 호서은행과 일반은행계통(진한글씨 : 호서은행관련)

1897–1911	1912–1928		1929–1942		43 이후
한성(1897)	한성		한성(1897–43)		조흥은행 (1943–) 한성과 동일통합후, 조흥은행 으로개칭
	해동(1920–30)				
	대구(1913–28)		경상합동 (1928–43)		
	경남(1912–28)				
한일(1906) 호서(1913)	한일(1906–31)		호서은행과 한일은행의 통합이후에 동일은행으로 개칭 (1931)	동일 은행	
	호서은행(1913–31) **• 예산본점창립(1913)** **• 광천지점(1917)** **• 안성지점(1919)** **• 천안지점(1919)** **• 홍성지점(1921)** **• 예산본점신축(1922)** **• 경남광업병합(1920)** **• 천안본점신축이전(1927)** **• 충남제사공장(1927)** **• 장호원지점(1928)** **• 대천지점(1928)** **• 온양온천지점추진(1930)**				
	호남(1920–42)		동일은행에 합병		
	동래(1918–33), 호남에 합병				
대한천일 (1899) 일제가 조선상업은행으로 개칭 (1911)	조선상업(1911)		조선상업 (1911–)		조선상업은행 (1911–)
	원산상업(1919–23)				
	조선실업(1920–24)				
	삼화(16–21)	대동 (21–25)			
	평양(20–21)				
	신의주(1917–23)				
	삼남(1920–28)				
	북선상업(1918–33)				
	부산상업(1913–35)				
	경일(1920–33)		대구상공		
	경상공립(1920–30)				
	선남상업(1912–33)				
밀양	밀양(1907–33)		폐점		

• 시대구분 : 1912년 은행령제정/1928년 신은행령공포/두 은행만 남은 1943년 이후
• 한일은행은 1920년대까지 호서은행과 더불어 한국인자본으로 운영된 은행임.
호서은행과의 통합이후(1931. 2. 21) 동일은행으로 개칭함.
• 대한천일은행은 처음에는 한국인 은행이었으나 경영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감.

출처 : 朝興銀行六十年誌, 1957 ; 韓國商業銀行六十年誌, 1959 ; 朝鮮銀行會社合資要錄, 1931, 1940 ; 朝鮮金融事項參考書, 1925.

일제가 대한제국을 본격적으로 침탈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설립한 것이 행정관서 계통인 관리관청이었으며 그 다음이 민간인주도 은행개설이다. 이것은 일제가 영국, 미국 등 서양열강들이 추구했던 관청과 민간이 일체가 된 식민통치체제를 중요한 선례로 삼고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즉, 지배지 통치를 위해 파견된 담당자들에 의해서 정치, 행정, 군사 등의 관리가 이루어졌던 반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지배지에 유입된 민간인들이 담당했던 것이다[14].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간인들이 주도했던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물이 은행이었다. 그래서 일제가 강점 직후에 첫 번째로 추진한 것이 조선회사령(1910년 12월 30일 회사설립 통제 및 정지/해산 법제화)공포이며, 1911년 대한제국의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개칭하고 조선총독부의 중앙은행으로 삼은 것이었다.

1912년에는 일본계민간자본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령」을 개정공포해서 일본인자본과 한국인자본의 단독 또는 공동출자에 의해 지방은행들이 전국 각지에 설립이 가능하게 했다[15]. 이 과정에서 대구선남은행, 호서은행 등이 설립되었다[16]. 이것은 이미 식민지 지배를 위한 특수금융기관이 자신들의 보호 하에 있고, 일인계은행들은 이미 침입을 완료했고, 조선인회사 설립을 봉쇄시킨 상태이며, 조선벽지까지 식민지특수금융기관이 잠식했으므로, 한국인에 의한 소규모 은행설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3.2. 호서은행 설립과 전개

호서은행은 일본인직원과 일본인에게 대출금도 없었기 때문에 경영면에서 일제가 관여하지 않았다. 설립이후에 공주, 홍성, 서산, 아산, 온양 등지에 사는 주민 5천여 명의 거래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동안 한국경제의 전무후무한 호경기와도 관련이 있다. 계속해서 충남상사(忠南商事)와 충남제사공장(忠南製絲工場)을 1918년과 1927년에 각각 자매회사로 설립하면서, 그 사이에 1921년 1월 6일 천안에 있던 경

14) 西澤泰彦 2008, 「日本植民地建築論」, 名古屋大.出版., p.119.
15) 은행령 이전에는 4개였던 보통은행은 1913년 말에 11개로 급증한다. 호서은행도 이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16) "湖西銀行의 設立을 許可하다", 조선총독부관보 1913.3.4.; "호서은행 영업인가서", 신청일자 1913년 6월7일, 허가일자 6월 10일.
17) 鮮總督府 財務局 1928, 「朝鮮金融事項參考書」, pp.53–54. 1928년에 발행된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는 한성, 한일, 호남과 같은 다른 은행들의 자본금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이들 은행의 공칭자본금은 1913년 7,290천엔에서 1930년엔 26,425천엔으로 3.6배로 증가했다. 호서은행은 원년 3,000천엔에서 200,000천엔으로 7배정도 증가했다. 반면에 이들의 납입자본금은 1913년 하반기에 1930년 하반기까지 보통은행의 납입자본금은 3,171천엔에서 14,721천엔으로 4.6배정도 상승한데 반해서 호서은행은 75천엔에서 1,150천엔으로 15.3배로 급상승했다.
18) "湖西銀行新建築", 동아일보 1921. 8. 29.
19) "湖西銀行新築移轉", 동아일보 1922. 11. 2.
20) 1927년 8월 18일에 인가가 나서 10월중에 천안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湖西銀行移轉", 동아일보 1927. 9. 1.
21) "湖銀支店設置 온양온천에", 동아일보 1930. 9. 8.
22) 특히 11월7일자에는 "韓一湖西兩銀合同說 湖西地方에 미치는 影響如何"과 "韓一, 湖西兩行 合同說에 對하야 (一)"라는 제목의 두 논설을 실었다. 첫 번째 논설에서는 합병 후의 영향을 언급하고 이러한 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첫번째로, …(서로 간에) 대등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은행이 도시은행에 병탄되는 결과가 되며, 자본의 도시집중은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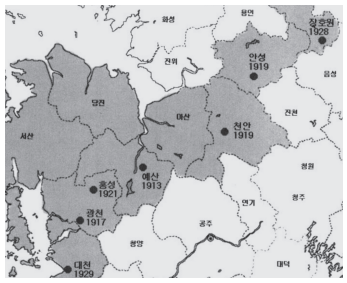


그림 5. 호서은행 지점과 영업소

남광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총자본금 2백만엔, 불입자본금 72만 5천엔으로 증가하는 등 실적이 매년 향상되었다.

1928년에 발행된 「朝鮮金融事項參考書」에 따르면 호서은행이 창립된 1913년부터 1928년까지의 공칭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원년에는 각각 30만엔과 7만5천엔으로 시작해서 1919년에는 100만엔과 72만5천이었으며, 1928년에는 2백만엔과 1백15만엔으로 다른 보통은행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17]. 이러한 높은 실적을 토대로 광천(1917년 8월 1일, 군산항 수송거점), 안성(1919년 10월 16일), 천안(1919년 1월 10일, 경부선연변 상업권 · 영업권역 흡수), 홍성(1921년 3월 22일) 등에 지점을 개설함으로써 경부선일대로 영업영역을 확장하였다[18](그림5). 그리고 예산 본정통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던 1913년부터 사용한 본점건물을 매각하고 읍내 출입구로 인식되는 삼각형대지에 본점을 신축했다[19]. 1927년 10월 1일에는 천안경남광업의 흑자로 인해 불입자본금이 1백15만엔으로 증가하자 천안지점을 본점으로 삼고 이전했다[20]. 이어서 청미(1928년 10월 27일 장호원읍으로 개칭(1941년 10월 1일)와 대천(1929년 12월 2일) 등에 지점을 더 개설했다. 1930년에는 온양온천지점이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21].

1930년 하반기 호서은행은 6개의 지점(한일은행과 병합전)이 있었다(그림5). 온양온천지점이 개설되지 못한 이유는 1929년 10월 24일 뉴욕증권거래소 파탄, 세계공황이 시작되고, 이어서 1929년의 미곡가격 대폭락으로 대다수 거래처가 타격을 받음으로써 영업부진으로 자금경색을 겪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신현상(申鉉商, 申斗淳 부친)의 독립운동자금사건을 계기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한국인이 설립한 은행 가운데 한일은행과 1대1 자격으로 합병을 종용한다.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1930년 11월 7일~9일)에서는 3일 동안 세 번에 걸쳐서 호서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에 대한 비판사설을 실었다[22]. 연이은 3일간의 사설에서 합병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다루었다.

먼저, 도시와 지방은행간의 합병은 각각의 은행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합병이유가 자금의 대부목적이 아니라 지방예금의 흡수가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로간의 익숙하지 않은 행정 및 인사체계 등은 부정이 생길 수 있으며, 대인신용보다는 물적 신용을 중시하는 한일은행의 성격은 기존 호서은행을 이용하는 소규모 농상공업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1년 1월 21일에 동일은행으로 강제합병 되었다[24]. 이어서 1943년에 한성은행(1897년 설립, 1903년 일본인이 인수)과 합병하면서 조흥은행이 된다[25]. 이처럼 철도도 없는 열악한 상황(1922년 6월 경남철도부설, 군산까지는 미개통)에서 농촌도시 예산에 입지한 호서은행이 일제의 철저한 식민지 금융정책 밑에서도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철도개통 후에 예산과 선장포구와 인천을 연결하는 기존 유통로가 쇠퇴했음에도, 그리고 일제의 주도로 경남철도를 통해서 군산, 예산, 천안, 만주까지 새롭게 유통망이 재조정되었음에도 호서은행이 10여 년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지역이 상업 및 경제영역이 매우 견고했음을 의미한다.

다음호에 계속

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필연의 형세요. 자본발달, 그 합리화의 과정으로 보아 이번의 합동을 정당화를 논하는 것은 조선의 실정을 모르고 조선인의 상공업계의 특수성을 저버린 논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합병의 재고를 요구했다.

23) 동아일보(1930. 11. 7~9)에서는 3일 동안 세 번에 걸쳐서 호서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에 대한 비판사설을 실었다. "韓一, 湖西兩行 合同說에 對하야(一)", 동아일보 1930. 11. 7.; "韓一, 湖西兩行 合同說에 對하야(二)", 동아일보 1930. 11. 8 ; "韓一, 湖西兩行 合同說에 對하야(三)", 동아일보 1930.11.9. 1930년 11월 25일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호서은행을 해산하고 한일은행과 합병키로 가결되었다. "湖西銀行總會 散을 可", 동아일보 1930. 11. 27

24) 1928년 금융공황 중에 발표된 '신은행령'은 은행 자본금의 최저한도가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인은행.지방은행의 설립을 제한하고, 은행 간의 합병을 강요했다. 그리하여 1930년 한일은행과 합병하여 동일은행으로 재편되었다. 동일은행은 불입자본금 277만 5,000원으로 두취(頭取:은행장)에 민대식(閔大植), 전무 성낙헌으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실적이 부진해지자 총독부는 이를 구실로 1934년 4월 조선은행(朝鮮銀行) 직원인 이치가와(市川眞次郎)와 미타니(三谷俊博)를 동일은행 취제역(取締役 : 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경영권이 일본인의 손에 넘어갔다. 이러한 방법은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의 합병에서도 적용되었다. Ibid. ; "財界山脈 近. 100년 산업과 인물 〈470〉 湖西銀行(호서은행) ⑤", 동아일보 1982.12.25.

25) 이러한 일제의 금융기관 통합작업으로 말미암아 1940년에는 식민정부의 중앙은행인 조선은행, 농공은행의 모체로 1917년에 설립된 조선식산은행, 대안천일은행에서 각 지역의 상업은행을 합병한 조선상업은행, 한성과 동일은행을 통합한 조흥은행만이 남게 된다.

연재. 건축과 삶 ③

글. **유현준**_ Yoo, Hyunjoon
•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건축과 정치

Architecture and Politics

하버드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다. 하버드대 졸업 후 리차드 마이어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장과 MIT 교환교수를 역임하였고,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한국건축가협회 베스트7, 젊은건축가상, 건축문화공간 대통령상 외 5번의 국제현상설계에서 수상했다. 미국 건축사(AIA)이며, 현재 Hyunjoon Yoo Architects 대표다.

피라미드와 정치

건축은 예로부터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다. 다 알다시피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 자신의 엄청난 권력을 이용해서 피라미드라는, 개인의 무덤치고는 너무나 사치한 건축물을 남겼다.

그렇게 한 이유에는 대형 토목공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정하려는 이유가 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나일강 삼각주에는 농사가 쉬웠고,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잉여식량이 생산되었다. 식량과 시간이 남으면 자연스럽게 문명의 싹이 튼다. 그렇게 이집트 문명은 발생했지만 동시에 식량과 시간이 남으면 기존 권력에 반기를 드는 세력도 싹트게 마련이다.

우리는 보통 피라미드는 노예가 건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억압받은 노예가 아니라 왕족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는 전문건설인력에 의해서 건축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증거로 노동자를 위한 신도시가 피라미드 옆에 있었고, 그곳에서 출토된 유골에서는 골절 당했을 때 왕족과 동일한 치료를 받은 흔적이 발견됐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피라미드는 왕이 세금으로 얻은 엄청난 경제력을 이용해서 유휴노동력을 대형 토목사업에 사용하는 경제순환구조를 만든 경제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이집트 판 뉴딜 정책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되면서 동시에 왕권을 유지시키는 권력 유지의 시스템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들은 또다시 왕권에 대한 존경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듯, 건축은 순수한 예술이라기보다는 경제, 정치, 권력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건축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여 대형제국을 건설한 대표적인 실례가 로마제국이다. 로마는 남부유럽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갔고, 그리스로부터 전수받은 건축기술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했다.

로마가 서양건축에 기여한 바는 볼트구조와 벽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마인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해서 벽돌을 굽고, 이를 이용해서 아치와 볼트구조를 사용해 로마의 기본적인 건축물들을 전 유럽에 만들었다. 유럽의 도시들은 크게 로마가 만든

피라미드

콜로세움

도시와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로 양분되는데,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신전과 콜로세움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신전과 콜로세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사용하여 로마는 유럽 전체에 그 지역 사람들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면서도 동시에 로마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로마는 건축을 권력통치의 수단으로 아주 잘 사용한 나라인 것이다. 중세에 와서는 교황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성당을 짓고, 글을 읽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건축공간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했다. 성직자와 일부 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유럽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로새겨진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된 고딕 성당공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이 되었을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과거 왕과 교황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자본가들과 정부가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권력분권의 시대적 흐름은 르네상스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과거에는 교황과 왕이 가장 부자이면서 동시에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르네상스시대 이후 시민들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자본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는 새로운 세력이 생겨났다.

최초의 다국적기업은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같은 이태리 도시국가의 유명집안들이었을 것이다. 당시 메디치 가문은 현재 의약품을 지칭하는 메디슨(Medicine)의 어원이 메디치인 것을 보더라도 약재상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권력이 되고, 이는 건축문화에도 반영되게 된다. 그 흔적은 현재까지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 현대 도시들의 랜드마크가 되는 대형건축물들을 보라. 오래된 도시는 교황이 만든 성당, 조금 덜 오래된 도시는 왕들이 만든 왕궁, 그 이후에 성장한 신흥도시들은 다국적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만든 대형기업 사옥들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형자본은 모두 은행과 투자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들을 움직이는 기관은 금융기관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이들의 규모는 너무 커져서 세계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정부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든 세력이다.

그 권력의 실체는 결국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금융회사가 소유한 사옥들이다. 규모면에서 건축을 바라보았을 때도 이처럼 정치, 경제, 권력, 건축의 연관성이 보인다.

디자인 측면에서 보아도 정치와 건축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다시피 90% 이상의 건축물들은 디자인을 하는 건축사에 의해 설계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지어진다.

세계 건축계를 리드한다고 하는 뛰어난 건축사들의 작품 역시 정치적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난 30년의 건축계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냉전시대와 건축

우선 우리가 중학교 교육만 받으면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의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자. 20세기는 제국주의패권이 팽배했던 전반기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세계대전 이후의 후반기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새로운 20세기 후반기를 6.25 한국전쟁으로 시작하였다. 당시 사상자 수는 6백만 명으로, 작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숫자였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세계는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시대로 접어든다.

유럽의 연합국들은 세계대전으로 워낙에 폐허가 되었기에 기존 유럽열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미국이 차지하게 된다.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면서 전무후무하게 대서양과 태평양 두 개의 대양에서 치러진 전쟁에서 승리를 한 국가가 된다. 이로써 아시아 본토를 제외한 지구의 대부분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게 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의 빈자리는 소련이 차지하게 되면서 두 개의 강대국은 세계의 절반씩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다. 이 두 세력은 한반도라는 "무대"에서 심하게 충돌했고, 아직까지도 한반도는 남북분단이라는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는 이후에 60년대와 70년대에 베트남을 무대로 두 번째 충돌을 하게 된다.

20세기 후반부 30년 동안 아시아대륙의 두 개의 반도에서 두 번의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는 냉전시대의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한 이유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20세기 후반기를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과거 선사시대나 역사 초기가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석기시대 때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살인이 자행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20세기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실은 이전의 전쟁과는 달리 언론시스템의 발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뉴스를 통해서 이 전쟁과 인명피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부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국민들에게 상대방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교육시켰다. 그랬기에 더욱 더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데올로기에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과 프랑스는 심하게 학생운동을 겪었고, 한국에서도 80년대에 대학생활을 보내신 분들 역시 데모, 최루탄, 주체사상 등의 이야기 속에서 대부분의 대학생활을 보내었다. 그리고 그중 소수의 학생들은 종교적인 이념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어떠한 색깔과 종류이건 물질보다는 이념과 사상이 중요한 시대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중심의 패러다임은 건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이 당시의 건축은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철학적 이념으로 건축을 설명하고 "영도"하려고 했던 시대였다. 한마디로 이념이 물질을 압도하던 시대였다.

소련의 붕괴, 컴퓨터 그리고 건축

이러한 "이념의 시대"가 지배한 20세기 말의 건축은 소련의 붕괴와 PC의 등장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80년대와 90년대는 이념 즉, 이데올로기의 시대였고 따라서 건축에서도 해체주의 철학을 내세워서 자신의 건축을 포장한 '피터 아이젠만' 같은 건축사들이 학생들에게 각광을 받았었다.

당시의 분위기는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건축에 대해서 논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건축을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은 철학과로 편입해서 다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였으며, 그런 방식이 올바르게 건축을 공부하는 길이라고 믿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 패러다임은 1991년 소련의 붕괴를 기점으로 바뀌게 된다. 이데올로기 양대 산맥의 한 쪽인 소련의 몰락은 곧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전 세계 패권 장악을 말한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미국식 자본주의는 절대적인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레이건 정부 때 자유시장의 극대화를 틈타서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낸 젊은 여피(Yuppie)들이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동안 사람들의 관점도 바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건축을 이념으로 세워보려는 시대도 함께 저물어 갔다.

바야흐로 시대의 패러다임은 정신 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로 옮겨가고 있었다. 80년대 후반에 대학생활을 시작해서 90년대 초반에 졸업을 한 필자는 이 시대의 변화를 몸으로 절감하면서 다녔다. 신입생시절에는 차를 몰고 학교에 오거

베르나르 츄미의 라 빌레뜨 공원

나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미안해하던 분위기의 학교였다. 그러던 분위기가 90년대 초반에 학생회장으로 비운동권 학생이 당선되고, 부자인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분위기로 캠퍼스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이루어진 변화이기도 했지만 냉전시대에서 자본주의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흐름을 타고 일어난 변화이기도 했다. 이러한 자본주의라는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서 건축의 흐름도 바뀌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어려운 철학으로 자신의 건축을 설명하던 아이젠만은 지고 자본주의를 등에 업은 '렘 쿨하스'가 사람들의 추앙을 받기 시작했다. 렘 쿨하스는 자신을 자본주의의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한다. 이 같은 비유는 자본주의 시대에 렘 쿨하스 자신을 세일즈하기 위해 잘 만들어진 포장지였다.

90년대에 또 다른 움직임은 PC를 통해서 시작된 IT기술혁명이다. PC의 보급으로 건축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축사는 '피터 아이젠만', '프랭크 게리', '자하 하디드'라고 볼 수 있다. 아이젠만은 Autodesys와 협업하여 Form Z를 개발하고, 이를 자신의 건축에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건축을 만들어내었다. 하지만 본인의 성향 상 이러한 컴퓨터에 의존한 형태에 대해서도 구구절절이 철학적 설명을 하는 버릇은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건축사로 남아있게 된다.

반면 프랭크 게리와 자하 하디드는 이념의 도움 없이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컴퓨터를 도구 삼아 자유스럽게 만들어 내면서 주목받게 된다. 하디드와 아이젠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신의 건축을 해체주의라는 이념으로 포장해서 팔려고 했을 때는 지어진 건축이 거의 없다. 이념의 건축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하디드가 이념을 버리고 IT건축사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했을 때, 비로소 그의 건축이 팔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 건축은 이념 중심의 건축에서 물질 중심의 건축으로의 축의 전환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건축을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건축"이라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념 중심의 건축에서 물질 중심의 건축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은 건축 본연의 모습인 텍토닉 중심의 건축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건축 재료와 물질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었기에 그 지역에서 채취된 돌을 가지고 만든 '캘리포니아 양조장'을 디자인한 '헤르조그 드 뮤론'이나 단순한 형태이지만 물성을 가지고 훌륭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터 줌터'같은 건축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건축사로 부상할 수 있었다.

경제위기와 건축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시작된 자본주의 건축은 2007년 미국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막을 내리고 새로운 건축적 패러다임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때부터 자본주의 건축사들도 함께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의 슈퍼파워로 등극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등장은 미국식 자본주의 독주의 종말을 알리는 듯 했다. 2012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중국 건축사가 받은 것은 이러한 커다란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후로 현대에는 친환경과 더불어 일본에서 시작된 공동소유의 개념이 도입된 건축이 나타나면서 확연히 90년대식 자본주의 건축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전개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탈자본주의 혹은 신자본주의시대 다음의 패러다임은 어떤 것일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그것이 친환경건축이 될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소유가 도입된 건축이 될지 모른다. 소유보다는 접속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 시대에 어떤 건축의 장이 열릴지는 2030년은 되어봐야 뒤돌아보고서 깨닫게 될 것이다.

제2회 이사회

2014년도 제2회 이사회가 지난 2월 12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조사 · 검사 제도 개선 특별 TFT' 구성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정관 개정의 건, 이사회 규정 폐지의 건, 2013년도 결산의 건,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 수립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관 건립(취득)의 건, 제48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추대회원 추대의 건, 제48회 정기총회 표창 수여의 건, 건축사실무교육 시스템 사용료 인하의 건, 2014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명예회원 추대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조사 · 검사 제도 개선 특별 TFT' 구성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부의안건 |

●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정관개정안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제48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9조(회원의 권리) 제3항 제3호 : 삭제
▷ 제9조(회원의 권리) 제3항 제4호 : '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장이나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정회원'
⇒ '기관, 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장이나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가 인정한 사람'으로 수정
▷ 제16조(의결사항) 제1항 제6호 : 현행 유지
▷ 제21조(임원의 선출) 제1항
회장의 선출은 임기만료 60일에서 30일로 수정
▷ 부칙 제2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를 '이 정관 시행 이전에'로 수정

● 제2호 : 이사회 규정 폐지의 건
– 이사회 규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2013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제48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 수립의 건
– 원안대로 제48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건
– 감사가 제안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이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제48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관련 건축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만큼 일부 예산을 축소하고 법제도개선사업비 예산을 증액
• 국제사업비 중 AIA 총회 참가경비(13,500,000원)는 목존치
• 건축연구원지원금(7,000,000원) 중 3,000만원 감액

● 제6호의안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관 건립(취득)의 건
– 원안대로 제48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7호의안 : 제48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 '이사회 규정 폐지의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순연하여 의제를 결정함.

● 제8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의 건
– 추대회원 대상자(53명)를 원안대로 제48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9호의안 : 제48회 정기총회 표창 수여의 건
– 단체표창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원안대로 승인함.
▷ 최우수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우수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경상남도건축사회
–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개선방안(인센티브, 평가방안의 정량화, 감사의견 반영 등)을 마련하기로 함.

● 제10호의안 : 건축사실무교육 시스템 사용료 인하의 건
– 건축사실무교육 시스템 사용료를 원안대로 인하(3,000원 → 2,000원)하기로 함.

● 제11호의안 : 2014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12호의안 : 대한건축사협회 명예회원 추대의 건
– 원안대로 추대함.
▷ 미이쇼 키요노리(Kiyonori Miisho)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회장

위원회 개최 현황

제1회 임원 · 시도건축사회회장 합동회의

제1회 임원 · 시도건축사회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1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의 건
– 정관 및 제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의견이 있는 경우 본 협회로 제출하기로 함.

● 제2호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회의 종료 후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좀 더 논의한 후 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함.
– 회비 인상에 대한 명분을 비상대책추진사업비 명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차라리 회비 선납 시 감액하는 제도나 추대회원 회비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 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최대한 긴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남북 건축문화 교류협력 사업비(3,000만원 → 1만원) 목존치 등
–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협회 예산지원금 (1억5,000만원 → 2억원) 증액 요청

제1회 정책위원회

제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의 건
–건축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2–13) 과제 추가
▷협회 건축관련 정보 및 자재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화 필요
–남북건축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마련(1–7) 과제 추가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해 협회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건축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4–1) 내용 보강
▷일반 대중에 대한 직 · 간접적인 홍보 강화 필요
•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이 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각 지역 민원센터에 배급 검토
• 라디오를 통해 협회 및 건축사에 대한 공익광고를 실시토록 검토
–국제기구의 활동 강화(5–3) 내용 보강
▷세계 건축사단체와의 교류 다변화를 위해 기존에 접촉한 유럽건축사협회협의회(ACE)와 지속적인 교류 협력 시도
–어린이건축창의체험 및 한옥체험행사 개최(4–8) 내용 보강
▷어린이건축창의체험은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도 시행할 수 있고 마포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 부모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고 많은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시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제2회 정책위원회

제2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관련 대응의 건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함.
가.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지명초청공모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기로 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 여부가 밝혀지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본협회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즉시 시정토록 요구
▷답변이 미진할 시에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하여 항의 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나. 건축사자격이 없는 자가 공공건축가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비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사람도 16명이나 되므로 이번 2014 제2기 공공건축가 선발시에는 이들을 제외토록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함.
▷1차적으로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장에게 직접 개선토록 요구하거나, 본협회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하여 건의토록 회장에게 건의
다. 건축사자격이 없는 자가 '건축사사무소 대표'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사법 위반이므로 해당자에 대해서는 이번 본협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고발 조치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요청함.
● 제2호 :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 검토의 건
–지자체에서 상주감리 등록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건축사보는 배제하고 기사, 산업기사자격을 소지한 자를 요구하므로 등록관리실장에게 실태점검을 요청함.
–아울러 동 사항 이외에도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보 인력수급 방안 마련이 시급하므로, 협회발전기본계획 과제 중 건축사보 관리(6–4) 부분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건축사보의 운영실태 점검' 부분을 보완하고, 건축인력수급 계획(2–14)에 건축사보의 인력수급 개선방안 마련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완하기로 함.

제1회 특별사업(협동조합 및 연금) TF

제1회 특별사업(협동조합 및 연금) TF 회의가 지난 1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제1호 : 협동조합 "캠콥"에 대한 협회의 경영권 연계방안
–협동조합의 경영권 연계방안은 우선 다음의 사항을 1차 방안으로 정하고 다른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 · 논의키로 함.
[방안] 1. 대한건축사협회가 조합원이 되어 협회가 추천한 5명이 당연직 임원이 되도록 함.
2. 16개 시 · 도건축사회가 조합원이 되어 각 시 · 도 회장이 조합의 당연직 임원이 되도록 함.
–협동조합 "캠콥"의 정관 내용에서 경영권 확보사항의 보완, 협회 실정에 맞는 정관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은 계속 검토 · 논의키로 함.
–기타 "캠콥"의 명칭 사용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협동조합의 우수사례에 불과하므로 ( )또는 가칭을 붙이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실체 있는 모델을 가지고 검토 · 논의하는 것이고 이를 왜곡 표기하는 것은 더 많은 의심과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실 그대로 표기하기로 함.
● 제2호 : 창립 리셉션 및 지식 백화점 기공식 개최 계획에 관한 건
–2014년 1월 15일 임원 및 시 · 도회장 합동회의에서 "협동조합 추진전략기획" 사항을 보고한 후 행사 추진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충분한 행사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기를 정하고 추진하기로 함.
● 제3호 : 협동조합 관련 이사 및 시 · 도회장 합동회의 설명자료 협의의 건
–별첨의 "협동조합 추진전략기획"을 이사 및 시 · 도회장에게 설명키로 함.

제2회 특별사업(협동조합 및 연금) TF

제2회 특별사업(협동조합 및 연금) TF 회의가 지난 1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2호 : 협동조합에 대한 추진 방향의 건

–협동조합에 대한 추진 방향은 모든 책임과 투자를 협회가 하고 이를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직접사업과 여타의 기존 협동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내는 간접사업으로 구분하여 위원들 각자의 의견을 물어본 바, 간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함. 다만 직접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의 해소 방안은 계속 검토해가기로 함.

–TF위원회에서 추진방향과 지침을 마련, 서울과 지역의 순회 조합설명회를 통하여 추진하기로 함.

2014년도 제1회 기획위원회

2014년도 제1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건축법 등 개정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사업재원' 약 3억원을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기획위원회 의견을 2014년도 제1회 임원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 건의키로 함.

▷건축법 개정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사업재원 조달방안 건의안

–제1안 : 정회원 월정회비 인상

–제2안 : 총회 승인을 받아 건축문화발전기금 3억원 차입 사용.
단, 2015년부터 정회원 월정회비를 5천원 인상하는 조건

2014년도 제2회 기획위원회

2014년도 제2회 기획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3회계년도 수지결산서안 심의의 건

–2013년도 각 회계별 수지결산서안에 대한 설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함.

● 제2호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중 일반회계부문 추가 검토사항 등을 심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액을 증감 조정함. 기타 10개 특별회계는 2013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을 반영한 예산안 대로 심의 완료함.

※ 건축사교육원회계는 2월 이사회에서 시스템이용료 기준이 변경 승인될 경우, 교육 수수료 수입 감소분만큼 기금차입금을 증액 조정토록 함.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선거사무 추진일정의 건

–선거사무 추진일정(안)에 대해 협의하여 추진일정(안)을 확정함.
아울러, 「후보자 등록서류 검토 및 피선거권 자격심사, 기호추첨 및 후보자 간담회」와 「선거공보 검수 및 선거인 명부확인」을 위한 회의(2014년 1월 28일, 2월 6일)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업무를 소위원회에 위임함.

● 제2호 : 선거사무 세부사항에 관한 건

–선거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의 결정함.

1) 선거공고는 2014년 1월 20일자로 본 협회 및 시·도건축사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함.
2)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4년 1월 21일 ~ 27일까지(공휴일 제외) 하기로 함.
3) 선거공보는 A4규격 양면 1매로 하고, 기타 용지사양, 사진규격, 컬러인쇄 여부 등은 제한하지 않으며 원고 20매를 제출받기로 함.
– 후보자의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으로 함.
4) 선거홍보(운동)는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 인정한 사항에 한하여 허용하고,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후보자 개인별 선거홍보와 정기간행물 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함.
5) 선거공고(안)은 하기(下記) 기타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 확정함.

● 기타사항 : 임원의 임기 단축 관련 정관개정(안)에 관한 건

–금번 회장직선제 관련 정관개정(안)상 현행 임원(회장 외)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는 개정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기와 관련한 후보자의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정관개정안 승인 시 이를 수용한다는 확약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받기로 하고,

–「감사선거 공고문」에도 이에 관한 등록조건을 명기하여 공고하되, 확약서와 공고문 문안에 대해서는 권연하 위원의 검토를 받아 공고하도록 함.

제1회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

제1회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4년도 장학사업 결정

–선발인원 : 10명

–장학금액 : 1인당 300만원(년 1회 지급)

–추천의뢰대학 : 10개학교

▷충북대학교, 홍익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경대학교, 중앙대학교, 공주대학교, 전남대학교, 건국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선정기준 : 2013도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①대상수상자 출신 1개 대학, ②최다작품 출품 1개 대학, ③협회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교 중 작품 다수를 출품(수혜기간 10년 경과된 대학 포함)한 순으로 8개 대학

–추천방법 : 대학소재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해당대학에 추천 의뢰 및 접수

제2회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

제2회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4년도 장학생 심의 결정의 건

–2014년도 협회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심의 결정함.

▷2014년도 장학생

– 김다영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설계학과 4학년 재학생)
– 이승훈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 이석현 (동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 유선희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 조성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 유지한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 정찬호 (충북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 신지은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 윤예지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5학년 재학생)

제1회 인사위원회

제1회 인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기총회 표창대상자 심의의 건

–본협회, 각 시·도건축사회장 등으로부터 추천된 공로회원(외부인사 포함) 및 모범직원상의 추천대상자를 심사하여 아래와 같이 총회 표창대상자 선정하여 회장께 건의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토록 함.

구 분		추천인원	대 상 자
공로회원 등 (공로패 및 감사패)	본협회	6인 (회원)	강승우(국제위), 윤재선(문화홍보위), 이윤정(주거복지위), 황팔수(등산동호회), 임경식(경기), 백상기(충남)
		4인 (외부인사)	홍성준사무관(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기범사무관(국토부 녹색건축과), 장재영과장, 김정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축사회	16인 (회원)	김기훈, 강철준(서울), 송경섭(부산), 최혁준(대구), 박동준(광주), 임성국(대전), 김원효(울산), 한문규(경기), 하금현(강원), 김동일(충북), 이광열(충남), 주영민(전북), 서계원(전남), 임일중(경북), 진병영(경남), 이동기(제주)
		3인 (외부인사)	곽영식(부산광역시청), 정정석(광주광역시 남구청), 신석하(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모범 직원상	본협회	3인	황채영, 홍승연, 이상철
	건축사회	6인	서경순(서울), 전성연(대구), 조요한(울산), 김득중(경기), 이선미(경북), 정재우(경남)

–공로회원(외부인사 포함), 모범직원, 단체표창의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은 각각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심의함.

1) 외부인사 : 국토교통부 주무부서의 사무관 중에서 2인 선정, 회장직선제연구 T/F 자문위원 2인 선정

2) 공로회원

가. 본협회 : 본협회 추천자 3인의 위원회 활동공적 및 협회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표창대상자로 선정

–건축사회에서 추천된 임경식(경기), 백상기(충남) 회원은 업계 전체의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본협회 공로회원으로 추천키로 함.

–등산동호회 추천자 1인도 본협회 추천인원에 포함키로 함.

나. 건축사회 : 각 시·도건축사회장의 추천을 존중하여 전원 선정(외부인사 포함)

3) 모범직원

가. 본협회 : 하위직 안배원칙, 근무성적, 근속년수, 부서별 배정 등을 고려하여 3인을 선정함.

나. 건축사회 : 각 시·도건축사회장 추천 대상자 중 협회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자 중 협회장상 수상경력이 없는 직원을 우선 선정

–추가로 협회장상 수상자 중 수상 이후 5년이상 경과한 자. 다만, 2회 이상 수상자는 제외

4) 단체표창 : 단체표창 건축사회는 이사회에서 협의·결정토록 건의하고, 단체표창의 제정 당시 취지와 수상 건축사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사회 회의자료에 첨부하도록 함.

아울러, 현재 최우수상(1개), 우수상(2개)으로 선정하는 단체표창을 1개 건축사회만 단체표창 건축사회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상향 지급함으로써 단체표창의 영예와 표창수상에 따른 실익이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를 이사회에 건의키로함.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협회 예식임대사업자 부대시설공사 검토의 건

–대강당 카펫 부분교체, 사무실 방화유리문 설치는 법규에 맞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지하철 출입구 게시판에 협회명칭과 예식사업장도 넣을 수 있도록 하며, 예식사업 관련 부대공사는 안택영 위원이 전담하여 추진함.

제1회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제1회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사이버교육 제작방식 및 교안검토의 건
– 사이버강좌 제작방식은 수강생들이 활용하기 힘든 기능보다는 맛보기 기능 및 간편한 부가기능을 추가하여 제작하기로 하되 강의가 돋보일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 "건축사와 프리젠테이션" 과목의 교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교육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시·도건축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 시·도건축사회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스템사용료를 전문교육에 한해 2,000원으로 인하하고, 윤리교육은 무료교육인 경우 시스템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안을 교육원운영위원회 의견으로 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함(단, 금융결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부담하기로 함).

● 기타사항
–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 관리정책 교육 요청은 국토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교육취지를 파악한 후 타 단체 교육 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교육을 개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자재 분야 교육과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인증 우수자재 및 협회 우수자재 추천 대해 교육 가능 여부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차기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제1회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제1회 미래인재육성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설계공모 및 발주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건
–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설계공모 개선안에 대한 미래인재육성위원회의 의견을 '설계발주제도 개선 TF'에 전달하기로 함.

● 제2호 : 정부부처 소속 단체 복수 등록 추진에 관한 건
– 국토교통부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부규칙이 있으니, 복수 등록을 추진코자 하는 부처의 세부규칙 검토가 필요함.
– 정부부처 복수등록전담 TF를 구성하여 복수 등록에 대한 득과 실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함.
– 주요 현안에 따라 협회 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는 부처와 소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김영수 회장 '건축자재추천서' 교부

우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자재추천'에 대한 교부식이 지난 2월 13일 오후4시 건축사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올해 건축자재 추천을 받은 업체는 총 33개이며, 지난해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가한 업체 중 선정됐다. 건축자재추천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설기술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엄중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김영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좋은 건축은 좋은 자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오늘 선정된 자재들은 전국의 건축사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수한 건축자재 개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회장, 2014 ALACE 컨벤션 참가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 LAO-ITECC (International Trade Exhibitio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2014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ALACE) 컨벤션'에 참석했다.
지난 2010년 대한건축사협회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ALACE는 매년 컨벤션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위한 ALACE의 준비'를 주제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전시는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개의 작품을 출품했다. 출품작은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응노의 집,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조성룡 건축사)을 비롯한 5점,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재원 건축사의 〈풍기읍사무소〉을 포함한 3점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에 김진숙 국장 발령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에 김진숙 국장이 임명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4일 국장급 전보를 통해 김진숙 국장이 건축정책관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건축정책관으로 근무한 이화순 국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에 파견됐으며, 파견근무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이 국장은 건축정책관 근무시절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업무를 총괄

하며 건축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각종 건축계 행사에 일일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새로 임명된 김진숙 국장은 인하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으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국토지리정보원 관리과 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전국 16개 시 · 도건축사회 총회 일정

우리협회 정기 총회가 2월 27일(목) 개최된 가운데, 전국 16개 시 · 도건축사회는 3월 한 달 간 일제히 총회를 개최한다. 16개 시 · 도건축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며, 각 시 · 도별 감사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제일 먼저 광주광역시건축사 및 전라남도 건축사회가 3월 7일 신양파크 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며, 시 · 도건축사회의 정기총회 개최일은 아래와 같다.

〈시 · 도건축사회 총회 일정〉

일 자	건축사회	시 간	장 소
3. 7(금)	광 주	10:00	신양파크호텔(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20-8)
	전 남	13:30	마리나 컨벤션 2층 연회장(전남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785-7)
3.12(수)	전 북	10:00	오펠리스 5층 컨벤션홀(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0-1)
3.13(목)	경 기	10:00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충 북	10:30	명암타워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1번지)
3.14(금)	경 북	11:00	구미 호텔금오산(경북 구미시 남통동 산24-9번지)
3.18(금)	서 울	14:00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경 남	14:00	경남도청 도민홀(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3.20(목)	대 구	10:00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대구 북구 산격2동 1674번지)
3.21(금)	제 주	15:00	제주 KAL 호텔 2층(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
	충 남	미 정	온양그래든호텔(충남 아산시 온천동 300-28)
3.24(월)	울 산	16:00	울산 MBC컨벤션 2층 아모레홀(울산 중구 염포로 55)
3.25(화)	인 천	10:00	하버파크 호텔(인천 중구 제물량로 217)
3.26(수)	부 산	15:00	농심호텔 2층(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 20번길 23)
3.27(목)	대 전	10:30	미 정
3.28(금)	강 원	11:00	호텔베어스 2층 소양홀(강원 춘천시 삼천동 300-3)

*2014년 2월 21일 기준

건축계소식

빌딩스마트협회 국내 BIM 적용실적 발표

(사)빌딩스마트협회는 2013년 하반기 업체별 BIM 적용실적 등록 순위를 발표했다.
2013년 하반기 BIM적용실적 등록순위는 건축사사무소 분야에서 ㈜현대 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CM 분야에서 ㈜예다 종합설계감리사무소, BIM전문업체 분야에서는 한국씨.아이.엠㈜이 1위를 차지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2013년 하반기 BIM적용실적은 건축사사무소 16개사 61건, 엔지니어링사/CM사 2개사 5건, BIM전문업체/BIM특화설계업체 9개사 63건으로 총 129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하반기 계약형태는 공공공사 39.84%, 민간공사 60.16%로 분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 용도별로는 업무시설 15%, 상업시설 40%, 문화 및 집회시설 17%, 주거시설 13%, 교육시설 5%, 의료시설 0.7%, 기타시설 9.3%의 실적분포를 보였다.
빌딩스마트협회는 BIM적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내 BIM적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널리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BIM적용실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buildingsmart.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설계 공모

한국 최대 순교 성지 서소문공원, 역사유적지로 변신
등록 3월 21일 · 접수 6월23일까지, 국내 건축사만 참여 가능

우리나라 최대 순교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역사유적지로 만들기 위한 설계 공모가 시작된다. 서울시 중구는 2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설계 경기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공모전 홈페이지(www.seosomun.org)를 오픈했다.
참가자격은 국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 조경 및 도시설계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공정한 공모로 진행하기 위해 설계경기 공고와 동시에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했다. 심사위원은 박승홍(디자인캠프 문박 DMP 대표), 김준성(hANd 대표), 이형재(정림건축 사장), 진양교(CA조경 대표), 박인석(명지대 교수) 등 5명과 예비위원으로 최문규(연세대 교수)를 선정했다. 중구는 지난 2월 27일 설계 지침을 배포하고, 3월21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은 후 3월 26일 현장설명회를 갖는다. 4월 18일 질의에 대한 응답을 거쳐 6월 23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 심사는 6월 26일과 27일 이틀간 2단계로 실시하는데, 26일 결선 진출 7개 작품을 선발하고, 27일 7개 작품 설계자들의 프리젠테이션(PT)과 심사위원의 질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심사결과는 6월30일 발표된다. 1등 작품 설계자에게는 실시설계권이, 2등(1작품)과 3등(2작품), 가작(3작품)으로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서소문공원은 조선시대 사형장으로 사용되어 천주교 박해시기에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던 장소다. 지난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가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됐다. 서소문공원에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는'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시 중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구는 총 사업비 513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3월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대부분이 국유지인 서소문공원에서 사업이 가능토록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유지 관리사무를 중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사업비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30%를 지원하고, 각종 행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되돌아 본 건축士 · 건축史.

글. **백상월**_ Baik, Sang-worl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대연각호텔 화재로 고층건물에 대한 방재설계 강화

1972년은 연초부터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작됐다. 불과 일주일 전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10시경,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대연각호텔에 대형화재가 발생해 166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 당한 것이다. 1층 커피숍 주방에 있던 프로판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었고, 호텔 바닥의 나일론 카페트와 목조시설물 등 가연성 내장재로 불이 옮겨 붙으며 삽시간에 옥상까지 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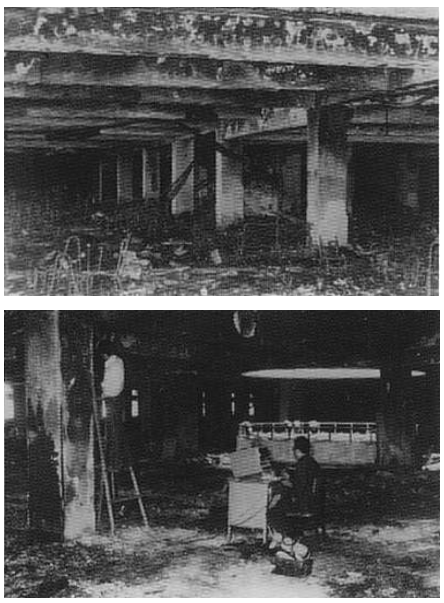
호텔 계단은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아 탈출구가 되지 못했고, 옥상문까지 잠겨 있어 질식사한 투숙객이 많았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됐던 고가사다리는 최고높이가 건물 7층 규모밖에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고, 서울시내 전 소방서와 육해공군은 물론 대통령전용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옥상에 헬리패드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10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진화됐다. 화재시스템은 설치돼 있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건축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당초 설계도를 무시하고 2~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1969년 19층으로 준공하고 1970년에 21층으로 불법 증축한 것이다. 방화벽으로 밀폐해야 하는 천장에 66cm가량의 공간이 있는 등 부실공사도 자행됐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방시설이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측과 공무원들이 짜고 허위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기도 했다.

당시로서는 초고층에 속했던 22층 건물의 방재대책이 그만큼 허술했던 것이다. 사고 이후 모든 고층빌딩의 옥상 헬리패드와 건물 내부의 비상구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됐다. 월간 〈건축사〉는 1972년 2월호에서 이 사건을 주요하게 다뤘는데, 방재와 구조 등 고층건물 설계 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한 원고들을 게재했다.

한편, 대연각호텔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 사무용 건물(대연각빌딩)로 사용하고 있다.

대연각호텔 화재 당시


화재 직후 피해상황

현재 대연각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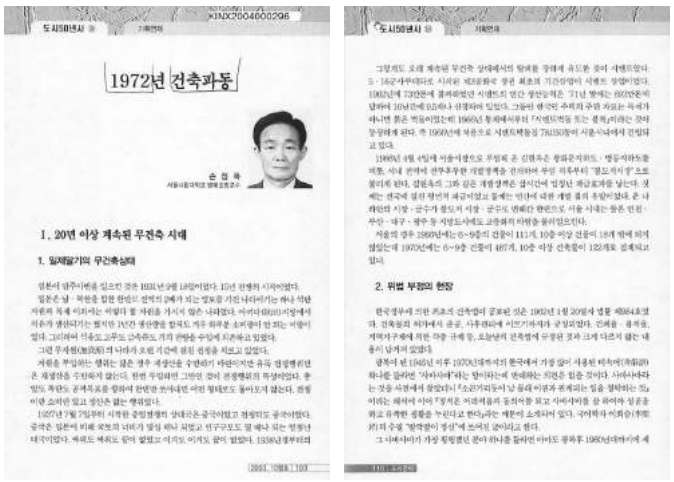
‘1972년 건축파동’ 위법 · 부정의 건축물 적발 관련자 엄중처벌

건축물의 허가, 준공, 사후관리 등이 규정된 건축법이 공포된 것은 1962년 1월 20일이고, 구청에 건축과가 처음 생긴 것이 1965년 10월이다. 그리고 10년 후인 1972년 일명 ‘건축파동’이라는 이름의 사건이 발생한다. 무분별한 개발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온갖 위법 · 부정의 현장이 드러나고, 감사원은 그에 따른 감사결과로 30여명이 넘는 건축주와 관련 공무원에게 벌금형 또는 고발 조치를 하게 이르렀던 것이다.

‘1972년 건축파동’이라는 제목으로 글(월간 〈도시문제〉 2003년 10월호)을 작성한 손정목(서울시립대) 교수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 지어진 모든 건축물은, 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정식 절차를 밟아 지어진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된 대로 지어지고 관리된 건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1970년대 초쯤에는 부정사례가 극에 달해 살벌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 예로 세종로와 종로가 만나는 현 교보빌딩 자리는 당시 의사회관이라고 속칭되는 10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아래 5층과 위의 5층 건물 색이 달랐다. 이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5층으로 허가를 받고 6층부터는 무허가로 증축한 위법건축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건물 바로 뒤에는 13층짜리 호텔이 있었는데, 유력 기관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2~3년에 지나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마치 유령의 집처럼 거칠어져 갔다고 한다.

손 교수는 이러한 부정이 횡행했던 이유로 개발독재가 장기 집권했던 당시의 시대상, ‘돈이면 다 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벌칙의 미비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을 꼽는다. 그러던 1972년 4월 감사원에 의한 서울시 건축행정 감사가 실시됐고, 6월 초 180명의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 중 105명이 파면 또는 사직 권고됐고 나머지도 감봉 1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중 처벌이었다. 그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공무원과 건축주 30여명이 고발됐고, 그중에서 5명이 구속됐다. 또한 불법 증축된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건축사에게 층당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또한 벌금으로 위법을 합법화한 부조리였지만 언론이 통제됐던 당시에는 기사화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 손 교수가 이러한 내용의 글을 발표한 것이 2003년이니 30년이 지난 후에야 밝혀진 과거사인 것이다.

손 교수는 ‘1972년 건축파동’으로 명명한 당시 이 사건을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넘어야 할 큰 언덕이라고 평했다. 이를 계기로 눈에 띄는 건축부정은 감소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위법 부정의 사례는 많다. 건축사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축물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시키는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 건축파동’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건축질서를 바로 서게 했던 사건이라는 손 교수의 분석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한다.



월간 〈도시문제〉 2003년 10월호에 게재된 손정목 교수의 글

글. **김은미**_ Kim, Eun-mee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태양을 설치하다

Solar On

팀 오스트리아의 당선작

팀 오스트리아의 당선작

LISI(Living Inspired by Sustainable Innovation)라고 명명된 세련되고 개방적 형태의 디자인 결과물을 보여준 팀 오스트리아는 U.S. Department of Energy's Solar Decathlon(미국 에너지국 주최 태양광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였다. 격년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19개의 대학을 초청하여 획기적인 태양광 동력 기반의 집을 짓고, 미국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에서 대중에 공개하였다. 참가 작품들은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심사되는데, 그 중 주요 사안은 건축 작품성, 가격 적정성, 에너지 효율성이다. 오스트리아의 참가작은 대개 눈이 많은 지역에서 위장막으로 사용되는 군수품인 유연한 백색의 직물로 커튼을 만들어 외부를 디자인하였다. 이 나무 재료로 만들어진 디자인(미국 내 약 96%의 일반 주택들이 이 재료로 만들어 지기는 한다)은 슬라이딩 포켓 도어와 수풀이 우거진 큰 규모의 데크를 통해 내부의 모습을 펼쳐 보이며, 설치된 태양광 발전 동력 시스템으로 집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충당한다.

라스베가스와 체코 공화국의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작품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라스베가스 팀의 작품은 재생목으로 아름답게 마감한 'DesertSol'이라는 이름을 가진, 흡사 사막지역 전초기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팀 체코 공화국의 'AIR House'는 작품성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집 속의 집" 이란 개념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외부 공간에 큰 목초 공간을 마련하였다.

캘리포니아의 팀들은 매우 훌륭한 계획을, 게다가 홈 팀인 상황에서 제시했음에도 최고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팀 스탠포드는 다섯 번째에 랭크되었으며, USC는 10번째, UC-Santa Clara는 11번째, 그리고 SCI-Arc Caltech은 14등을 차지하였다.

2등을 차지한 라스베가스 네바다 대학교 학생 작품

싸이아크와 칼텍 팀의 작품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그 본질에 접근한 작품이었다. 'DALE' 이라 이름 지어진 이 집은 레일

3등의 체코 기술대학 작품

위에 두 개의 집을 나누어 배치하였다. 사실상 이번 대회의 거의 모든 집들은 진열장과 같거나, 비현실적인 날렵함을 뽐내거나, 최신 유행의 디자인이거나, 그리고 지속가능성 기술은 현재 기술 스탠다드에 비해 훨씬 앞선 스마트 홈 어플리케이션부터 중수관리시스템, 선진의 단열 기술 등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출품된 모든 작품은 그 집의 에너지 예상 사용량보다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고 대회 주최 측은 밝혔다.

Sci-Arc와 Caltech의 작품

이 대회는 National Mall in Washington D.C.에서 시작해 10년 동안 계속 개최되어 왔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는 전국에서 20개의 도시들이 참가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장소였으며, 다행히 이 행사는 지난 번 미국 연방 정부 폐쇄 때도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태풍 시기도 피할 수 있었다. 올해의 행사는 그레이트 파크 11에이커 공간에 19채의 솔라 하우스들만 전시된 것이 아니라, 가정집과 정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등 다방면의 지속 가능한 기술을 보여 주는 엑스포로 확장되었다. 각 팀들에게는 작품을 짓는 시간이 9일만 제공됐고, 시작 시점부터 흥분되고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그레이트 파크가 많은 군중을 잡아 끌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라고 고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6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줄을 지어 출품된 모든 작품들을 둘러 보았다. 이 행사는 대학교가 혁신적인 지속 가능성을 개발시키는 완벽한 연구소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행사 측은 밝혔으며, 심사위원들은 행사에 쏟아 부은 학생들의 어마어마한 노력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4년 1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200	6,200	81	162	8	29	6,289	6,391	1,796	1,796	231	462	59	177	26	104	14	93	2,126	2,632	8,415	9,023
서울	977	977	20	40	1	8	998	1,025	901	901	123	246	40	120	12	48	10	59	1,086	1,374	2,084	2,399
부산	537	537	9	18	2	6	548	561	114	114	28	56	2	6	2	8	1	7	147	191	695	752
대구	526	526	18	39	4	12	548	574	71	71	14	28	4	12	2	8	0	0	91	119	639	693
인천	290	290	3	6	0	0	293	296	63	63	7	14	1	3	0	0	0	0	71	80	364	376
광주	229	229	1	2	0	0	230	231	45	45	5	10	2	6	3	12	0	0	55	73	285	304
대전	265	265	5	10	0	0	270	275	34	34	8	16	4	12	1	4	1	12	48	78	318	353
울산	203	203	4	8	0	0	207	211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31	238
경기	872	872	2	4	0	0	874	876	260	260	14	28	4	12	2	8	0	0	280	308	1,154	1,184
강원	201	201	2	4	0	0	203	205	27	27	2	4	0	0	1	4	0	0	30	35	233	240
충북	227	227	2	4	0	0	229	231	44	44	3	6	2	6	2	8	1	9	52	73	281	304
충남	303	303	1	2	0	0	304	305	65	65	6	12	0	0	1	4	0	0	72	81	376	386
전북	276	276	5	10	0	0	281	286	30	30	4	8	0	0	0	0	0	0	34	38	315	324
전남	217	217	0	0	0	0	217	217	24	24	2	4	0	0	0	0	1	6	27	34	244	251
경북	426	426	4	8	1	3	431	437	42	42	5	10	0	0	0	0	0	0	47	52	478	489
경남	508	508	4	8	0	0	512	516	38	38	5	10	0	0	0	0	0	0	43	48	555	564
제주	143	143	1	2	0	0	144	145	17	17	2	4	0	0	0	0	0	0	19	21	163	16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9,023	100%
서울	2,399	26.59%
부산	752	8.33%
대구	693	7.68%
인천	376	4.17%
광주	304	3.37%
대전	353	3.91%
울산	238	2.64%
경기	1,184	13.12%
강원	240	2.66%
충북	304	3.37%
충남	386	4.28%
전북	324	3.59%
전남	251	2.78%
경북	489	5.42%
경남	564	6.25%
제주	166	1.84%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4년 2월중순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128	2,506
서울	3,846	1,700
부산	757	93
대구	676	57
인천	377	7
광주	300	49
대전	354	42
울산	234	29
경기	1,434	102
강원	259	19
충북	320	62
충남	382	63
전북	337	27
전남	280	60
경북	490	26
경남	589	47
제주	171	33
기타	1,322	90
비고	회원 : 8,872 / 비회원 : 3,256	대학 : 2,279 / 대학원 : 227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391	2,632	9,023	
비율	70.83%	29.17%	100%	
사무소수	6,289	2,126	8,415	
비율	74.74%	25.26%	100%	